

4-1-2019

## 예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 아람드리교회를 중심으로

Jae Cheon Yee 이재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이재천, "예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 아람드리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9.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MINISTRY PRACTICE OF SPIRITUAL DISCIPLINES BASED ON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  
WITH SPECIAL REFERENCE TO  
ARUMDREE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JAE CHEON Y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Wong Gil Shin



---

Jin Ki Hwang



---

Euiwan Cho

April 1, 2019

**MINISTRY PRACTICE OF SPIRITUAL DISCIPLINES  
BASED ON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 WITH SPECIAL REFERENCE TO  
ARUMDREE PRESBYTERIAN CHURCH**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 CHEON YEE**

APRIL 2019

예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 아람드리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신 응 길 교수

이 재 천

2019년 4월

## Abstract

Ministry Practice of Spiritual Disciplines Based on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 with Special Reference to Arumdree Presbyterian Church

Jae Cheon Yee

Doctor of Ministry

201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orean church has not been able to get through stagnation for three decades. As the Korean church has been trying to respond to the times, a monasterial spirituality training has recently been gaining popularity as an alternative faith training. However, this imported training has been criticized for its Catholic pluralistic and syncretistic col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ngraft spirituality training adhering to evangelical theology in Korean cultural climate under Buddhistic influenc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appropriate spiritual practices for the Korean church based on biblical prayer principles and the example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and desert monks. Arumdree Presbyterian Church was founded in 2009, focusing on newly developed spirituality training and intentionally ignoring preexisting discipleship and other faith training programs of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four-way principles of Jesus's prayers in the Gospels and to show the results of the practice of these spirituality training models for the sake of new ministry in the future.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amines prayers Jesus taught and exemplified in the Gospels. It organizes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s based on how the disciples practiced the prayers taught and exemplified. The principles are vertical, horizontal, inward, and integrative. Chapter 3 explores the teachings and examples of prayer from the early

church fathers and desert monks. The chapter examines historical cases until the establishment of monasteries and then extracts practical principles that fit the four-way prayer principles of Jesus in order to apply them for today's pastoral ministry context.

Chapter 4 analyze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church spirituality training. The study specifically evaluates the following: revival movements, prayer movements, discipleship training, and Protestant monastery movements. Consequently, the paper presents practical instructions it created for spirituality training that follows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s. Chapter 5 offers a blueprint of the spirituality training model of Arumdree Presbyterian Church, which follows the four-way prayer principle of Jesus. Its effectiveness and achievements are described for the past ten years of this church's development since its birth.

In conclusion, this study affirms the possibility for Jesus's four-way prayer principle to bear influential fruit within the pastoral ministry context of a conservative denomination of the Korean church. Moreover, it proposes the resulting Bible-based spirituality training as a feasible and consistent means to correct the Korean church's decline and help to plant churches centered on young people.

Theological Mentors: Wong Gil Shin, PhD

Jin Ki Hwang, PhD

Euiwan Cho, PhD

## 현 사

이 논문을 늘 곁에서 헌신적으로 자리를 지켜준 하나님나라 유업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 김선미 사모와 묵묵히 낮선 훈련에 참여하며 주님을 붙잡고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함께 일구어온 아람드리교회 성도들에게 바칩니다.

## 감사의 글

지나온 세월 거칠고 모난 저의 성품을 다듬어 오시며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뒤늦은 논문 시도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열정을 다해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신웅길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람드리 교회사역에 규모와 깊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힘을 기울여 소중한 열매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람드리교회라는 소박한 탄생과 성장을 보기까지 어려서부터 저를 기도로 키워 오셨던 고 심은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기도와 영적 분투는 저의 영성훈련 여정과 교회사역에 밑거름과 본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남편의 거친 내면을 견디며 기도와 섬김으로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와 사역과 일에 매몰된 아빠를 견디며 잘 자라준 두 아들 민호와 승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분들은 단연 아람드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의 미흡한 시도와 거친 실험정신을 탓하기보다 마음과 열심을 다해 묵묵히 따르며 교회를 일구어온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제겐 더 없는 기쁨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일구어온 영성훈련을 통해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이 재 천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논문의 동기와 문제제기 .....	1
제 2 절 논문의 목적 .....	3
제 3 절 논문의 방법론 .....	3
제 2 장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사도들의 적용 .....	5
제 1 절 예수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구약의 배경 .....	5
1.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내용과 방식의 강조점 .....	5
2. 유대교 경건생활에서 나타난 기도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	10
제 2 절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 .....	15
1.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의 본 .....	15
2.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	17
제 3 절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적용한 사도들의 강조점 .....	32
1.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에 대한 사도들의 순종과 헌신 .....	32
2. 신약성경을 통해 제시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원리와 내용 .....	40
3. 신약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기도방법들 .....	42
제 3 장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통해 본 사막의 교부들의 기도와 영성 .....	47
제 1 절 사막의 교부들의 삶과 영성에 대한 개관적 이해 .....	47
1. 사막 수도승들의 유래 .....	47
2.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던 수도운동 .....	52
제 2 절 사막 수도운동의 역사적 유산과 영성 .....	59
1. 사막수도승들의 역사적 유산 .....	59
2. 사막수도승들의 영성과 영성훈련의 초점 .....	64

제 3 절 네 방향 기도원리에 비추어본 사막 수도승들의 기도와 영성 .....	70
1. 사막의 수도승들이 직면했던 교회사적 상황 .....	70
2. 사막의 수도승들의 삶과 영성의 초점 .....	71
3. 사막의 수도승들이 전수해준 기도법 .....	72
제 4 장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적용점 모색 .....	79
제 1 절 한국교회의 신앙훈련의 현 상황과 목회현장의 과제 .....	79
1. 한국교회의 신앙훈련의 흐름과 성장 .....	79
2. 기존의 제자훈련평가와 향후과제 .....	86
제 2 절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한 영성훈련의 적실성 .....	92
1.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개신교 수도영성에 대한 탐색 .....	92
2. 교회 내 일반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들 .....	95
제 3 절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을 구축하기 .....	110
1. 상황과 신학적 판단 .....	110
2. 실제적 훈련지침 .....	111
3.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침 .....	113
제 5 장 아름답리 교회 개척에 적용된 사례 .....	113
제 1 절 아름답리교회 영성훈련 적용 모델 청사진 .....	113
1. 아름답리교회 개척 상황 .....	113
2. 네 방향 기도 원리를 반영한 아름답리교회 영성훈련 모델 .....	114
3.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프로그램 3단계 개발과정 .....	115
제 2 절 성경묵상중심의 영성훈련 기반 마련하기(2009-2010년) .....	116
1. 성경의 맥과 열개 .....	116
2. 주일 성경강해: 성경인물별 영적여정시리즈와 신앙 주제별 시리즈 .....	121
3. 아름답리 교회 영성훈련 I 과정 .....	123
제 3 절 내용과 균형을 잡아간 단계(2010-2016년) .....	129
1. 아름답리 교회 영성훈련 II 과정 .....	130

2. 아름드리 영성여행 개발 .....	134
3. 하나님나라 유업을 찾아가기 위한 아브라함 학교 개발 .....	138
제 4 절 통합과 성장을 일구어가는 3단계(2017-현재) .....	140
1. 가만주앞 리트릿 과정 .....	140
2. 영성생활 수칙 저널링 소그룹 세우기 .....	143
제 5 절 네 방향 기도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종합 평가 .....	144
제 6 장 결 론 .....	145
부록 .....	147
참고문헌 .....	161
Vita .....	167

## 표 목차

<표 1> 안중제일교회 성무일도(수도원적 매일일과표) .....	101
<표 2> 7주에 걸친 각 주의 주제제목과 당일 순서 .....	103
<표 3> 당일 운영순서 .....	104
<표 4> 성화훈련을 위한 경건일기 .....	104
<표 5> 매일 하는 개인 영성수련을 위한 지침 .....	105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논문의 동기와 문제 제기

최근 한국교회는 장기적인 침체와 붕괴의 나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목회 내용과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대학생 선교단체들에 의해 보급된 제자훈련이 80년대 목회현장에 도입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를 지나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들은 제자훈련이 지향 하는 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제자도 훈련 프로그램이 교회성장학적 측면에서 접목되면서 외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적 저하와 목회자의 세속적 변질을 초래하는 등 잘못된 열매를 맺은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게다가 교회의 수적 감소와 젊은 세대들의 소외와 사회적 영향력 감소 현상은 목회 내용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 영성훈련에 충실한 교회를 구상하고 2009년 3월 1일 아담드리교회(www.ad2009.org)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개척의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현재 한국교회에 보급되어 있는 제자훈련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재평가하며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영적성장에 대한 내면적 여정과 역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훈련과 삶이 부족했던 점, 개인과 가정의 측면에서의 완성도 있는 신앙을 돕는 노력의 부족, 다양한 성향의 성도에게 적실한 영성훈련 방법의 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 신앙 훈련 모델을 구축하여 새롭게 고안된 영

성훈련 중심 목회를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충실한 영성훈련 방법을 토대로, 역사적 사례와 열매를 재검토하여 목회 현장에 맞게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그 결과 교회가 3년 만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여정에 도움을 받고자 최근 미국의 복음적인 영성훈련 단체인 이마고크리스트 네트워크(www.ImagoChristi.org)와 연결하여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다. 아름드리교회의 개척자적 사역의 성과는 최근에 미국 내의 건강한 복음주의적 영성훈련 목회의 시도와 성과를 담은 책 *Contagious Fire*에 그 구체적 사례가 언급되며 격려와 힘을 얻은 바 있다.<sup>1)</sup>

영성훈련을 한국의 20-40대 성도들에게 접목하여 훈련하면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첫째로, 작금의 영성훈련이 달라스 윌라드와 유진 피터슨과 같은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조명되어 제시되긴 했어도, 그 구체적인 훈련 방법론은 가톨릭 수도원적 배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전통적인 교회에는 신학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음주의적 신학적 관점을 벗어나 혼합주의적 요소가 흡수되어 있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둘째로,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영성훈련을 진보 진영의 교단에서 선도하다 보니 한국의 불교적 도교적 기도 방식과 훈련 내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전통적 보수 교단 측의 우려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그 실례로 본인이 속한 예수교 장로회 등의 보수적 교단 총회(2011년)에서 심각한 비판과 견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관상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측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상기도가 비성경적이며 신비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배척해야 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sup>2)</sup> 이러한 논의를 눈여겨 지켜보면서 본 연구자는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통기독교 신앙의

1) R. Thomas Ashbrook, *Contagious Fire*, (N.A: Ashbrook Publishing, 2018), 408-410.

2) 라영환,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관상기도”, *교회와 신앙*, n.p.[cited 2011년 11월6일]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3> ; 김남준, “관상기도의 신학적 문제점과 목회적 대안”, *교회와 신앙*, n.p.[cited 2011년 11월2일]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9>. 이승구, “관상기도 운동 연구보고서”, *교회와 신앙*, n.p.[cited 2011년 10월28일]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8>.

계승적 차원에서 영성훈련을 재조명하여 선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연구와 실험적 도전을 통해 교회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제 2 절 논문의 목적

한국교회 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도모형과 영성훈련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음을 학위논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그러나 기존의 기도훈련과 신앙훈련을 성경신학적으로 재조명하여 새로운 모델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 모델을 구체적 목회 현장 특히 개척교회에 적용하여 검증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회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그 영향력과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국교회에 보급되어 있는 제자훈련 중심과 교회성장론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영성훈련용으로 만든 자료들을 수정 보완하여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지난 10년의 여정 속에 이루어진 작업과 그 성과들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영성훈련 중심의 목회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목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 3 절 논문의 방법론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성경신학적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정리하고, 역사 신학적으로 초대교회의 사례들을 그 원리에 따라 분석하는 작업을 토대로 영성훈련 모델을 구축하고, 실천신학적으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경적 기도 원리와 기도 방법론을 한국교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적용하여 실현하는

3) 이진규, “한국교회 영성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D. Min. diss., 장로회 신학대학, 2013); 이효근, “영성형성을 위한 통전적 기도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D. Min. diss., 백석대학원, 2014); 김대현,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개발에 관한 연구”, (Th. D. diss.,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6), 등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정과 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약에서 언급된 기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과의 연속성과 강조점을 탐색한다. 둘째로, 유대교의 경건생활 배경 속에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과 본을 보였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네 방향 기도 원리’라는 틀로 정리하고 기초원리로 설정한다. 셋째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화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네 방향 기도 원리 중 각 방향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과 방법을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다. 넷째로,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승들이 사막에서 평생 자기 영혼과 씨름하면서 일군 기도 방식을 탐구한 후에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라 선별하여 정리한다. 이는 사막의 수도승들의 유산을 성경적 원리로 분별하여 오늘날 한국 상황에 타당하고 열매를 맺는 균형 잡힌 기도를 실천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한국 상황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신앙훈련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사막 수도승들과 맥을 같이하는 토착 수도운동의 뿌리와 실례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을 접목할 때 필요한 지혜와 실천 지침들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과 구체적 실행방식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아름드리 개척 상황에 적용한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실천하여 어떠한 성과와 열매를 거두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개발한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이 제자훈련을 넘어 미래 목회에 적응력과 영향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 제 2 장

###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사도들의 적용

#### 제 1 절 예수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구약의 배경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복음서에서 연구하기 전에 구약의 기도 배경과 유대인들의 기도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과의 연속성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강조점을 선명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과 내용 중에 예수님이 버리신 것과 받아들이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기도 원리를 분별력 있게 오늘의 목회 현장에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얻고자 한다.

#### 1.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 내용과 방식의 강조점

##### 가. 내용적 측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 방식을 먼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인격적 교제 속에 나누는 대화와 질의응답(출 32:7-14; 33:12-23), 자신의 삶의 필요를 요청하는 간구(창 28:20-22), 언약백성을 향한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중보기도(느 1:4-11),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삼하 22:1-51) 등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중 타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특성이다. 이 인격적 측면을 모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선지자들의 기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형식화되어버린 유대교 기도 방식 속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 (1) 모세의 기도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면하며 교제를 나눈 모세(출 33:11)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도 양태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질의응답은 그 좋은 예이다.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출 3:10, 개역개정4)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출 3:11)냐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출 3:12)이라 약속하신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소개해야 하는지를 묻고(출 3:13),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달라고 구하며(출 4:1) 진지하게 묻는다. 이어서 모세가 자신이 말을 못하는 자라고 사양하고 보낼만 한 자를 보내라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자(출 4:10, 13),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노하신다(출 4:14-16). 이러한 장면은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모세는 상대를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없이 자기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모습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출 32-34장; 신 31:14-29).

## (2) 다윗의 기도

다윗은 구약 시편 중 칠십 삼 개의 시를 남긴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기 내면의 죄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들(시 25,31,32,51편 등)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엿볼 수 있다. 시 51편은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한 후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지은 시인데, 다윗은 잘못했다는 용서의 말보다 여러 차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시 51:1, 2, 7). 그리고 “주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시 52:9)라고 구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자신으로부터 돌이키지 마시길 간청한다. 시 25편에서도 분명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시 25:11),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 하면서(시 25:7)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시 25:2, 20) 대목에서는 스스로없이 가까운 관계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확인하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에 대한 저주(시 55<sup>5</sup>,109<sup>6</sup>편 등)들을 토

4)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 성경을 따른다.

5)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그들이 혀를 잘라버리소서”(시

해내는 시에서는 노골적으로 “원수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시 55:9), “산 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해달라”(시 55:15), “자신의 원수의 자녀들이 빌어먹고(시 109:10)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시 109:13) 해달라고 요청하는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속 감정 표현이다. 이러한 기도 내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감정적 차원에서까지 친밀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 (3) 예레미야의 기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너져가는 모습을 애달파하면서 선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는다(렘 38:6, 28).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렘 4:19-22; 14:13; 32:17, 24-25; 애 1:1-2, 16; 2:1, 11; 3:48-49).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패망 속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인격적인 친밀감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곤고함에 지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말을 할 정도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은 놀라울 정도이다<sup>7)</sup>. 솔직한 자기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다윗의 그것과 같다.

한편 이러한 기도 내용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테필라(열 여덟 개의 축복기도)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의 심장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슬픔과 탄식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sup>8)</sup> 이 기도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장의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신뢰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sup>9)</sup>라는 기도문에서는 배교자들을 저주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만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딱

55:9), “사망이 갑자기 임하여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갈 지어다”(시 55:15)라 토로하고 있다.

6) 시 109편은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 유리하고 구걸하게 해” 달라(시 109:9-10)는 등 원수의 가정을 파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7)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렘 20:14-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며 탄식하고 있다.

8) 김세운,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서원, 2000), 21. 18기도문 중 8번째 기도문이다.

9) Ibid., 22. 18기도문 중 12번째 기도문이다.

하고 격식을 차리는 부분이 많아 모세나 다윗만큼 인격적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농도의 친밀감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보게 된다.

#### 나. 기도 방법과 자세 측면에서

예수의 공생애 기간에 유대인들은 공적으로는 성전의 아침과 오후에 올리는 성전제사에 맞추어 기도하였고, 회당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루 세 번에 걸쳐 기도를 올렸다.<sup>10)</sup>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발전시켰다.<sup>11)</sup>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기도와 연속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바리새인들이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예에서 보듯 당시 유대교는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자세에서 구약의 기도 모습을 따르려 힘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sup>12)</sup> 관례적인 틀 안에서 상황에 맞추어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면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공적으로 서서 기도하기

예수님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다.<sup>13)</sup>

##### (2) 금식기도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하루를 온전히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레 16장).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레 16:29, 31)라는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금식하며 보내는 시간으로 지켜왔다.<sup>14)</sup>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 앞에서

10) William W. Simpson,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Jewish Prayer and Worship)*, 류재영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22.

11) Kendell H. Easley, “Prayer Customs in the First-Century Judaism,” *Biblical Illustrator* 24(1996): 49.

12) Ibid., 48.

13) Ibid., 50.

14) Adele Scarnera, *4천년의 기도 단식(II digiuno dalle originai al IV)*, 노성기, 안봉환 역

자신을 정결케 하였다(레 16:30).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를 보면, 여호수아는 위기 상황 속에 엎드려 기도하였고(수 7:6),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로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였다(삼하 12:16). 기도자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금식을 실천했던 것이다. 이러한 금식 전통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 중요한 정기적 기도 형태로 자리 잡았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공식 주간 금식일로 정하여 기도에 정진했다.<sup>15)</sup>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마 9:14)는 문제 제기는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 (3) 항상 기도하기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며 떡을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함으로써 그분의 임재와 제사를 항상 유지하는(레 24:3-4, 8) 규례에서 비롯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여 왔음을 여러 시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72:15; 73:23; 105:4; 141:5).

### (4) 하루 세 번 기도

항상 기도하기를 유지하는 패턴이 다윗과 다니엘에게서 하루 세 번 기도로 구체화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세 번 기도를 언급했으며(시 55:17),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 세 번 하는 기도 습관을 고수하느라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단 6:10). 이렇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전통은 아침에 해 뜰 무렵과 오후 3시 성전 제사 시간과 해질 무렵으로 관례화되어 지켜졌다.<sup>16)</sup>

### (5)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포로 귀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며(단 9:1-19),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회복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느 1:6-9).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8), 62.

15) Scarnera, *4천년의 기도 단식*, 80.

16) Easley, "Prayer", 49-50.

재건 이후 성전 중심의 율법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초막절 제의 때 토라를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예배 장면(느 8:1-12)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 회당에서 드러졌던 말씀 중심 예배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에스라의 예배 모델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의 중요한 예배와 기도 형태의 근거로 작용하였다.<sup>17)</sup>

결론적으로 구약의 기도의 예를 보면 구약에 기도에 대한 규범화된 틀은 없었고, 기도하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기도자가 언약의 말씀 즉 토라를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기, 성전과 회당 예배에서 시편기도로 나아가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며 솔직한 심정으로 대화하기, 금식하며 기도하기, 하루 세 번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 유지하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은 아래에 설명되는 신약시대 유대교의 기도 형태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유대교가 갖는 율법주의적 한계로 인하여 기도 당사자 간의 관계 역동보다는 형식적인 격식이 중요시 여겨져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수정 보완하신 가르침을 만나게 된다.

## 2. 유대교 경건생활에 나타난 기도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 가. 유대교의 기도 종류

유대교에서 기도는 자발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낭독하는 행위였다. 내용 면에서 보면, 구약성경에 언급된 바에 따라 종파와 개인별로 여러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암송하며 드리는 시편기도가 있고, 둘째로 관습적인 기도문을 사용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또한 구약 전통 속에 행해져 왔던 금식기도가 관례적으로 행해졌다. 특별히 건기 동안에는 매주 이틀씩 금식하여 자신들의 공로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sup>18)</sup> 한편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는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매일 공동체적으로 기도가 드러졌다(눅 1:10; 2:37; 행 3:1).<sup>19)</sup>

17) Finkel, "Prayer in Jewish Life of the First Century as Background to Early Christianity," in Richard N. Longenecker, ed., *Into God's Presen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49.

18) Craig S. Keener, *IVP 성경배경주석: 신약(The IVP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72

## (1) 관습적 기도문의 형성 배경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포로기 시절에 회당이 등장하면서 토라 낭독과 기도 중심의 예배가 드러지기 시작했다.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이 재건된 상황에서도 성전예배와 회당예배가 병행해서 드러졌다는 것은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과 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1세기 유대인들에 의해 드러졌던 기도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서두, 찬양, 감사 그리고 개인적인 탄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1)</sup> 이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형식 어구로 사용했던, 성경에 언급된 기도 문구가 중간에 삽입되었고, 동시대의 선생들이 사용해 익히 알려진 기도 문구들이 함께 사용되었다.<sup>22)</sup> 아셔 핑켈(Asher Finkel)은 이러한 기도 관습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에 드렸던 초막절 토라 낭독 중심의 의식(느 8:1-12)에서 기원하였고, 유대교 예배에서 서기관들이 토라를 바탕으로 고안한 기도 문구들이 격식화되어 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다.<sup>23)</sup>

## (2) 하루 세 차례 세 개의 관습적 기도문과 시편기도를 드림

앞에서 언급한 기도의 예와 원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도를 하루 세 번씩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드렸고,<sup>24)</sup> 이때 드리는 기도 방식은 시편을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와 관습적인 세 개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는 것이었다. 세 개의 관습적인 기도문은 ‘쉐마’, ‘18기도문’(테필라), ‘카디쉬’였다.<sup>25)</sup> 세 가지 기도문이 당시 회당에서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아침 예배 시 아침 축복문 낭독, 시편송과 쉐마 낭송, 18기도문 순으로 드렸다. 점심 기도는 위의 순서에서 18기도문을 낭독할 때 처음에는 조용하게 그다음에는 큰 소리로 반복했고, 저녁 기도는 쉐마를 낭독자와 회중이 교독으로 낭송하여 드렸다.

19) Keener, *IVP 성경배경주석*, 383.

20) Finkel, “Prayer,” 46.

21) *Ibid.*, 48.

22) Finkel, “Prayer”, 47-49. 이곳에서 Finkel은 민수기 6장 24-26절 그리고 여러 시편들과 쉐마등을 언급하고 있다.

23) Finkel, “Prayer”, 49.

24)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9.

25) *Ibid.*, 49.

26) 차명호, “유대교 18개 기도문이 초기기독교 기도에 미친 영향,” *부산장신 논총*, 9(2009): 157-159. 이후의 아침 점심 저녁기도의 기도문 사용의 설명은 이 글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제 세 개의 관습적 기도문을 살펴보자. 첫째로 쉼마기도는 신명기 6장 4-9절, 신명기 11장 3-21절, 민수기 15장 37-41절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기도를 말한다.<sup>27)</sup> 둘째로 ‘테필라’라고도 부르는 18기도문은 열 여덟 개의 짜임새 있는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8)</sup> 처음 세 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고, 가운데 열두 개는 청원과 간구 기도이고, 마지막 세 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였다.<sup>29)</sup> 셋째로 카디쉬는 회당에서 설교 후에 참석자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었다. 예배 시 말씀 뒤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이 카디쉬를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며 드렸다. 특이한 점은 카디쉬 기도문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카디쉬 기도문은 아래와 같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sup>30)</sup>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눅 11:1), 당시 유대교의 기도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보인다(눅 11:2-4). 기도의 대상을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교정하시고, 도래하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고백과 요청을 드리는 형태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제시하셨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시편기도를 살펴보자. 회당에서 시편은 예배 시 낭독되거나, 기도문으로 낭송되었으며, 혹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sup>31)</sup> 이는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회당예배에 사용된 구약시편 사용은 복음서에 나타난 몇몇 기

27) Simpson,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 25.

28) ‘서있다’라는 히브리어 ‘테필라’라는 단어를 기도문 용어로 사용했다.

29)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20-23. 이곳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목적에 필요치 않아서 개략적 설명으로 대신한다.

30) Ibid., 20.

31) Bernhard W. Anderson, *시편의 깊은 세계(Out of Depth)*, 노희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4.



도문들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마 27:45-46; 눅 1:46-55; 67-79; 요 2:17). 이를 통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구약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자기 상황에 적용하여 정돈된 형태로 드렸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기도(눅 1:46-55)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나의 기도(삼상 2:1-10)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자기상황화하여 드러진 기도임이 드러난다. 한나의 기도(삼상 2:1-10)와 마리아의 기도(눅 1:46-55)의 유사한 표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내가 기뻐함(삼상 2:1) --- 내 마음이....기뻐하였음(눅 1:47)  
 거룩하신 이(삼상 2:2) --- 그 이름이 거룩함(눅 1:49)  
 교만한 말(삼상 2:3) --- 교만한 자(눅 1:51)  
 풍족하던 자(삼상 2:4) --- 부자(눅 1:53)  
 가난한 자(삼상 2:8) --- 주리는 자(눅 1:53)  
 힘(삼상 2:4, 9) --- 힘(눅 1:51)

위와 같이 두 노래는 유사성이 많아 자매 기도문이라 할 만하다.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 상황을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그 해석적 단초를 잡아 한나의 기도를 자기 내면화하여 올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예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의 기도문들을 암송하거나 자신에게 상황화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예수님께서 교정하고 보완한 기도 가르침에서 얻는 교훈

이렇듯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행했던 기도 생활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러 기도의 예들을 바탕으로 유대교 서기관들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었음을 보게 된다. 하루 세 번 기도, 주 2회 금식기도, 예배시간에 드러지는 시편기도와 신앙고백을 담은 관습적 기도문 낭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대교적 경건생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르침의 연속성 위에서 보완하여 고유한 기도 형태를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

## (1) 구약의 가르침과 연속성 있는 가르침 강조

율법의 완성자로 자처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중 구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것은 계승하고 실천하셨다(마 5:17). 그 예를 살펴보자. 첫째로, 스스로 40일 금식기도(마 4:1-11)와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눅 5:16)으로 본을 보이셨다. 둘째로, 기도의 빈도를 하루 세 번 한다는 규례화된 틀을 원래 구약에서 명한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조하셨다(눅 18:1). 실제로 주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뛰어 넘어 구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2) 유대교의 외식적 기도 행태를 교정

유대교의 기도는 형식적일 뿐 아니라 외식적이었다. 이는 원래 구약의 가르침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기도의 본질적 속성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마 6:6-13).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기도를 드리는 문제를 지적하셨다(마 6:5).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 띠를 넓게 하여 드러내려 했으며(마 23:5),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였고(마 6:5),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 삼아 열거하며 기도드렸고(눅 18:11-12), 금식기도할 때도 슬픈 기색을 띠어 티를 내는 등(마 6:16)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었다(눅 20:46). 그들은 기도의 질보다 양과 외양을 중시했다.<sup>32)</sup>

예수님께서서는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기도 행위를 문제시 삼고,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이라는 보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고 잘라 말하셨다.<sup>33)</sup> 외식적 기도는 결국 썩은 열매로 드러난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마 23:27),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마 23:25) 예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셨다. 이러한 기도를 해독하는 길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것이었다.<sup>34)</sup> 은밀한 교제 속에서

32) 마태복음 6장 5, 7, 16절에 보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함으로써 기도의 양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신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개탄스럽게 생각하셨다.

33) 마태복음 6장 5, 16절에서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는 기도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으므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34) 마태복음 6장 6, 18절, “은밀한 중에 계신 분께 사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말씀하신다. 이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 방식을 가지고 있으심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고(고전 2:6-7) 거짓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과 동거하며 누리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다(요일 1:1-3).

### (3) 이방인들의 샤머니즘적 기도의 교정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 기도하며(마 6:7), 먹고 마시고 입는 일만을 구하고 있음을 주님은 못마땅해 하셨다(마 6:31-32).<sup>35)</sup> 실제로 헬라 종교의 기도문들의 경우 신의 호칭을 최대한 많이 열거함으로써 신의 관심을 끌려고 했으며 제물이나 기도자의 선행을 강조하면서 신의 환심을 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주고받기식의 거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기도 행태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적 기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마 6:8), 하나님나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명하시면서 이러한 샤머니즘적 기도를 바로잡아 주셨다(마 6:33). 오히려 스스로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마 26:36-46) 모세와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인격적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약과의 연속선상에 서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기도예에 대해 구약 성경의 예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강조점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셨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으로 친밀한 기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도예에 관한 연구와 적용에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기도의 가르침과 원리에 비추어 현재 우리들의 기도 형태와 내용을 재평가하고,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연의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얻게 된 것이다.

## 제 2 절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

### 1.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의 본

35) 마태복음 6장 7-8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으로 여러 말로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으심을 강조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정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과 태도에 이방인적 요소가 많이 침투해 있었음을 근본적으로 지적하심으로써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음에 틀림없다.

36) Keener, *IVP 성경배경주석: 신약*, 70-71.

## 가. 자세와 장소

### (1) 자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로는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눅 22:41)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요 11:41; 17:1)하신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기도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다거나 정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형태는 외적 자세보다도 내적 진정성과 순전함이 더 강조되었다(눅 18:9-14).

### (2) 장소

예수님은 성전예배와 회당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셨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그 이후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막 1:35; 눅 4:42; 5:16)하시거나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으며(마 14:23; 막 6:46), 무리들을 피해 멀리 이동하여 호젓이 기도하고자 하셨다(눅 9:18-가이사라 빌립보, 눅 9:28 -변화산 기도).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마 6:6)는 강조점을 몸소 보여주신 예라 할 수 있다.

## 나. 빈도와 형식

### (1) 빈도

모든 사건과 순간마다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실천하셨다. 구체적 예를 보면 공생애 시작 전 40일 금식기도(마 4:1-11), 세례받고 나서 드린 기도(눅 3:21), 제자 선택하실 때 철야기도(눅 6:12-13), 오병이어 기적 이후 산기도(마 14:23; 막 6:46),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특별기도(가이사라 빌립보-눅9:18, 변화산 기도-눅 9:28), 겐세마네 동산 기도(마 26:26-42; 마 14:32-39; 눅 22:40), 십자가상 운명하실 때의 기도(막 15:33-34; 눅 23:46)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산기도와 철야기도와 금식기도 등의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루 세 번 기도를 넘어 무시로 향

상 기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된다.

## (2) 형식

시편의 내용과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기도이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4:46)라는 기도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시편 22편 기자의 상황과 연관시켜 상황화하여 기도하신 것을 보면 성경의 언어 그대로 기도드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주님께서도 따르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자들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전도를 다녀왔을 때 감사(눅 10:21-22), 나사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요 11:41),

그리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는데(마 26:27; 막 11:23), 시편 곳곳에서도 감사기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유대교 종파에서 만들었던 기도문과 같이 주기도문을 만들어 제자들이 기도(마 6:9-13)하게 하셨음도 주목해야 한다. 유대교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공동기도문을 예배 때 사용한 바 있다.<sup>37)</sup>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기도 중에서 구약의 언약백성들이 드렸던 시편기도를 계승하고 계시며,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전통적 관례에 동참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만들어주셨음을 확인하게 된다. 훗날 교회 역사를 통해 실천되어온 기도법은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 시편기도, 주기도문 기도이다.

## 2.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 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을 교정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교의 기도를 교정하신 방식과 초점은 오늘

37) Finkel, “Prayer”, 47. Finkel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민수기 6장 24-26절의 제사장 축복 구문을 예배드릴 때 공동기도문으로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용해된 기도문 사용 방식을 예수님께서 추인하고 계심을 주기도문 제시에서 확인하게 된다.

날 우리 상황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실천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sup>38)</sup> 기도문과 간구 방식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교정하신 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정된 기도문으로서의 주기도문(마 6:5-18)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교정하시면서 주신 기도문이었다. 주기도문은 당시 유대인의 기도 방식에 대하여 대안적으로 주신 내용과 형식을 보여준다.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을 연구해놓은 바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 필요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으로 연구를 제한하고자 한다. 김세운 교수는 주기도문이 부름과 세 개의 당신청원, 그리고 세 개의 우리청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히 부름 부분에 “아버지”란 표현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원어로 “아바”(abba)로 표기되는데 우리말로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과 같다.<sup>40)</sup>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테필라(18기도문)와 카디쉬 기도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따스한 아버지로서 대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신 근엄하고 두려우신 분으로 대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으로 알고 다가가야 함을 가르치셨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모세와 다윗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특성과 궤를 같이 한다.

이어서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나라 중심의 기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후반부 세 개의 우리청원에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라 하신다.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며, 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용서와 사랑의 도를 실천하고, 영적전투를 감당하고 하나님나라의 의와 임재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할 강령과 같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

#### (2) 교정된 간구기도(마 7:7-12)

38) 본인이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아름드리교회에서 새롭게 기도 방식과 내용을 가르칠 때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교정 포인트와 강조점을 유의하여 적용하였다.

39) 김세운, *주기도문 강해*, 34.

40) Ibid., 41.

한편 마태복음 7장 7-12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간구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 구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된다(눅 11:9; 요 15:7). 간구하는 기도는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 형태이다. 그러므로 자칫 타 종교의 기복적인 간구기도로 오해되어 무조건 강칭하는 그릇된 적용을 낳기 쉽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한 오용이 있어왔음을 의식하시고 산상수훈에서 이를 교정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간구기도의 첫 번째 교정점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12절의 간구기도의 두 가지 대 전제가 앞 문맥에 언급되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는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간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하나님나라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일상의 필요는 그분이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 교정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태도와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11절의 간구기도 약속은 본문 앞뒤로(마 7:1-6, 12)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와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인간관계의 황금율의 실천은 간구기도 약속의 중요한 전제이므로 우리의 간구는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요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 사함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함께 묶여 있다고 하는 말씀(마 6:12, 14-15)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예수께서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도 드리시는 기도이고(롬 8:34), 사도들의 기도에서도 중요한 기도 내용이었다(빌 1:9-11).

여기서 간구기도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간구자가 요청한 바대로 다 이루어주시는가 하는 질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8)는 말씀은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처럼 보인다. 이어지는 예에서도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의 요청에 다른 것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마 7:9-11) 하고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눅 11:9-13)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로 말하는 누가복음의 장면에서 요청자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고(마 17:14-20),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마 26:36-46)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바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셨음을 보게 된다. 기도 응답의 문제는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제자들의 가르침에서 구체화된다. 사도요한은 그의 뜻대로 구하여야 얻을 수 있음(요일 5:14-15)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하면 얻을 수 없고(약 1:6-7),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약 4:3)고 가르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을 전제로 일상의 필요에 대한 간구는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눅 11:5-13).

### (3) 기도 중심의 성전의 기능 강조

구약 전체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규정 즉 율법에 신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대하 7:7, 14).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임을 무화과나무 열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막 11:12-25).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비통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을 단순히 형식적인 제의를 행하는 장소로 변질시킨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지적하셨다(렘 7:1-11).<sup>41)</sup>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탓하시며, 오히려 성전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들려 말씀하셨다(막 11:17; 사 56:3-7).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즐겁게 교제하며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며 자신의 종이 되며 하

41) 예레미야 7장 1-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도둑질 하며 살인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과립치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서서 기도하는 행태를 심하게 꾸짖으신다. 그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통탄하고 계시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 책망하신다.



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성전에서 그들과 대화하며 만나주심으로써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게 할 것이라 단언하신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릴 때,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기도 하였다(왕하 8:41-43).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을 넘어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확장되어 갈 것을 알고 있었다.<sup>42)</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전적인 제의를 행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만남의 장소요, 그분과 대화하며 머무는 장소로서의 성전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시내산 언약 체결 후 출애굽 당시 성막 제작과 봉헌식에서 임제가 실현되는 장면 속에서 잘 드러난다(출 25-40장). 광야의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다.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며 머무르시는 처소이며(출 25:8; 27:20-21),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이며(출 25:22; 29:43),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출 29:38-46)였다. 언약의 인격적 차원에서 볼 때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는 신방과 같은 장소였다. 성전은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하는 자들이 올 곳은 아니었다.

만약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레위기의 규례대로 회개하며 용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와야 했다. 만약 언약관계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백성들의 만남의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서의 교회공동체에 거하시면서 성전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요 2:19).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기도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는 사도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천되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속죄의 제사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폐하여졌고(히 10:14, 18),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들은

---

42) “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8:41-43) 이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땅 백성을 위한 성전으로 지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히 10:19-20). 그러므로 이제 제의적 제사는 지나가고,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로 갱신되었다(히 13:15-16).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제사가 갱신됨(롬 12:1)으로써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며 대화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곳으로 자리매김해가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요 임재와 동거라는 개념으로 이어짐을 보게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언약공동체이어야 한다.

#### 나.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 본문들과 기도의 분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본문들을 검토하며 주님의 기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복음서 본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기도문과 더불어 ‘기도에 대한 가르침’(마 6:5-15; 눅 11:1-4),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권면’(눅 11:5-13; 18:1-8), ‘용서에 대한 기도’(마 6:14-15; 눅 6:27-28; 막 11:25), ‘추수꾼을 요청하라는 기도’(마 9:38; 눅 10:2),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요 14:13-14; 15:16; 16:23-24), ‘겸비하여 기도하라’(눅 18:9-14),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눅 21:34-36),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마 21:12-17;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33; 사 56:7), ‘깨어 있을 것을 위한 기도’(마 26:41; 막 14:38; 눅 22:40) 등이다.

신약에서 기도라는 단어의 사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념 언어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다. 복음서에서의 기도라는 단어 사용도 일관성이 있지 않고 10여 개의 다양한 단어군을 사용하고 있다.<sup>43)</sup> 기도에 대한 단어를 가장 다양하게 구사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전심으로 기도했으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가장 많이 남긴 사도이다. 그도 다양한 단어로 기도를 표현했다. 그는 13개의 서신서에서 총 16개의 다른 단어로 105번의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sup>44)</sup> 그런데 특별한 분

43) 유은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론 연구*(서울: 예수영성, 2019), 64-65.

44) W. B. Hunter, “Prayer” on *the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e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729-730. 기도라는 단어의 분석은 이 아티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류 기준과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인 기도에 대한 단어와 일상 언어에서 요청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했다. 이는 특별한 분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바울은 기도에 대한 전문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기도의 단어에 근거한 개념적 분류보다는 기도의 방향에 관련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수직적 방향, 수평적 방향, 내향적 방향, 통합적 방향이 그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 유용한 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네 가지 방향성에 따른 예수님의 기도 원리

(1) 수직적 방향(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분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고 교제함으로 영원한 친구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에 관련된 기도를 말한다.

(가) 경외의 도와 사랑의 도

아서 핑켈(Asher Finkel)은 토라에 드러나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방식을 ‘경외의 도’(the way of awe)와 ‘사랑의 도’(the way of love)로 나누어 설명한다.<sup>45)</sup> 인간이 궁극적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오경에 언급된 언약 관계에서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동반된다. 신명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신 6:13-14)고 엄하게 명령함과 동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고 명한다. 언약 안에서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당연히 경외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

45) Finkel, “Prayer”, 49-51.

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두려워 떨며 나아감(사 6:1-7)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연모하는 분으로 양망하며 나아가야 한다(사1:16-18; 5:1; 렘 31:3).

#### (나) 경외의 도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 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8-9)고 유혹하는 장면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신 6:13)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장면은 경외의 도를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또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마 26:36-46; 눅 22:39-46)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시면서도(눅 22:44),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눅 22:42)고 기도하신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외의 방식과 사랑의 방식이 어우러져야 하는가의 본을 보게 된다. 한편, 주님께서서는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셨다(마 11:25; 26:27; 눅 22:19; 요 11:41).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 (다) 사랑의 도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방식으로 섬기는 데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이름도 “아도나이”로 부를 정도로 그 이름을 발설하는 것조차 두려워 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일에는 균형을 잃고 말았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들의 기도가 앞에서 언급한 모세의 기도 생활과 같은 생명력 있고 인격적인 관계의 역동이 되기보다는 형식화되고 율례화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힘써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들의 행위는 외식과 위선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예수님의 혹독한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마 23:1-36). 일찍이 스바냐 선지자가 단언했던 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슥 3:17)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도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예수

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인격적 사랑의 관계라는 특성을 강조하셨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로 기도하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마 26:26-42; 마 14:32-39; 눅 22:40)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는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 의탁하시며 영혼 깊은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셨다(막 15:33-34; 눅 23:46). 예수님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도한 모습과 같은 궤를 가셨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셨다(요 16:23-24).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족장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부터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문구(창 12:8; 13:4; 16:13; 21:33; 26:25)였다. 예배의 중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지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드림으로써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성장해갔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예배에서 기도드릴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문을 낭송했다.<sup>46)</sup>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원문이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이렇게 예배 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셨고(사 45:5-7),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셨다(호 13:4; 렘 33:2-3).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 사이에 두심으로써 그 권위와 임재를 보장받게 하셨다(신 12:2,5,11; 16:2,6; 삼하 7:13).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 고대 근동과 헬라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그 신을 지배하는 것이라 주술적으로 생각하고

---

46) Finkel, “Prayer”, 47.

있었으므로, 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sup>47)</sup> 반면에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의 영광 즉 그분의 임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출 33:17-18; 34:5-7). 이렇듯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선포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는 통로였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간이 누리는 친구 관계로서 표현(출 33:11)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구약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명하시고 가르치셨다(요 14:13-14; 16:24).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친구라 칭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열매를 맺어가라고 권면하셨음(요 15:14-16)은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먼 훗날 ‘예수기도’를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sup>48)</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증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상호 누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도달하려는 관계의 목표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요 17:21) 해달라는 간구는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요 17:20)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요 17:24)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향후 이 땅에 지속될 성도들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요 17:26)고 간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제의 중심에 사도들뿐 아니라 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미래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거하고 누리는 영생을 성도들에게 주셨노라고 말씀하신다(요 17:3). 이러한 영원한 동거와 연합의 관계는 예수님 승천 후 60여 년 이후에 쓰인 요한의 고백(요일

47) 편집부, “예수의 이름”, *새 성경사전* (서울: CLC, 1996), 1463-1464.

48) 예수기도란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승들에 의해 자리매김된 성구 기도의 하나로서 본 논문 70쪽에 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1-3) 속에서 여전히 실체감 있는 교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9)</sup> 이는 주님께서 올리신 사랑의 연합을 위한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 속에서 실체화 되어 지속되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내향적 방향(성찰과 고백, 그리고 자기 존재를 세우기 위한 기도, 성품을 닦기 위한 기도)

이것은 기도자가 자신의 정체와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가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의 역동을 말한다.

(가) 금식기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금식기도를 하셨음(마 4:1-2)을 이미 언급하였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일의 의식에서 그 기도의 본질이 드러난다(레 16:29-31).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마 6:16-18)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외식을 문제시 하신다. 금식 중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다.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들이 금식기도를 실천하지 않다가(눅 5:33-35), 예수님의 예견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였다(행 9:18-19).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께 나아갔다(행 13:2-3; 14:23).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마음의 결의를 드릴 때 금식기도가 행해졌음을 본다.

(나) 자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위한 기도

---

49)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 “들은 바”와 “본 바”와 “손으로 만진바”요가 헬라어로 완료시제로 되어있다. 그래서 NASB 성경에서 이를 현재완료시제로 번역하고 있음을 본다(what we have heard, what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at we have looked at and touched with our hands). 이는 예수님 부활후 60여년이 지난 상황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지속적인 실체감 있는 교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신다(요 17:1).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영광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한 존재이고(요 17:5),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요 17:24)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고 알아주기를 원하셨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고(요 17:7, 18), 아버지의 것은 다 자신의 것이고(요 17:10),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요 17:11-12)로서 그 권능을 행하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존재임을 극적으로 드러내셨다.

#### (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막 14:38),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하셨다(눅 21:36). 이러한 예수님의 강조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 (라) 겸손하게 자비를 요청하는 기도(눅 18:9-14)

주님은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대조적인 기도를 드리는 비유를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셨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자신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겸허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율법에 철저한 의를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보다 스스로의 죄를 통회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신다. 전적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러한 기도의 본은 서신서의 사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성품 함양을 위한 기도 생활로 이어진다.

#### (3) 수평적 방향(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이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과 사탄에 관련된 방향의 기도를 말한다.



세상의 찬탈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는 세속사회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수평적 방향의 기도이다.

(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중보기도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과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마 19:13; 막10:15-16),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요 11:41-42),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기도,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눅 22:32)가 그것이다.

(나) 축귀기도

귀신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명하시고 꾸짖으셨으며(마 17:18; 막 1:23-26; 9:25-26), 제자들에게 기도만이 축귀사역을 가능하게 함을 가르치셨다(막 9:28-29).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탄에 휘둘린 적이 있어 그를 보호하시려 꾸짖고 훈계하셨던 적이 있다(마 16:22-23; 눅 22:31-32). 이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라고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마 16:22)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눅 22:32). 이렇듯 축귀사역은 형제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과 관계있으므로 수평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훗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벧전 5:8-9).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마 18:15-20)

교회 내에서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의 대처 방식을 언급하고 계시는 대목이다. 여기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말씀하신다(마 18:18). 동시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다(마 18:19). 이는 기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재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이 부분은 훗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 고충 속에서 다양한 기도 내용을 갖게 됨을 서신서에서 볼 수 있다.

(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마 6:14-15; 막 11:25; 눅 6:27-28)

예수님은 용서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에게 형제의 잘못과 죄를 용서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엄하게 명하셨다(마 6:15; 막 11:25).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는 말씀에서 용서와 관련한 도의 절정을 보게 된다. 그분이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마 6:14-15; 18:21-35; 막 11:25), 본인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용서를 행하는 본을 보이셨다. 기독교인이 드리는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의 특징을 가져야 함은 주기도문에도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마 6:9-15).

(4) 통합적 방향(앞의 세 가지 방향의 기도를 통합하여 역동과 성장을 이루게 하는 방향)

지금까지 세 가지 방향의 기도 방향에 따른 기도 방식과 내용을 정리했다. 이제 이런 모든 기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틀과 역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영혼의 성숙과 열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합적 방향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묶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성장시켜가는 역동을 만들어 내는 역동을 말한다.<sup>50)</sup>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수직적, 수평적, 내향적 방향의 기도는 이러한 통합적 방향의 기도로 묶여지지 않으면 균형과 깊이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는 사도바울의 기도 실천의 초점인 ‘항상 기도하라’는 여러

50) Don Richard Riso and Russ Hudson, *에니어그램의 지혜(The Wisdom of The Enneagram)*, 주혜명 역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2010), 124-132. 통합적 방향이란 말은 에니어그램 이론에서 차용한 것이다. 에니어그램에서의 통합적 방향이란 각 성격 유형이 완전성을 위해 나아가는 자연스런 방향을 말한다. 본인도 기도가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영적성숙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사도바울의 가르침과 사막교부들의 실천적 예에서 잘 드러난다.

가르침에 잘 드러난다.

#### (가)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강조

예수님은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셨다(마 6:9-10; 9:37-38; 28:18-19; 요 21:15-17).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나라를 전파하셨으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에도 강조하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한 복종과 헌신으로 맡겨진 사명, 즉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갈망을 지향해야 한다. 자칫 기도가 개인의 내면생활에 국한될 수 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과 사역을 위하여 헌신으로 기도가 드러질 때에야 진정한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을 넘어 하나님나라에 맞춰지는 영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 (나)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눅 18:1; 21:36). 이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유래된 오래된 영적 생활의 원리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기도의 원리는 성막시대에 성소의 불과 제단 불을 항상 켜놓도록 관리하고, 떡 상도 그렇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신 것(출 27:21; 레 6:12; 레 24:3-4, 8)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항상 제사가 가능하도록 공동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시편에서 확인하게 된다(시 16:8; 72:15; 105:4; 141:5). 구약성경의 이러한 강조점은 그대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로 이어져왔다. 유대교도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 모습에서도 이것이 드러난다(행 10:2). 기도 생활은 통합의 방향성의 기도가 구축되어야 비로소 진면목을 맛보게 된다.

#### (다) 통합적 방향의 기도 필요성

항상 기도가 통합적 방향인 이유는 그것이 수직적 수평적 내향적 방향성 모두에 적용되는 기도로 제시되기 때문이다(눅 18:1-14; 21:34-36).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

를 말씀하신다. 첫 번째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다(눅 18:2-8). 간절히 지속적으로 요청했을 때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수직적 방향의 기도를 본다. 아울러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다(눅 18:9-14).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고 계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주님의 언질 속에서 내향적 방향이 드러난다.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은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항상 기도하라”(눅 21:34-36)에서도 볼 수 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깨어 있다고 명하신다.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삶을 지켜가며 대적 마귀와 분투해가야 함을 내포하시는 말씀이다. 수평적 방향의 요소가 여기서 드러난다. 주님은 인간이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서 하나님나라의 종말과 긴박성을 놓치게 될 것을 경고하신다(눅 21:34).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나라의 의를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눅 21:34-36).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가 하나님나라의 삶의 역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은 주지해야 할 바이다. 이것은 기도가 항상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어우러져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구체화되어 갔음을 보게 된다.

### 제 3 절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적용한 사도들의 강조점

#### 1.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에 대한 사도들의 순종과 헌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드러나는 사도들의 삶과 사역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음을 본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서 기도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아 편잔을 받았으며(마 9:14-16), 기도의 능력을 쌓지 않아 귀신을 내쫓지 못해 주님께 책망을 들었으며(눅 9:41-42; 막 9:28-29),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 부탁에도 졸고 있다가 책망을 들었다(마 26:36-46)는 사실과 너무나 대조가 된다.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상반된 묘사를 통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많은 예와 가르침이 나오지만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sup>5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기도에 헌신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누가는 주목하고 있다(행 1:14; 4:23-31; 12:11-12; 13:3). 심지어 구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을 때에도 열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자 일곱 집사들을 세워 그 문제를 위임하였을 정도이다(행 6:1-6).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기도 중심으로 바꾼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유상섭 목사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듯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하여(눅 1:1-4)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철저하고 헌신적인 기도 생활을 배웠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52)</sup> 물론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유상섭 목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의 사역이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하고 기도에 힘입어 펼쳐졌던 것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추론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님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진심으로 문을 열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했을 정도로, 자기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그들의 사역에 어떻게 반영하고 실천했는지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검토하면서 그 비밀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영성훈련에 중요한 교훈과 실천 지침을 얻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 가. 예수님의 승천이후 사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책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강림과 함께 12사도 중심의 새 언약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게 되었다. 새 언약공동체는 구약

51) 유상섭, *예수님의 기도* (서울: 다함, 2018), 16.

52) Ibid., 13.

이스라엘의 지파공동체와는 달리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공동체라는 구조로 세워져야 했다. 그들의 자원은 예수님을 통해 배운 3년여의 경험과 그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하고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출발선상에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정부의 박해가 이어졌다. 치열한 영적전투를 치루며 교회를 건설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 지위를 지녔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갈망과 하나님나라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 갈망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이다(행 6:4).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전투를 싸워가며 교회를 건설해가는 상황은 오늘날 본인이 직면한 목회 상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상 같았다.

#### 나.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한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탐색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강화되거나 구체화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라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의 틀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1) 수직적 방향(하나님과의 관계: 마 26:26-46; 요 16:23-24; 요 17:1-26)

첫째, 사도들은 강력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 사도들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엡 1:3-14; 5:19-20; 고전 14:15; 살전 4:1; 골 1:3).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기도는 중요했다. 그들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에 의해 성삼위 하나님을 인지하고 찬양하며 동역할 수 있었다(엡 1:3-23).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귀고 우리를 위한 중보와 보호하심을 수행하고 계심은 그들의 중요한 영적 체험이 되었다(요일 1:1-3; 4:7-13; 엡 1:19; 3:19-20; 벧전 3:12; 롬 8:26-27,34;

히 7:24-25).

둘째, 사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품을 깊게 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엡 1:19; 3:19-20; 골 1:9).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와 불가분의 관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요일 4:7-13). 이는 주기도문의 용서의 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셋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소망이요 기대였다(롬 1:10; 고전 15:34; 골 1:9; 4:3, 12; 딤후 1:3, 8; 2:26; 요일 5:14-15; 약 5:17-18; 벧전 3:11; 4:7; 벧후 1:11). 사도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구하며 살아갔다. 이러한 부분은 훗날 순교의 영성에까지 다다른다.

넷째, 일상의 삶의 필요를 구했다(빌 4:6; 약 1:5; 5:14-16; 요일 3:22; 요삼 1:2).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 아픈 자들,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고 가야 하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간절히 구했으며 범사에 잘되기를 구했다.

(2) 내향적 방향(성찰과 고백, 그리고 자기 존재를 세우기 위한 기도: 마 4:1-11; 6:16-18, 39; 15:28; 17:20; 21:21; 막 9:24; 요 17:1-14; 눅 21:36; 눅 18:9-14)

첫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고전 16:13; 살전 3:10; 살후 1:11; 약 1:6).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다(마 6:39; 15:28; 17:20; 21:21; 막 9:24). 병을 고쳐주시면서 환자의 믿음에 근거하여 고침 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더군다나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하셨다.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다(막 11:22-24).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들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도록(살전 3:10),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도록 기도했다(살후 1:11). 히브리서 저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히 10:22; 11:6).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기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며 강조한 사도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고, 두 마음

을 품어 정함 없는 자로 살지 말라고 권면한다(약 1:6-7).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리라 확신시킨다(약 5:15).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권한다(유 1:20-21). 이렇듯 믿음은 기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둘째, 내면의 성품 변화를 위한 기도를 강조했다(고전 10:24, 33; 14:1,14; 고후 13:7; 살후 1:11; 갈 5:22-23, 26; 엡 5:5; 딤후 4:5, 7; 벧후 1:4-7). 바울은 성도가 환란 속에서 참고 인내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롬 12:12),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다(빌 1:9).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도 구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살후 1:11). 사도들 모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엡 4:13; 벧후 1:4; 히 5:13-14).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하고(갈 5:22-24),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벧후 1:5-7).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권면한다(약 1:2-6). 당시 개척 상황의 사도들이 사역의 성장과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증보하는 대상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적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말씀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살펴볼 사막의 수도승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요 목표였다.

셋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사역했다(롬 6:1-14; 7:15-25; 엡 1:16-19; 3:14-19; 골 1:9; 약 5:13; 유 1:20-21).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많은 강조점을 두어 서신을 썼으며, 기도하며 자신과 사람들을 세워갔다.

넷째,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도록 격려했다(고전 16:13; 엡 6:18; 골 5:6; 딤후 4:7-8; 딤후 2:26; 요일 1:6-10; 벧전 1:13; 4:7).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정결케 하며, 악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근신은 스스로 기도에 집중하며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태도였다. 바울은 경건훈련이 범사에 유익함을 권면하면서



자신을 연단해가도록 독려하고 있다(딤후 4:7-8). 여기서 우리는 영성훈련의 성경적 근거를 얻게 된다.

(3) 수평적 방향(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막 10:15-16; 요 11:41-42; 막 1:25-26; 9:25-26; 마 18:15-20; 마 6:14-15; 막 11:25; 눅 6:27-28)

(가) 사도들은 개인과 교회를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롬 15:30; 고전 14:12; 고후 1:7-11; 13:7; 살전 5:25; 딤후 1:3; 몬 1:22; 히 13:18-19; 약5:14-16). 바울 자신이 항상 기도했던 핵심이 중보기도였음에 주목해야 한다(롬 1:7-8; 10:1).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중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롬 15:30; 고후 1:11; 엡 6:18; 골 4:3; 살전 5:25; 살후 3:1; 몬 1:22).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말한다(롬 8:26-27, 34). 성도들에 대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목회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고 따르기 원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아닌 성도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약 5:13-16). 이렇듯 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과 영적 성장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나) 사도들은 깨어 대적 기도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엡 6:11-18; 딤후 6:12; 딤후 2:26; 벰전 5:8-9).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에게 대적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고(엡 6:10-18),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벰전 5:8-9)고 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듯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마 24:24; 벰후 2:1; 요일 4:3; 요이 1:7). 구체적으로 성도들 집에 가만히 들어가 믿음을 흔들어놓는 자들이 있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딤후 3:6; 유 1:4). 이러한 상황은 예수께서 이미 경고하시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바였기에(눅 21:34-36) 사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양 때를 충실하게 지켜내고자 깨어 대적기도하기를 명령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대적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

다고 가르친다(벧전 5:9). 이 마귀와의 싸움은 사막의 수도승들이 사막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주제가 된다.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기도를 명하고 있다(고후 2:7-11; 엡 4:32; 골 3:1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은 용서의 도를 이루어 갈 것을 누차 강조하셨다(막 11:25; 마 6:12, 14-15).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도를 일구어 가는 것이 이웃 사랑의 바탕이요 근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 맺는 이웃과의 관계의 질과 함께 가는 것이다.

(4) 통합적 방향(모든 기도를 통합하는 역동의 중심 잡기: 눅 18:1-14; 21:36-46; 마 5:5; 6:9-10; 9:37-38; 28:18-19; 요 21:15-17)

(가)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얻는 삶을 위한 기도(엡 1:3-19; 벧전 1:3-4; 골 1:12; 고전 6:9-10; 엡 5:5; 갈 5:21; 히 11:8-9; 12:28-29)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의 사명이 되었다. 교회를 세워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들의 유업이요 사명이었다.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었다(마 5:5). 그렇다면 성도 개인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유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유업과 그리스도의 유업의 연속성을 가르쳤다(갈 3:29). 사도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가르쳤다. 각자에게 하나님나라의 의를 위해 해야 할 몫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업 잇기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근신하며 종말을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찾아 일구는 삶이 영성훈련의 중요한 외적 목표이어야 한다(고전 6:9-10; 엡 5:5; 갈 5:21). 자칫 영성훈련이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내적 차원에 머문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가 아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나라 안에서 외적인 열매를 거두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나) 항상 깨어 기도하기(롬 1:9; 12:12; 엡 6:18; 빌 1:4; 골 4:2, 12; 살전 1:2; 2:12-13; 3:10; 살후 1:11; 딤펴전 5:5; 딤펴후 1:3; 롬 8:26-27, 34; 히 7:24-25)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적 기도의 핵심 개념

이다. 구약에서 시작된 항상 기도하는 영성 생활을 예수님이 명하심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틀이 되었다. 사도들은 항상 기도의 틀 안에서 기도 생활을 쌓아갔다. 수직적 방향의 항상 기도(살후 1:11; 골 1:9; 딤후 1:3; 2:16; 계 5:8; 8:3-4), 수평적 방향의 항상 기도(골 4:12; 살전 3:10; 딤후 1:3; 히 7:24-25), 내향적 방향의 항상 기도(살전 3:10; 살후 1:11; 엡 6:10), 유업에 관련된 항상 기도(엡 1:16-19)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서 예수께서 구약의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네 방향 모두에 적용하여 실천하셨듯이 사도들도 네 방향 기도의 통합으로서 항상 기도의 틀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네 방향 기도의 중심 구동축이며 모든 기도를 감싸며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의 틀이다.

둘째, 바울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다. 바울은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것을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역자였다. 그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롬 1:9-10),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였고(엡 1:16), 골로새 성도를 위해 그치지 않고 구하였고(골1:3,9),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살전 1:2; 살후 1:11), 자신의 제자 디모데와 빌레몬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딤후 1:3; 몬 1:4). 그가 섬기는 대상과 공동체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았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누차 드러내 보이는 것은 성도들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도하라고 권하고 명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해 항상 힘쓰라 권면하고 있고(롬 12:12),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해 힘쓸 것을 구하고(엡 6:18),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한다(골 4:2).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살전 5:17). 심지어 참 과부들에게는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라(딤후 5:5)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실천하며 꺾대를 향하여 달려갔음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

의 기도 생활의 틀을 항상 기도하기에 놓고 나머지 기도의 가르침들을 통합해내었던 것이다.

셋째, 삼위 하나님의 항상 중보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 승천 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나라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섭리하며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골 1:16-20; 3:1-3). 무엇보다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지금도 쉬지 않고 수행하고 계시며(히 7:24-25),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중이시다(롬 8:34). 주님이 이 땅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을 뿐 아니라(히 5:7) 지금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롬 8:26).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롬 8:27).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받아주시며(롬 8:31-36), 예수님의 초대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가(요 17:23-26)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히 4:16).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삶은 역동적 실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 풍성함에 접속되는 통로이다.

## 2. 신약성경을 통해 제시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와 내용

가. 수직적 방향(하나님과의 관계: 마 26:26-46; 요 16:23-24; 요 17:1-26)

- (1)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엡 1:3-14; 5:19-20; 고전 15:15; 살전 4:1; 골 1:3)
- (2)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기도(요일 1:1-3; 4:7-13; 엡 1:19; 3:19-20; 뱀전 3:12; 롬 8:26-27, 34; 히 7:24-25))
- (3) 하나님나라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롬 1:10; 고전 15:34; 골 1:9; 4:3, 12; 딤후 1:3, 8; 2:26; 요일 5:14-15; 약 5:17-18; 뱀전 3:11; 4:7; 뱀후 1:11)
- (4)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빌 4:6; 약 1:5; 5:14-16; 요일 3:22; 요삼 1:2)

나. 내향적 방향(성찰과 고백, 그리고 자기 존재를 세우기 위한 기도: 마 4:1-11; 6:16-18, 39; 15:28; 17:20; 21:21; 막 9:24; 요 17:1-14; 눅 21:36; 눅 18:9-14).

(1) 믿음을 위한 기도(고전 16:13; 살전 3:10; 살후 1:11; 약 1:6)

(2)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기도(고전 10:24, 33; 14:1, 14; 고후 13:9; 살후 1:11; 갈 5:22-23, 26; 엡 5:5; 빌 1:9-11; 골 4:12; 딤펴전 4:5, 7; 약 4:2-3; 벧후 1:4-7)

(3)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세워가는 기도(롬 6:1-14; 7:15-25; 엡 1:16-19; 3:14-19; 골 1:9; 약 5:13; 유 1:20-21)

(4) 깨어 근신하는 기도: 자신의 죄고백과 회개(고전 16:13; 엡 6:18; 살전 5:6; 요일 1:6-10; 벧전 1:13; 4:7)

다. 수평적 방향(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막 10:15-16; 요 11:41-42; 막 1:25-26; 9:25-26; 마 18:15-20; 마 6:14-15; 막 11:25; 눅 6:27-28)

(1)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보기도(롬 15:30; 고전 14:12; 고후 1:7-11; 13:7; 살전 5:25; 딤펴후 1:3; 몬 1:22; 히 13:18-19; 약 5:14-16)

(2) 대적기도(엡 6:11-18; 딤펴전 6:12; 딤펴후 2:26; 벧전 5:8-9)

(3)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고후 2:7-11; 엡 4:32; 골 3:13)

라. 통합적 방향(모든 기도를 포괄하는 역동의 중심 잡기): 눅 18:1-14; 21:36-46; 마 6:9-10; 9:37-38; 28:18-19; 요 21:15-17.

(1)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얻는 삶을 위한 기도(엡 1:3-19; 벧전 1:3-4; 골 1:12; 고전 6:9-10; 엡 5:5; 갈 5:21; 히 11:8-9; 12:28-29)

(2) 항상 깨어 기도(롬 1:9; 12:12; 엡 6:18; 빌 1:4 골 4:2, 12; 살전 1:2; 2:12-13; 3:10; 살후 1:11; 딤펴전 5:5; 딤펴후 1:3; 롬 8:26-27, 34; 히 7:24-25)

이 장을 시작할 때 복음서에서 기도에 애정을 보이지 않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오로지 기도 중심의 사역과 삶을 펼쳐갔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답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런

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그러한 추정을 지지해주고 있다. 사도들의 기도 생활은 철저히 주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충실하게 따르고 헌신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 생활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기도 원리를 따를 때 동일한 능력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 3. 신약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기도 방법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바로 기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정리한 방법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 방법들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 가. 기도 방식에 초점이 있는 기도법

##### (1) 시편기도

시편기도는 시편을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도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기도법이다.

##### (2)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에서 시편과 함께 찬양이 드러졌음을 확인하게 된다(행 16:25; 고전 14:26; 엡 5:19; 골 3:16). 초대교회 때부터 찬양이 드러졌을 뿐 아니라 켈틱 수도운동에서 활발하게 드러졌다.

##### (3) 주기도문 기도

이 기도법은 신약성경에는 복음서에만 나오나 초대교회에서는 하루 세 번 기도로 가르쳤다.<sup>53)</sup>

##### (4) 금식기도

구약부터 전수되어와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기도이다. 내향성 기도에 초점이

53) 김재수, *디다케 주님의 가르침* (대전: 엘도론, 2009), 147.

있다.

#### (5) 합심기도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기도인데,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이다(행 1:14; 2:42; 12:5,12; 20:36). 합심기도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통성기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 감리교 선교사 존스(G. H. Johnes)는 통성기도를 “함께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sup>54)</sup>라 표현했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함께 나타났다. 1906년에 존스톤(H. A. Johnston) 박사가 한국 방문시 “한국에 웨일즈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웨일즈 부흥운동에서는 인도자만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을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로 도입한데서 유래되었다.”<sup>55)</sup> 통성기도는 하나님께서 한국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의 DNA라 할 수 있다.

#### (6)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소리 내어 드리는 기도이다(마 27:46; 눅 18:7; 행 7:5; 롬 8:15).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도이다.

#### (7)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

이는 성경구절이나 기도 말씀을 그대로 혹은 자기 상황화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눅 1:46-55). 실제로 이 기도는 청교도들에게서 각광받았던 기도 방법이었다.<sup>56)</sup> 기도의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과 심원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한 기도법이라 생각된다.

54) 이덕주, “초기 부흥운동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영성,” *한국기독교가 나아갈 길-한국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 한국 새벽기도운동본부, 2003), 이성용, “해방후 한국기도원 운동에 대한 상황화신학 관점에서의 연구”(Ph. D.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5), 40. 에서 재인용.

55)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37). 이성용, “해방후 한국기도원 운동,” 64. 에서 재인용.

56) Matthew Henry, *매튜 헨리 기도(A Way to Pray)*, 김동완 역(서울: 복있는 사람, 2018). 이 책은 매튜 헨리(1662-1716)가 주제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방법론이라는 책을 축약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의 언어와 표현을 자기상황화 하여 기도문을 만들어 모아놓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의 참맛과 구체적 예를 익힐 수가 있다.

### (8)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등장하여 이후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언급된다(행 2:6; 10:46; 19:6). 방언기도는 사도바울이 그 원리를 잘 정리해주었다(고전14장). 방언기도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으니(고전 14:4) 내향성 기도가 분명하다. 오용될 소지가 많아 통변을 구하라 하고 있다(고전 14:13-14).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전 14:27-28).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되었듯이 지금도 무질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언기도는 통변과 예언 뿐 아니라 말씀 묵상과 함께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전 14:6).

### (6) 예언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기도로서 권면과 위로를 위한 기도의 은사이다(고전 14:3).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는 다른 역동이다. 현재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시고 분별해주시며 위로하는 역동이다. 여기에는 방언과 통변이 함께 간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전 14장 방언을 언급하면서 통변과 예언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고전 14:1-6). 신령한 기도를 사모할 때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과 통변이 예언으로 통합될 때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언과 예언과 통변은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므로 본인의 영성훈련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나. 기도 내용에 초점이 있는 기도법

### (1) 중보기도

이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도들의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겨진 기도이다. 이는 수평적 방향의 기도이다. 그러나 중보기도가 다른 방향 기도들과 통합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힘들고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통합 방향의 기도가 중요하다.

### (2) 대적기도

대적기도는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구체적인 경고와 함께 가르쳤다. 복음서와 사도



행전에는 예가 나오나 서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영적 싸움의 목시가 나오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 부분은 사막의 수도승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분투하는 장면에서 적용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는 수평적 방향의 기도이다.

### (3) 용서를 구하는 기도

서신서에 용서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나온다. 용서는 이웃 사랑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얽혀 있다. 용서는 수직 수평 내향 세 방향 모두를 아우르는 역동을 지닌다.

### (4) 감사의 기도

공식적인 절기와 모임 때 감사기도를 드렸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셨다. 수직적 방향의 기도이다.

### (5) 하나님나라를 구하는 기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나라에 있었다(행 1:3; 8:12; 14:22; 19:8; 20:25; 28:23, 31).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행 8:15),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드리거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나라를 위한 기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신서에 오면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며(살전3:29-4:6) 그 유업을 일구고 살아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여정에서 자기 내면을 넘어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성품의 열매뿐 아니라 외면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일구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통합 방향의 기도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작품을 성경적 기준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저없이 비판했다.<sup>57)</sup> 본인도 이러한 루터의 기준을 따라 앞에서 연구

57) Christopher A. Hall,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Reading Scripture With the Church*

한 기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사막수도승들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사막의 수도승들의 역사적 실례는 기독교 기도와 영성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나온 수도원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가 겪은 급격한 세속화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사막의 모진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사막의 수도승들이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중세의 수도원 조직과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금욕적 수도운동을 주도한 사람들로서 기독 영성의 원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장은 이들이 평생을 모래바람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기도 방법과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기도법과 실천원리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 제 3 장

###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비추어본 사막 교부들의 영성

#### 제 1 절 사막의 교부들의 삶과 영성에 대한 개관적 이해

##### 1. 사막의 수도승들의 유래

수도사들의 종교생활 방식은 세계 여러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현상이다. 힌두교, 불교 그리고 고대 지중해의 여러 종교들에는 여성 동정사제들이 있었다. 남미 페루의 잉카제국에도 무녀 공동체가 있었고, 북미 인디언 부족 가운데에도 무녀 공동체 혹은 동정남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8)</sup> 세상에서의 분리, 금욕적 수행, 신비적 갈망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 이러한 수도생활은 초기 기독교에도 나타나 발전하였다.<sup>59)</sup>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내에도 이미 이러한 수도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세푸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유대교에는 에세네파 소속의 테라페우테와 같은 수도공동체가 있었음을 증언한다.<sup>60)</sup>

그러나 기독교의 수도운동의 기원은 이교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약과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님의 광야 40일 금식기도와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수도운동의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오리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너의 정욕으로부터의 분리와 유혹과 씨름을 통한 성장 등의 특징을 지닌 기독교 영성의 전형으로 해석했다.<sup>61)</sup> 이스라엘 역

58) Luc Bresard, *수도승의 기원(Monastic Spirituality)*, 허성식 편역(서울: 분도출판사, 2015), 19-20.

59) Ibid., 21.

60) Ibid., 25-26.

61) Rowen William, “사막, 사막의 교부들”, Gordon S. Wakefield 편, *기독교 영성사전(A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옥 역(서울: 은성, 2002), 230.

사에 나타난 호세아,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과 메시지 그리고 순수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갈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수도운동의 배경과 동인이 되었다.<sup>62)</sup>

이러한 배경 위에서 2세기경부터 사회, 종교,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집트 사막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모두 영적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납세와 병역 기피자들이 사막으로 도피해와 있었으며, 로마의 농민 억압 정책으로 인해 사막으로 피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광야를 떠돌다가 강도떼가 되어 수도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도 있었다.<sup>63)</sup> 한편 교회에서의 신앙 갈등으로 사막으로 도피해오거나,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막으로 들어와 기도 생활하는 영적 열망을 가진 무리가 있었다. 3세기에 이집트 사막에서 중요한 영적지도자들이 나타나면서 사막의 수도생활이 규모 있게 성장하며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했다. 이들을 가리켜 사막의 수도승이라 한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시대 이후 AD 2세기-5세기에 이집트와 팔레스틴 등지의 사막에서 수덕생활을 했던 수도사들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sup>64)</sup> 이 사막의 수도승들 중 주목해야 하는 지도자는 안토니우스이다. 안토니우스(AD251-356)의 수도적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발간한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에서 볼 수 있다.<sup>65)</sup>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집트에서 사막의 수도운동이 어떻게 태동되고 성장했으며, 그 내적 역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가. 안토니우스의 사막의 수도생활에 헌신

안토니우스는 서기 251년 이집트 중부 코마나에서 출생하여, 270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 주일예배 설교 말씀(마 19:21)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62)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The Life of Anthony)*, 안미란 역(서울: 은성출판사, 1995),

69. 이집트 수도원운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는 실제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본을 따라 살려고 즐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다.

63) Norman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The Lives of the Desert Fathers: Historia Monachorum in Aegypto)*, 이후정 외 역(서울: 은성출판사, 1994), 37-39.

64)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서울: 은성출판사, 2004), 72.

65)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35-40.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21-22)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안토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꽤 많은 농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의 수도생활에 들어갔다.<sup>66)</sup> 그로부터 십여 년 넘게 마귀와 싸워가며 기도 수련을 하다가 35세가 되자, 그는 당시 수도하는 사람들과 달리 처음으로 사막 깊숙이 들어가 독거하며 수도생활을 익혀갔다.<sup>67)</sup> 20여 년간 홀로 기도 수련을 마치고 나서 도시로 나아가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이적과 감화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어느 수도사도 사막을 알지 못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그 비밀을 깨달은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과 감화력이 있었다.<sup>68)</sup> 안토니는 가까운 도시 외곽에서 수도하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 깊숙이 들어가 수도생활의 처소를 황량하고 고립된 지역의 암자로 옮겨가도록 격려했다. 안토니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의 이끌림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사막수도운동의 원형을 만들어간다. 치유와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영성생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집을 떠나 사막으로 나아가 수도생활에 들어갔다. 당시 기록에 나오는 “사막이 도시를 이루었다”<sup>69)</sup>라는 말이 충격적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들의 숫자와 주변 사막에 거하며 수도하는 수도사들의 숫자가 비등했다. 안토니우스에게 감화받은 많은 성도들이 회심 후 재산을 팔아 구제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사막에 들어갔다.<sup>70)</sup> 안토니우스의 영향으로 여기저기 수도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수도운동이 로마 전역을 향해 발현하게 되었다.

#### 나. 사막의 교부들의 영향력<sup>71)</sup>

66)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60. 비옥하고 아름다운 경작지가 300아루래나 되었다 한다. 우리의 면적 단위로 하면 25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이었으니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 농지를 판 돈 중에서 자기 여동생을 위한 재산을 따로 떼어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설교에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마 6:34)라는 말씀을 듣고 누이를 위해 남겨둔 재산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누이도 수도생활에 들어가게 했다 하니 비범한 인물이다.

67) Ibid., 29.

68) Ibid., 75.

69) Ibid., 76.

70)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34

71) 사막의 수도승들에는 여러 계층과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교회가 스승으로

처음에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사막에 숨어들어 기도에 전념하는 일반 성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수도운동의 중심이었던 이집트 사막의 경우 주로 농민들이었다 한다. 처음에 이들은 나일강변의 마을 인근 사막에서 수도생활을 하였는데, 안토니우스가 사막 깊숙이 들어가 적게 먹고 적게 자며 수도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안토니 이전에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납세 회피와 군복무 회피를 위해 도망한 사람들, 교회에서의 신앙 갈등을 피하여 온 사람들, 생활고에 찌들어 도피해온 사람들, 유대주의의 금욕적 목시사상 전통과 헬라철학의 금욕적 전통에 영향을 받아 수도하러 온 사람들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안토니를 비롯한 출중한 사막 교부들의 출현으로 점점 질 높은 수도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사막의 수도운동은 크게 발전하게 된다.

#### 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중심의 제국 운영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313년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 공인을 넘어 기독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핍박 시대에 등장한 이단을 처리하고 정통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종교회의를 개최하였고, 기독교인들의 몰수된 재산을 환원하였으며, 모든 교회재산에 면세권을 부여하였고, 기독교의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sup>72)</sup> 웅장한 교회를 직접 지어주기도 하고, 성직자에게 군대 징집을 면제해주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73)</sup> 성직자는 세금이 면제 되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재판권이 부여되었다.<sup>74)</sup> 게다가 321년에는 법령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공포함으로써 교회는 자선사업을 널리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풍부하였다.<sup>75)</sup> 교회는 이제 제국의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강조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에서 영광스럽게 군림하는 이미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의 모습을 바꾸어 갔다. 교회의 의식과 예배가 화려해지고 누구나 쉽게 희생 없이 성도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교회

인정하고 받아들여온 지도자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 한다.

72)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충신대학교 출판부, 1994), 112.

73) 서요한, *초대교회사* (서울: 그리스심, 2004), 397,399.

74) Ernst Dassmann, *교회사 II/1(Kirchengeschichte II/1)*, 하성수 역(왜관: 분도출판사, 2013), 78,81

75) Ibid., 78.

는 급격히 세속화되어갔다.<sup>76)</sup>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핍박받던 과거와 달리 로마 제국에서 출세와 성공에 유익한 배경이 되었다. 그간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의 영성은 자취를 감추어 갔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치로 확고한 자리를 얻고 있었다. 그리스도 자신이 순교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수많은 감독들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기독교의 순수한 영성을 지켜왔다. 이렇게 세속화되는 교회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영적 갈망에 갈급해 있던 성도들이 대거 사막의 금욕적 수도운동에 투신하게 한 동인이 바로 이 순교의 영성이었다.<sup>77)</sup> 4세기에 이르러 수도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갔는데 이집트 사막 외에 시리아, 아라비아, 갑바도기아, 팔레스타인 등지에도 수도사들이 모여들어 사막을 도시화하는 장관을 연출했다.<sup>78)</sup> 테베시에서는 각종 신전들에 수도사들이 가득했고, 성 안에 주민 5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성 밖에 5천 명의 수도사들이 살았다는 기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sup>79)</sup> 역사상 대단한 영적 갈망이 분출한 것이었다. 향후 이어갈 기독교 영성의 원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였다.

라. 아타나시우스가 360년경에 발간한 *안토니의 생애*의 영향력

*안토니의 생애*란 책은 영적 여정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수도승들에게 금욕생활과 수도생활에 대한 중요한 지침과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수도사들의 요청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은 자신의 세 번째 망명 기간(355-362) 중이었다. 삼위일체 논쟁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서 아타나시우스는 치열한 신학 논쟁과 이단 싸움을 진행하며 20년 동안 여러 차례 망명과 도피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의 제자였다. 실제로 안토니가 죽을 때 자신의 망토를 아타나시우스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제자임이 드러난다.<sup>80)</sup> 아

76) 서요한, *초대교회사*, 400.

77)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59-60.

78) Ibid., 79.

79)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151.

80)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153. 사막의 교부들이 죽을 때 자신의 옷가지를 자신의 제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로 보건데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제자이고 이를 기록하는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이 안토니의 제자임을 표현하며, 자신이 제자로서 안토니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타나시우스가 평생 씨름했던 아리우스파와의 삼위일체 논쟁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 안토니우스의 지지와 설교가 큰 도움이 되었다.<sup>81)</sup> 안토니우스는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으로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그 명성이 에스파냐와 로마 아프리카 등지에 퍼져 있었다.<sup>82)</sup>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이단 논쟁으로 황량한 교회 상황 속에서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을 통해 생명수와 같은 수도생활 영성의 모델을 제시해주고자 했다. 동시에 그가 *안토니의 생애*가 이교들에게도 유익하게 읽히길 원했던 것으로 보아 복음 전도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83)</sup> 후대에 그레고리우스는 안토니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된 수도 규칙으로 평가했다.<sup>84)</sup> 실제로 *안토니의 생애*는 기독교 수도생활의 기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발간한 지 수십 년이 못 되어 *안토니의 생애*는 이집트 외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을 넘어 멀리 고을 지방과 라틴계 기독교도들에게도 갈채를 받았다. 400년경에 이미 안토니우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sup>85)</sup> 이 책은 온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온전한 영성을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하였다.

## 2.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던 수도운동

이집트 사막 중심으로 시작된 수도운동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모든 종교운동이 그러하듯이 급격히 가열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된다. 순수한 신앙 열정을 가지고 사막수도운동에 입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게으름과 불만, 좌절, 염세적 태도, 신앙적인 야심 등의 그릇된 동기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sup>86)</sup> 결국 극단적 금욕주의, 이단적 성향, 예기치 못했던 병과 죽음 등등의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기존 지역교회와의 관계 등에 긴장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난 운동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오류가 바로잡히고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81)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68-70,150,152.

82) Ernst Dassmann, *교회사 II/2(Kirchengeschichte II/2)*, 하성수 역(왜관: 분도출판사, 2016), 295.

83)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25.

84) Bresard, *수도승의 기원*, 60.

85)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22.

86) Phillip Shaff, *니케아 이후의 기독교(History of the Chritian History 3)*,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156.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역적인 수도운동 전개를 살펴보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 가. 안토니우스 중심의 이집트 북부 수도운동의 시작<sup>87)</sup>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까운 니트리아에서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객이 많아지자 18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가 켈리아에 자리를 잡는다.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진흙과 갈대로 암자들을 만들어 거하고 니트리아처럼 바위가 있는 동굴을 암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켈리아에서 비로소 수도사들은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독립생활이 보장되어 있었다. 여기에 지름 6킬로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사막도시를 형성하였다. 얼마 후 좀 더 엄격한 독거를 갈망하는 수도사들을 위해 더 남쪽으로 40킬로미터 내려가 스케티스 사막에 새로운 수도처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북부 이집트 사막에서 홀로 독거하며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도 형태를 독수도회라 한다.

#### 나. 파코미우스 중심의 이집트 남부 수도원 운동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파코미우스(292-346)는 처음에는 독수도에 참여했으나 수도사들의 건강상 문제와 기도 생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스승 팔라몬과 7년간 동거하며 가르침을 받던 중 테벤니시라는 황폐한 마을을 지나다 ‘기도하라’는 영감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곳에 기도원을 지으라는 음성을 들었다.<sup>88)</sup> 이에 팔라몬과 작별하고 안토니우스의 독수도회와는 다른 형태의 공주(共住) 수도공동체를 설립한다.<sup>89)</sup> 그는 수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경제적 자립 구조를 가진 공주 수도운동을 이집트 남부에서 시작하게 된다. 파코미우스의 공주수도회는 여러 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집은 8-10킬로미터 정도 높이의 담장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단 하나의 출입문만 있었다.<sup>90)</sup> 각 집에 20-40명이 모여 살며 빵을 굽는다든가 광주리를 만든

87)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0-41. 이 항목의 내용은 이 책의 40-41쪽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주수도공동체라 함은 공동주거하며 수도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하며 회수도회라고도 한다.

88) Lefort 편역, *파코미우스의 생애(the Life of St. Pachomius)*, 엄성옥 역(서울: 은성, 2010), 39. “파코미우스야 파코미우스야, 이곳에 거주하면서 수도원을 지어라. 장차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수도생활을 하려고 찾아와서 영혼에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한다.

89) Bresard, *수도승의 기원*, 72.

90) Ibid., 41.

다든가 하면서 생필품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로 수도생활을 실천하였다.<sup>91)</sup> 그가 죽기 전 무려 11개의 수도회에 7000여 명이 함께 생활하였으니 큰 호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92)</sup> 경제 자립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어 수도생활의 질서와 규모를 잡아갔다. 이때 만들어진 파코미우스 수칙은 성 바실과 존 카시안 등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수도회 운동의 결정적인 모델이 되었다.<sup>93)</sup>

#### 다. 제롬과 루피누스 등에 의해 형성 발전된 팔레스틴 지역의 수도운동

라틴 별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제롬(히에로니무스, 345-419)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며 본격적인 수도운동이 출범하였다. 제롬은 로마의 귀부인 파울라를 중심으로 한 여수도회와 자신과 남자 동료들을 위한 남수도회 두 개를 설립한다. 루피누스도 예루살렘에 두 개의 수도공동체를 세운다.<sup>94)</sup> 팔레스틴 수도운동이 남긴 유산은 라우라 제도에 있다. 라우라는 하리톤이라는 수도승이 예루살렘 북쪽 바란 지역에 있는 좁은 골짜기에 세운 수도원이었다.<sup>95)</sup> 이곳에서 독수도회와 공주수도회를 혼합하여 운영했는데 이를 라우라 제도라 한다. 먼저 수도회에 들어가면 7-8년간 공주 수도원에서 견습 기간을 거치며 훈련받게 하고, 그다음 홀로 독거하며 수도생활을 하도록 했다. 토요일 밤에 지난 1주일 동안의 삶과 기도 경험을 나누고 점검받고, 공동식사와 밤 기도를 드렸다.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고 각자 일주일치 양식을 받아 자기 암자로 되돌아가, 다음 토요일까지 완전한 고독 속에 머무는 식이었다.<sup>96)</sup> 라우라 제도는 독수도회와 공주수도회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살리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었다.

#### 라. 극단적인 금욕수행을 했던 시리아 수도운동

91)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2.

92)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84.

93) Ibid., 84-85. 파코미우스 규칙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성생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었으며 후대에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칙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94)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3.

95) Karl Suso Frank, *기독교수도원의 역사(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chtums)*, 최형걸 역(서울: 은성, 2018), 57.

96)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4.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로 수도생활에 임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극단적인 금욕수행 방식이 알려져 있다.

#### (1) 히파이트래

사람들이 다니는 도상이나 야외에서 돌로 구획을 정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어 일정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금욕수행을 하였다. 날씨가 비가 오거나 화창하든지 상관없이 목초지 위의 가축처럼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채로 금욕적 수도생활을 했다.<sup>97)</sup>

#### (2) 텐드리태

나무줄기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서 살았다. 어떤 이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새장 안에서 살았다. 너무 좁아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바위에 묶고 금욕수행을 하였다.

#### (3) 스티리타스

높은 기둥 위에 석판을 만들어놓고 올라가 금욕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 시메온(390-459)이 대표적인 사람이다.<sup>98)</sup> 그는 처음 움막에서 3년 생활한 후 히파이트래가 되었다. 그 이후 길이 10킬로미터 쇠사슬로 자기 발을 묶고 다른 쪽 끝을 큰 바위에 묶어 고정시킨 채 석판 위에 서 있었다. 절대로 앉거나 누우려 하지 않았다. 이런 수도생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오자 그들로부터 멀어지려고 기둥 위에 석판을 올려놓고 지냈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운동이 세상으로부터 수평적 거리 뒀다면 시리아에서는 수직적인 거리뒀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3미터, 나중에는 6, 11, 18미터로 높여갔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서 자그마치 37년간이나 살았다. 하루 한 번 식사에, 밤에는 앉아서 잠을 자고 낮에는 군중에게 설교하며 사도직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자주 병에 걸렸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 치료받기를 거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일찍 죽는 수도승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시리아 사막 교부들이 한 극단적인 수행은 구약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이한

97)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5.

98) Ibid., 45-47.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행적의 마임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예언하였고(사 23:3), 예레미야 선지자는 멩에를 메고 다니며 예언 활동을 했던 바 있다(렘 27:2, 12). 그러나 시리아 교부들의 금욕수행은 그보다 훨씬 극단적이었다. 그래서 동시대의 이집트 사막의 교부 아폴로에 의해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sup>99)</sup> 이러한 극단적 형태는 후대에 전수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 수도운동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 위대한 교부 바실리우스에 의해 이루어진 갑바도기아 수도운동<sup>100)</sup>

바실리우스(330-379)는 카이사라(Caesarea),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그리고 아테네(Athenae)의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후대에 갑바도기아 교부들로 알려진 나지안주스(Nazianzus)의 그레고리우스와 깊은 우정을 맺으며 동역했다. 357년경에 그는 동방의 주요 수도원들을 방문하였으며, 35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안토니우스처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갑바도기아에 위치한 네오카이사레아(Neocaesarea)의 이리스(Iris) 강변 안네시에서 은수자로 정착하였다. 여기서 그가 만든 바실리우스 공동체는 파코미우스 공동체보다 규모가 작았다. 공주수도승을 참된 수도승이라 여겨, 독수도승을 호칭하는 모나키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파코미우스 공동체의 모형을 따라 수도 규칙에 해당하는 *윤리규정집*<sup>101)</sup>을 만들어 수도회의 규율과 질서를 잡았고, 사막으로 물러나지 않고 도시 외곽에 수도원을 세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의료 사역을 함께하면서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 구현하였다. 이러한 바실리우스의 모델과 수도규칙은 동방 수도원들의 본과 모델이 되어 퍼져나갔다.<sup>102)</sup> 이로 보건대 이집트 사막수도승들의 극단적 금욕주의 행태가 바실에 의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지역교회 사역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갑바도기아 세 교부<sup>103)</sup>들의 신학이 삼위일체 논쟁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99) Frank, *기독교수도원의 역사*, 61.

100)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8-49. 이 단락은 이책의 내용을 요약정리 한 것이다.

101) Ibid., 185-187. 총 80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약성경 인용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규정집이었다.

102) Frank, *기독교수도원의 역사*, 63.

103) 바실리우스,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닛사의 그레고리 세 사람을 말한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바. 도시 내에 있는 수도원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수도운동

사막 수도운동의 영향은 점차 도시 내에까지 영향을 미쳐갔다.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요한 크리스트무스는 수도승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선 활동을 하거나 사목 직무를 맡아 감독직을 돕는 역할을 주어 수도영성이 일반 지역목회에 반영되도록 했다.<sup>104)</sup> 한편 로마는 부유한 과부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 기도와 금욕을 실천하면서 자선을 행하는 수도생활 형태를 보였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수도사들을 호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고, 수도승들을 미개인으로 여겼던 상황이기에 이러한 수도운동의 영향이 로마에 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사막의 수도생활을 경험했던 제롬과 같은 지도자들의 방문과 가르침은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 금욕에 대한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죽는다거나 성관계를 금하는 주장을 펴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나<sup>105)</sup>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도시 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 가능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 사. 존 카시안의 영향 아래 성장한 갈리아의 수도운동

4세기 말 갈리아에 이미 *안토니의 생애*를 읽고 감동받아 기도 생활을 깊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 수도원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제도나 규칙이 없었기에 외적 시련에 쉽게 타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집트 사막에서 존 카시안(360-435)이 갈리아에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이집트 사막과 팔레스틴에 머물며 사막 교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던 바를 그들에게 전수하였다. 존 카시안은 *제도서*와 *담화집*이란 책을 저술하여 갈리아 지방의 수도운동을 세워가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sup>106)</sup> 이 두 책은 서방 수도원 운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갈리아 지방의 수도운동은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원과 켈트족 수도원 운동에 불을 지피면서 유럽 전역의 수도운동의 주요 흐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104)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9.

105) Ibid., 49-52.

106) Ibid., 52-53.

존 카시안의 영향을 받아 베네딕트 규칙과 콜롬반 규칙이 작성되었다.<sup>107)</sup> 특별히 켈트족의 수도운동은 흥미롭다. 이들은 당시 북유럽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지에 퍼져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다.<sup>108)</sup> 이들은 수도원 마을공동체 형태의 토착적인 수도운동을 형성했다.<sup>109)</sup> 로마 박해 때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에서 금욕수도 생활의 녹색 순교로, 그리고 유랑 수도운동이라는 백색 순교 전통으로 이어져 로마 제국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과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의 복음 전도와 수도원운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sup>110)</sup>

이들은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수많은 필사를 남겼다. 심지어 아일랜드 수도원의 학문적 열정으로 그리스 로마의 많은 저작들이 보존되어 고대문명을 보존하는 데 공헌했을 정도였다.<sup>111)</sup> 성경 중심의 영성과 함께 시편이 켈트인들의 기도의 중심이었으며, 이에서 비롯된 노래와 찬양을 기독교 유산으로 남겼다.<sup>112)</sup> 이들은 침묵과 금식과 고행으로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상급자에게 고백하는 영적 지도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로마 가톨릭에 전해져 고해성사로 정착되었다.<sup>113)</sup> 이렇듯 존 카시안에 의해 갈리아의 수도운동이 체계화되면서 전 유럽의 수도운동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다.

아. 히포의 어거스틴에 의해 실천된 학문적 영성운동으로서의 북아프리카 운동

히포의 어거스틴이 4세기 후반 지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며 수도하는 소규모 정원수도운동을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계명집*이라는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파코미우스와 바실리우스와 존 카시안의 뒤를 이었다.<sup>114)</sup>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된 어거스틴은 교회 내 정원 구석에 집을 마련하고 사제들을 위한 성직자 수도운동을 시작하여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sup>115)</sup>

107)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서울: 살림, 2004), 37-38.

108) Timothy J. Joyse, *켈트 기독교(Celtic Christianity)*, 채천석 역(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8), 18-19.

109) Joyse, *켈트 기독교*, 57.

110) Ibid., 56.

111) Ibid., 58.

112) Ibid., 193-194.

113)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33.

114) Bresard, *수도승의 기원*, 222-230. 매우 실천적이었고 엄격한 금욕주의가 보이나 개인에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 2 절 사막수도운동의 역사적 유산과 영성

### 1. 사막수도운동의 역사적 유산

지금까지 4세기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막의 수도운동이 4-5세기에 걸쳐 로마 전역으로 펼쳐져가는 여정을 살펴보았다. 사막의 수도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균형과 질서가 잡히는 모습으로 자라갔다. 사막의 수도운동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있어왔던 만큼 사막수도운동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 각성과 은혜를 끼쳐왔는지를 정리 요약하고자 한다. 이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건강한 관점에서, 아직 제도화되기 전의 수도운동의 영성을 성경적 기도 원리로 재평가하여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가. 수도회 규칙서로 질서를 세움

파코미우스가 독수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여 수도회 규칙을 작성하며 공주수도원을 세웠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운동인 시리아의 수도운동은 각광을 받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를 받았고,<sup>116)</sup>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단에 빠지거나 피폐한 수도생활로 무너져갈 수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에바그리우스, 존 카시안, 바실리우스 등 신학적 재능이 있던 사람들의 저술 활동으로 말미암아 점차 균형과 질서를 잡아갔다.

바실리우스의 경우를 들어보자. 소아시아의 에우스타티우스가 금욕적 수도운동에 영향이 컸다. 그러나 그는 혼인을 거부하고 이미 남편과 자식이 있는 아내에게 가족 관계를 끊으라 하는 등 극단적이고 비성경적인 접근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문당하여 교회와 그의 추종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sup>117)</sup> 이러한 상황에서 바실리우스는 이집트와 팔레스틴과 시리아를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사막수도생활을 탐구한 후에 성경에 충실한 수도운동을 갑바도기아 이리스 강변에 있는 자신의 가족 영지에서 시작하였다.<sup>118)</sup> 그가 만든 성경본문중심의 *도덕규칙서*는 동방기독교 수도운동의 모범이었을 뿐 아니

115) Bresard, *수도승의 기원*, 49.

116) Dassmann, *교회사 II/2*, 319-320.

117) Ibid., 309.

118) Ibid., 312.

라 서방에도 영향을 주었다.<sup>119)</sup> 카시안과 어거스틴은 파코미우스와 바실리우스를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도원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는 무질서하고 방만하기 쉬운 수도생활에 질서와 규모를 갖추게 했다.

#### 나. 성경 중심의 금욕 수도운동

사막에서 기도하는 전통은 일차적으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마 4:1-11)의 모델과 세례요한의 모델(눅 1:15-17; 마 3:1-4)에서 자극받은 것이다. 아울러 구약에 언급된 모세의 광야 생활과 선지자들의 광야 생활은 사막 수도승들에게 충분한 근거와 영감을 주고 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왕상 19:19-21; 왕하 1:8; 말 4:5-6)의 모델은 안토니우스가 주목하고 가르쳤으므로 사막 수도승들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수도자는 거울에서 보듯이 위대한 엘리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기 삶을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sup>120)</sup>고 늘 강조하고 가르쳤다. 아마도 주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임을 가르쳐주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마 11:11-14; 17:12-13).

그뿐만 아니라 파코미우스는 기도와 성경을 영성의 한 쌍으로 생각하였다.<sup>121)</sup> 파코미우스 수도원 지원자는 주기도문과 시편 스무 편과 서신서 두 편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외워야 했고, 하루 일과는 성경읽기와 묵상이 필수였다.<sup>122)</sup> 바실의 수도회 규칙은 성경말씀 인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sup>123)</sup> 수도사들은 주로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며 시편으로 기도했다.<sup>124)</sup> 바실리우스는 수도승에게 끊임없는 성경연구를 강조하였다.<sup>125)</sup> 한편 에바그리우스(345-399)는 수도승이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데 필요한 일련의 성경 본문에서 비롯된 원리를 정리하여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을 발간하였다.<sup>126)</sup> 이 책에서 에바그리우스는 487개의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사막 교부들

119) Dassmann, *교회사 II/2*, 316.

120)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68.

121) Bresard, *수도승의 기원*, 80. 파코미우스는 말씀묵상을 성경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며 마음에 담는 것이라 생각했다.

122) Dassmann, *교회사 II/2*, 305-306.

123) Bresard, *수도승의 기원*, 187.

124)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58.

125) Dassmann, *교회사 II/2*, 315.

126) Bresard, *수도승의 기원*, 136.



은 자신들의 영성훈련과 삶의 실천이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되게 하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말씀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성이었기에 높은 도덕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도운동

그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영적 도움을 받고자 왕래하고 모여 들었다. 수도승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지만 세상은 광야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안토니우스의 경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 수도생활을 했지만 외부와 단절된 상황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심지어 마지막 생을 보냈던 오지의 콜침 산에서의 수도생활 때도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는 모든 이들의 영적 사부로 거기 머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사막의 수도사들의 수도활동은 지리적 고립이었지 사회적 공동체적 고립은 아니었다.<sup>127)</sup>

가장 극단적인 금욕수도운동이었던 시리아의 사막 교부들도 고립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주상 성자로 알려진 시므온도 아랍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기둥에서 내려온 적이 있을 정도이다.<sup>128)</sup> 바실리우스가 카이사랴 주교가 되었을 때, 가이사랴 전체를 교회와 수도원, 빈민 구호시설과 병원을 세워 이웃 사랑이 지역 사회에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기반 시설을 조화시켰던 것은 수도운동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증거이다.<sup>129)</sup> 수도승들은 교회에서 부르면 부름에 응했고 선교의 일을 떠맡기도 하며, 자신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돌보는 등 이웃 사랑의 도를 적극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이집트 사막수도운동의 이웃 사랑과 교회 섬김의 정신은 켈틱 수도운동의 열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마을 수도공동체를 구축했으며, 백색 순교를 위해 유랑수도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갔다.

#### 라. 정통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공헌한 사막의 수도운동

127)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29.

128) Frank, *기독교수도원의 역사*, 61.

129) Dassmann, *교회사 II/2*, 313.

수도회가 경험적 실천과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단사설들의 영향에 쉽게 물들 수 있었으나 신학적 재능이 있는 교부들의 영향으로 건강하게 삼위일체 신학을 고수하여 나갔다. 안토니의 생애를 저술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자 신학자로서 아리우스 이단과 평생 싸웠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종속설이 거부되고 동등한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 신학이 확정되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의 비서로 그 회의에 참여한 아타나시우스는 328년 알렉산더 사후 알렉산드리아 감독직을 맡으면서 아리우스파와의 기나긴 삼위일체 논쟁의 선두에 선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과정에서 멘토 안토니우스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373년 소천하기까지 니케아 신앙을 지켜내는 일의 중심축을 지켜냈다. 논쟁 과정에서 20년을 몇 차례에 걸쳐 유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안토니우스와 같은 사막의 수도승들의 영적 도움이 큰 지지 기반이 되었다.<sup>130)</sup>

이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가 공고하게 되기까지 이 바통을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사막의 수도운동의 선봉이었던 바실리우스였다. 바실의 수도원 운동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닛사의 그레고리와 함께 구축한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의 신학 형성에 모태가 되었다.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하게 된다. 바실리우스는 삼위일체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였고,<sup>131)</sup> 아타나시우스가 373년 세상을 떠나자 그의 뒤를 이어 동방의 정통신앙의 수호자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2년 동안 니케아 정통신앙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니케아 신앙을 확정하는 토대를 놓았다. 한편 닛사의 그레고리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신학적인 영향을 미쳤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정통신앙의 표준 교좌로 인정받았다.<sup>132)</sup>

초기 이집트 수도운동의 연표를 초대교회 공의회 연도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sup>133)</sup> 320년 파코미우스가 타벤니시에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325년 니

130) 박용규, *초대교회사*, 342.

131) Ibid., 359. “바실은 삼위일체를 위한 인정된 문구인 본질(substance, ousia) 삼위(three persons, hypostasis) 확정시킨 최초의 학자”였다.

132) Ibid., 360.

133) Benedicta Ward 편역, *사막교부들의 금언(The Sayings of The Desert Fathers)*, 이후정 엄성옥 공역 (서울: 은성, 1995), 383-384.

케아 공의회가 있었다. 357년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의 치열한 갈등의 한복판에서 *안토니의 생애*를 저술하여 사막의 수도운동에 불을 당긴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바실리우스가 370년 *규칙서*라는 수도원 규칙을 작성하여 갑바도기아 수도운동과 동방의 수도운동을 공고히 한다. 379년 바실이 사망하자 바실의 두 친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닷사의 그레고리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신조를 공고히 하여 삼위일체 정통신앙을 확립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또 다른 북아프리카의 수도운동의 주자인 어거스틴은 391년 히포의 사제가 되면서 430년 사망하기까지 도나티스파 이단 논쟁과 펠라기우스 논쟁을 주도하면서 정통신앙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34)</sup> 407-408년 이집트의 스케티스가 야만족의 공격을 받아 1차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스케티스를 떠난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있고 나서 434년 야만족에게 스케티스가 2차 공격을 받아 멸망한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기독교론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교회와 수도승과의 관계가 공식의제로 다루어진다. 이 회의에서 수도원은 주교관구에 편입되고 주교들에게 수도원에 대한 건립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sup>135)</sup> 이로써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이 교회 구조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된다. 455년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하여 약탈한다. 그리고 459년 시리아의 주상 성자 시므온이 사망함으로써 지난 200여 년간의 거칠고 험난한 사막수도운동이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막을 내린다. 역사가들은 니트리야는 5세기 경에 무너졌고, 스케티스 수도원들은 6세기에 파괴되었으며, 9세기에 이르러 켈리아 수도생활 중심지는 버려진 채 방치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36)</sup> 이러한 사막수도운동과 정통신학 정립의 여정이 나란히 병행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 정통의 확립은 사막의 수도승의 영성이 뒷받침되고 근간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 지역의 상황과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적용된 수도운동

안토니우스의 독수도회의 단점을 보완하여 파코미우스의 공주수도회가 만들어졌

134) 김광채, *초대교회사 서설* (서울: 노드, 2016), 277-287

135) Frank, *기독교수도원의 역사*, 65-66.

136) Antoine Guillaumont, “켈리아 수도승 이야기”(Storia dei monaci a Kellia), 허성석 역, 한국 베네딕토 협의회, *수도생활* (왜관: 분도출판사, 2016), 252.

다. 팔레스틴에서는 독수도회와 공주수도회의 장점을 조화시킨 라우라 제도가 실행되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실리우스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보다 도시에 의료봉사와 구호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수도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로마나 콘스탄티노플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 안에 수도공동체를 만들어 상황에 맞는 수도생활을 접목했고, 어거스틴과 같은 학자와 사제들을 위해 정원수도공동체를 만들어 수도생활을 창의적으로 수행해나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수도운동의 영성을 접목하는 데 창의적인 적용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2.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영성훈련의 초점

사막 교부들에 의해 시작된 수도운동에서의 기독교 영성은 내면생활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연합되는 체험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137)</sup> 그렇기에 오래 침묵하고 묵상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수도생활을 지속적으로 일구어갔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 항상 기도하며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마 5:48).

### 가. 영적전투

사막의 기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과 악한 자의 유혹과의 씨름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안토니의 생애에서는 거의 반절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관련된 것이다. 그중 21번째 에피소드에서 43번째 에피소드까지는 특별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한 간증과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sup>138)</sup> 이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기도와 시험받으시는 장면(마 4:1-11)을 연상케 한다. 안토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면의 욕망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요일 2:16-17) 자기 영혼과 씨름하는 기도를 치열하게 수행하였다.<sup>139)</sup>

수도승들은 먼저 악마와 거슬러 싸워야 하고 이어 육체와 생각들의 죄와 거슬러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sup>140)</sup> 악한 영들이 인간 내면의 욕망을 건드리며 유혹하며 무너

137)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117.

138)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61,63.

139)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52. 사막의 교부들은 악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지 않는다고 잠을 안자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싸워나갔다.

140) Fidelis Ruppert, *영적전투 배우기(Geistlich Kampeen Lernen)*, 이종환 역(왜관: 분도출판

뜨리려 공격하곤 하였다. 안토니는 사탄의 맹공격과 맞서 싸워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해감을 보여줌으로서 수도사들에게 영적 성장을 독려했다.<sup>141)</sup> 그들은 밤새도록 성경을 암송하며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하기를 일상으로 했다.<sup>142)</sup> 기도를 해도 해도 또 할 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교제의 기도, 함께 머무는 기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죄와 허물과 씨름하며 주님께 나아갔다.

#### 나. 순교의 정신

순교의 정신으로 사막에 가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을 구현하려 하였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금욕함으로 자아를 다스렸다. 그것이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사막의 교부들은 단순히 육체를 학대하여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음식과 절제된 삶의 훈련을 통하여 육체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상태로 길들이려 하였다.<sup>143)</sup> 그들은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려 하였으며 잠을 줄여 나태함을 몰아내려 힘을 기울였다. 일반적으로 수도승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sup>144)</sup>, 레온이란 수도사는 요리하지 않은 생야채만 먹었다.<sup>145)</sup> 엘리야라는 수도사는 젊어서는 한 주에 한 번만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에는 매일 저녁에 약간의 빵을 먹게 되었다고 전한다.<sup>146)</sup> 옷은 주로 한 벌이었고, 성욕과 탐욕을 절제하는 데 힘을 기울여 살았다.<sup>147)</sup> 이들이 스스로 순교의 자리를 자처하고 떠났기에 이러한 삶을 경주하며 지상에서의 삶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 다. 성경 안에서 사고하며 묵상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혹은 말씀으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

---

사, 2017), 32.

141)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 9.

142)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60,183. 철야기도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 고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에 머무는 삶을 진력했다.

143)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167. 이러한 태도는 타 종교의 육체를 부정하는 이원론적 관점에서의 금욕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막의 교부들은 육체를 영과 온전히 조화시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이다.

144)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53.

145) Ibid., 156.

146) Ibid., 158.

147) Ibid., 79.

을 빚어갔다. 산클레티카라는 수도승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화를 냈어도, 하루 종일 화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엡 4:25)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마칠 때까지 분을 품으려 하십니까? ...질병은 미워하되 병든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sup>148)</sup>

이렇듯 사막의 수도승들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사막 교부들의 격언들과 그들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이러한 예를 쉽게 접할 수 있다.<sup>149)</sup> 예를 들어 서신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권면이 세 번 나온다(롬 12:17; 살전 5:15; 벧전 3:9). 그런데 사막 교부 이사야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고개를 끄떡이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sup>150)</sup>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적용 실천하는 삶을 밀도 있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벤자민이란 수도승은 임종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하였을 정도이다.<sup>151)</sup> 사막 수도승들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려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마지막에는 말씀 안에서 임종하였으니 그야말로 말씀 안에 용해되어간 영혼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에게서 여러 묵상법이 심원하게 개발된다.

#### 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자 하였고,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으로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힘썼다. 사막의 수도승들이 사막으로 간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아와 자기 존재 문제 때문이었

148) Ward, *사막교부들의 규언*, 363.

149) Ibid., 75,87,113. 금언록에 언급된 말씀의 예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14절, 19장 27절, 시편 90편 10절이 눈에 띈다.

150) Ibid., 131.

151) Ibid., 96.

다.<sup>152)</sup>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며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동거와 연합을 이루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여정을 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sup>153)</sup> 그러하기에 끊임없는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독려 받고 실천하는 삶을 견지하였다.<sup>154)</sup>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태도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수도승들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모시며 환대하였다.<sup>155)</sup>

#### 마.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마 6:6)을 붙잡고 기도했다. 수도운동이 고요히 홀로 머무는 독수도회로 출발한 것은 예수님의 골방기도 명령에 부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께 은밀하게 나아가기 위해 골방기도를 하라 하셨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가 그러하듯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집이 조그마했으므로 따로 골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물며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적용 방법이었다. 사막 교부들이 동굴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살거나<sup>156)</sup> 앞에서 언급한 시리아 수도사들처럼 나무 위에 구멍을 파고 거하거나 높은 기둥 위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움막을 짓고 살더라도 담이 높고 문이 하나뿐인 집을 짓고 살았을 정도이다.

동양 종교가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에 멋진 암자를 짓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도를 하는 것과는 많이 대조적이다. 이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드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다. 이러한 방식은 안토니우스로부터 내면의 잠념을 가라앉히고 침묵 속에 거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갔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침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로 여겼다.<sup>157)</sup> 입에서 나온 말이 죄를 일으킨다고 믿었기에 말없이 침묵으로 주님께 순전하게 나아가려 했다.

152)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122,125.

153)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119.

154) Ibid., 69,137,148. 전통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며, 침묵의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그분 앞에 머물게 하는 역동을 익혀갔다.

155) Ibid., *사막 교부들의 삶*, 152.

156) Ibid., *사막 교부들의 삶*, 108.

157) Henri J. N. Nouwen, *마음의 길(The way of the Heart)*, 이봉우 역 (왜관: 분도, 1989), 43.

그러나 침묵으로부터 고요함을 얻는 과정은 험난한 길이었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며 내적 고요를 이루어가려고 힘썼다. 이러한 역동은 내적 고요에 머무는 무정념의 상태를 추구하는 헤시카시즘으로 발전하게 된다.<sup>158)</sup> 무정념의 상태에서 비로소 인간은 참되게 다른 잡념에 흐트러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기도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항상 기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내적 고요를 이루기 위한 기도 방법을 개발하였다. 잡념이 올 때 마다 말씀 구절로 기도드리는 ‘성구기도’와 ‘예수기도’<sup>159)</sup>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기도법이다.

#### 바. 덕을 쌓아가는 영성을 추구

인간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마귀와의 대결로서의 광야 기도와, 씨름하는 영혼의 기도로서의 겿세마네 기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길의 좋은 본이 되었다. 실제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어갈 것을 명하고 있고(갈 5:22-23),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로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벧후1:4-7). 이러한 구체적인 덕목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내적 평안을 이루는 과정에서 빛어지는 열매라 믿고, 사막의 수도승들은 이러한 다양한 내적 덕목들을 구현하려고 무던히 정진하였다.

에바그리우스에 의해 제시된 여덟 가지 악한 생각은 그 결과물이었다. 악한 생각이라 함은 모든 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발생학적 생각을 말한다. 에바그리우스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노여움, 나태, 허영, 교만이라는 여덟 가지 생각이 악의 뿌리라 파악했다.<sup>160)</sup>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패배와 혼돈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자신의 내면에 신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금욕적 삶을 고도로 발달시킨 것

158) 김수천, *침묵기도의 삶* (서울: 두란노서원, 2013), 86-87.

159) Ignatius Brianchaninov, *예수기도(On the Jesus Prayer)*, 최대형 역(서울: 은성, 2018). 이 책은 정교회에서 사용되는 예수기도 실천 교본과 같은 책으로 예수기도에 대해 잘 안내하고 있다.

160) Bresard, *수도승의 기원*, 139.



이었다.

금욕 훈련의 수단은 독신 생활, 광야의 청빈한 생활, 그리고 금식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은밀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고(마 6:16-17),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적받을 때도 자신이 이들 곁을 떠나게 되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 장담하셨던 바 있다(마 9:15). 그러나 금식에 대해 사도행전에는 세 번 언급되었을 뿐이고(행 9:17-19; 13:2-3; 14:3), 서신서에는 금식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흥미롭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달랐다. 기본적으로 순교의 영성을 구현하려 하였기에 금욕적이었다. 예수님의 광야기도의 본을 좇아 자기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은 쓴 약이 해로운 질병을 몰아내듯이 금식은 악한 생각을 몰아낸다고 생각했다.<sup>161)</sup> 온전한 절제를 하기 위해 금식은 사막 수도승들의 단골 기도 훈련이었다. 다른 한편 건강한 사막의 수도승들은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갔다. 신클레티카라는 수도승은 원수가 시켜서 하는 금욕 고행이 있다고 말하면서 금식하는 일에 있어 분별하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sup>162)</sup> 신클레티카는 금욕 고행보다는 순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순종은 겸손을 가르치지만 금욕 고행은 교만을 가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63)</sup>

넛사의 그레고리(335-395)가 쓴 *모세의 생애*라는 작품도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덕목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sup>164)</sup> 영혼의 영원한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 완성에는 끝이 없으며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수도승이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듯 사막 교부들의 영성훈련은 완성도 있는 영적 여정을 일구어가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 사. 항상 기도를 몸소 실천

161) Ward, *사막교부들의 금언*, 360.

162) Ibid., 363.

163) Ibid., 363-364. 사막의 수도승들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라는 평은 바르지 않다. 그들 중 극단적 금욕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성령에 의해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깊이 있는 수도승들에 의해 균형을 잡을 것을 지적하였던 기록들을 그들의 금언 속에서 보게 된다.

164) Gregory of Nissa, *모세의 생애*(*The Life of Moses*), 고진욱 역(서울: 은성출판사, 1996), 37-42.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승들이 많았다. 시편을 끊임없이 노래 하며 낮에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철야기도를 일상화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집트 사막에서 수도했던 아폴로라는 수도사는 조그마한 동굴에 살면서 낮에 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밤이 되면 또 100번씩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sup>165)</sup> 존이란 이집트 수도사는 처음 3년 동안 바위 밑에서 계속 기도했고 앉지도 자지도 않고 잠자기 위해 눕지도 않았으며 선 채로 잠시 눈을 붙이곤 하였다 한다.<sup>166)</sup> 날마다 성찬식을 하고, 시편기도와 주기도문 기도는 기본으로 드렸고, 여러 성경구절을 읊조리며 선포하며 기도하고 침묵과 묵상하는 등 온갖 종류의 기도 방법을 동원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잡념을 다스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이 있는 걸 보면, 전심을 다해 항상 기도드리기를 힘썼던 것이 분명하다.<sup>167)</sup>

한편 오리겐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 하루에 세 번 이상 드릴 것을 가르쳤다.<sup>168)</sup> 그리고 교부 키프리안은 하루 여섯 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sup>169)</sup> 히폴리투스가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전승*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로마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 침대에서 육신이 쉬기 전에, 한밤중에 그리고 수탉이 우는 시간에 일어나 기도할 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sup>170)</sup> 사실상 무시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사막의 수도승들과 함께 초대교회 교부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3 절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비추어본 사막의 수도승들의 기도와 영성

#### 1. 사막의 수도승들이 직면했던 교회사적 상황

##### 가. 교회의 세속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공인하는 칙령을 반포한 이후 교회를 괴롭혔던 핍박의 시대가 멈추었다. 교회는 잃었

165) Bresard, *수도승의 기원*, 161.

166) Ibid., 231.

167) Russel, *사막 교부들의 삶*, 117-118.

168) Origenes, *기도론(De Oratione)*, 이두희 역(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8), 203-205.

169) 유은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론 연구*(서울: 예수영성, 2019), 88.

170) Hippolytus,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 이형우 역(왜관: 분도출판사, 1992), 185-193.

던 모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교회는 그렇게 유입되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영성생활을 하게 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풍요와 평화가 오히려 세속화를 부추기며 교회는 영적 위기를 맞이한다. 고난과 순교의 제자도 정신은 퇴색하고 풍요와 번영의 세속적 신앙의 흐름이 대두되었다.

#### 나. 신학적 과제

이미 등장한 이단들의 활동으로 교회의 정통성과 신론을 정립해야 하는 신학적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교회는 종교회의를 통해 삼위일체 신론과 신인기독론을 정립해가며 정통신학을 구축하는 한편 교회를 제도화하고 신약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체계와 규모를 잡아간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개교회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깊게 전달되고 심화되는 작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영적 갈망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안토니우스라는 준비된 사막수도생활이 있는 사막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 2. 사막 수도승들의 삶과 영성의 초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막의 수도승들은 진정 예수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기 전에, 그들의 영성생활이 치열하고 극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초점을 분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복음서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했다. 청빈과 순결과 순복이라는 원리에 충실한 여정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했다.

둘째, 세속화되는 교회를 뒤로하고 영적 갈망을 위해 기꺼이 금욕적 삶을 통하여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예수그리스도에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에 힘을 다했다.

셋째, 사막의 수도승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철저한 구

도자의 삶을 살아갔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온전한 자의 삶을 목표로 내면의 성품을 다듬고 덕을 실천하고 쌓아갔다. 닛사의 그레고리가 쓴 모세의 생애라는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은 영적 여정의 완성도를 이루기 위해 전력했다.

넷째, 하나님나라의 지평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막의 수도운동과 교회 사역의 조화를 위해 힘썼다. 삼위일체 신학을 완성해가는 교회의 정통신학 형성에 사막 교부들의 역할과 지원이 컸으며, 바실리우스가 가이사랴에 세운 수도공동체가 보여주듯이 일반 목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이며 실제적으로도 헌신적으로 살아갔다. 켈틱 수도운동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막의 수도승들은 결코 자기들만의 삶 속에 파묻히고자 은둔 수도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

### 3. 사막의 수도승들이 전수해준 기도법들

사막의 수도승들의 기이한 행적은 오늘날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광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마 16:24)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기 위해(갈 2:20) 사막으로 갔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산상수훈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힘쓰고 평생을 정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온전한 덕을 이루기를 경주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정진하는 과정 속에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묵상과 기도 방법들을 유산으로 남겼다.

본 논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한 “신약성경을 통해 제시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와 내용”을 사막의 수도승들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네 방향 기도 원리 모두가 조화되고 있음을 본다. 한편 “신약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기도 방법들”과 비교해볼 때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과 적용 사례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성경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 방식의 기도

사막의 수도승들은 하루 종일 시편을 암송하며 노래했고, 성경을 암송하고 읊조

리며 묵상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했으며, 정기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렸으며,<sup>171)</sup> 광야에서 주님이 신명기 구절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기에 에바그리우스가 쓴 *안티레티코스*에서 보듯이 성구기도를 하였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sup>172)</sup> 더군다나 사막 교부들이 기도 중에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했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아울러 잘 작동이 되었기에 책으로까지 남겼던 것이라 생각해 보면 신기한 능력이 말씀구절에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구절을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에는 매우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경험한다. 말씀구절로 기도를 드렸던 성구기도는 어거스틴이 “화살기도(*arrow prayer*)”라 명명하여 전해오고 있다.<sup>173)</sup> 말씀묵상과 기도를 조화시킨 기도방법 중 후대에 서방 수도회에서 깊게 자리 잡힌 렉시오디비나(말씀-묵상-기도-침묵)가 이러한 역동 속에 자리 잡게 된 기도 방법이다.

#### (1) 시편기도

언제나 늘 시편기도는 수도승들의 기도의 보화였다. 시편 150편을 암송하고, 낭독하고 읊조리는 것은 사막 수도승들의 기도의 중심부에 있었다. 존 카시안이 하루 두 번씩 아침과 저녁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기도에 시편 낭송기도를 도입하였던 예에서, 시편기도가 점점 형식화되어 발전해갔음을 보게 된다.<sup>174)</sup> 에바그리우스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욕망을 잠재우고 무절제함을 바로잡아 기도에 집중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sup>175)</sup> 또한 영적전투 중에 붙들었던 기도도 시편기도였으니 시편기도는 모든 방향의 기도에 유익을 주는 영혼의 기도이다.

171) Gorden J. Bahr, “The use of the Lord’s Prayer in the Primitive Church,” in Jakob J. Petuchowski and Michael Broke ed., *The Lord’s Prayer and Jewish Litur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8), 151. 키프리아노는 주기도문을 우리의 공동기도문이라 했으며, 디다케에는 하루에 세 번 주기도문을 드릴 것을 강권하고 있다.

172) Evagrius Ponticus, *안티레티코스(Contro I Pensieri Malvagi Antirretikos)*, 허성석 역(왜관: 분도, 2015).

173) Martin Laird, *Into the Silent Land* (London: Longman and Todd Ltd, 2006), 55.

174)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31.

175) Evagrius Pontius,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와 묵상(De Oratione)*, 전경미 이재길 역(서울: KIATS, 2011), 83.

### (2) 주기도문 기도

파코미우스 수도원 지원자는 반드시 외위야할 목록에 주기도문 기도가 있었음을 이미 언급했다.<sup>176)</sup> 키프리안이 주기도문 해설을 남겼고, 오리겐이 주님의 기도를 주석했으며, 닷사의 그레고리와 크리소스톰 등이 그 뒤를 이어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가르쳤음은 잘 알려져 있듯이 주기도문은 당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기도였다.<sup>177)</sup>

### (3) 말씀묵상

사도 시대를 지나 신약성경이 완성되어가면서 말씀묵상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동을 제공하였다. 켈트족 수도회는 성경 필사에 힘을 기울였고, 많은 수도승들이 성경을 늘 소리 내어 읽고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에 들어갔다. 요즈음 한국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성경 필사와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sup>178)</sup>는 이러한 전통을 잇는 것이다.

### (4) 렉시오디비나

사막의 수도승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읊조리면서 묵상에 들어가 기도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말씀, 묵상, 기도, 침묵이라는 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수사되었던 기도이다. 말씀-묵상-기도-침묵이라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은 12세기 카르투지오 수도원의 귀고II세가 쓴 수도승의 사다리란 책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 정착된 것뿐이다.<sup>179)</sup> 실제로 말씀묵상을 통해 기도와 침묵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 순서에 제한받지 않고 융통성을 가지고 묵상 중 내적 역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면 유익하다. 사막의 수도승들의 묵상방법은 능동적 추론적 묵상이 아니라 수동적이면서 직관적인 묵상이었다.<sup>180)</sup> 실제로 이 방법이 친밀한 대화로서의 기도에 더 유익하다.

176) Dassmann, *교회사 II/2*, 305.

177) Origenes, *기도론*, 20,29,261-475.

178) 청교도들에 의해 각광을 받았고, 앞에서 언급한 매튜 헨리의 기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최근 이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번역되어 유익을 주고 있다. Evan B. Howard, *성경그대로 기도하기(Praying the Scriptures)*, 채수범 역(서울: 규장, 2014). Donald S. Whitney,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Praying the Bible)*, 김기철 역(서울: 복있는 사람, 2016). 등이 도움이 된다.

179) Guigo II, *성독(Ladder of Monk)*, 엄성옥 역(서울: 은성, 2018), 20. 귀고II세는 “일하다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성훈련의 네 단계가 떠올랐다”고 술회하고 있다.

나. 주님처럼 광야에서 독거와 침묵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마6:6)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광야기도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본은 사막 교부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영감을 주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굴에 들어가거나 홀로 거하는 움막에 거하며 기도하였던 예는 흥미로운 순종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침묵 속에 주님 앞에 머물고 거하는 교제 역동을 익혀가며 그분과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갔다. 침묵기도는 주님이 좋아하셨던 기도 방식이고, 그것은 인격적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동이다.

#### (1) 화살기도

광야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모방하여 성구기도가 생겨났다. 앞에서 말했던 에바그리우스가 남긴 *안티레티코스*가 그 전형을 보여준다. 잡념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거스틴에 의해 화살기도로 이름 붙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예수기도

화살기도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법으로 발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구절을 반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한다. 이 기도문의 성경적 유래를 찾아보면 흥미롭다. 그런데 이 간구 문구는 시편에서부터 시작되어 선지자들에 의해 드러진 기도문구이다(시 27:7; 59:17; 90:13; 율 2:17). 이러한 간구 기도문은 복음서에 맹인들과 나병 환자와 가나안 여인 등의 기도에 등장한다(마 9:27; 15:22; 17:15; 20:30-31; 눅18:13). 복음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도문구이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바 있다(요 14:13-14; 15:16; 16:23).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 했던 사막의 수도승들이 이런 기도 문구를 놓칠 리가 없다. 여러 종류의 화살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기도’에 주목한 것은 위와 같은 말씀의

180) 허성준, *수도원 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왜관: 분도출판사, 2009). 이 책이 사막의 수도승들과 맥이 닿는 수동적 직관 묵상법으로서의 렉시오디비나 방법을 잘 소개하고 있다.

근거와 실제적 체험에 기인한 것이었다.<sup>181)</sup>

### (3) 침묵기도

예수께서 광야는 물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사막의 수도승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수도승들의 침묵은 침묵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한 것이었다.<sup>182)</sup>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므로 내적 침묵이 중요하다. 온 마음을 드리고 싶으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 잡념에 휘둘려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분망한 마음을 가져오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욕망, 근심, 일상적인 잡념, 과거의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sup>183)</sup> 그들은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후 10:5)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분망한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기도를 올리려고 힘썼다.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과 싸워서 이르게 되는 내면의 고요와 평정의 상태”<sup>184)</sup>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 원했다.

이 침묵의 길을 본 연구자는 세 가지 침묵 역동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훈련하였다. 말씀묵상을 따라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따라가기 침묵’, 화살기도를 드리며 잡념과 영적 공격을 잔잔하게 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흘러보내기 침묵’, 주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응시하며 머물며 그분을 마주하는 ‘머물기 침묵’으로 나누어 침묵훈련 위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 다. 성품의 덕을 쌓아가기

수도승들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씨름을 통해 수련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용납의 품이 넓어져 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

181) 오강남, *기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한 무명의 러시아 순례자가 예수기도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한 체험이 나온다. 놀라운 체험이다. 본인도 주변에서 예수기도 하면서 유사한 체험을 하는 성도를 알고 있다.

182) 허성석, *중용의 사부 베네딕토 영성*(왜관: 분도출판사, 2015), 49-50.

183) 김수천, *침묵기도의 삶*, 95.

184) Ibid., 87.



### (1) 금식 및 절식기도

사막의 수도승들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며칠씩 금식하거나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지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오늘날의 풍요로운 음식 문화 속에서 스스로 육욕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여전히 유익한 기도법이다. 이러한 단식에 대한 실천은 4세기경에 교회가 일반성도들에게도 수요일과 금요일 주님의 수난상황을 기억하는 단식일로 행하게 했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도로 자리를 잡았다.<sup>185)</sup>

### (2) 철야기도

예수님이 자주 하신 기도였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막의 수도승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 형태 중 하나였다. 아마도 사막이므로 낮에 태양이 뜨거워 더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막 수도승들이 남긴 기록들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 (3) 죽음에 대한 묵상과 참회

죽음에 대한 묵상과 참회의 눈물로 주님께 나아갔다.<sup>186)</sup> 사막의 수도승들은 자신의 순교의 영성을 금욕 훈련으로 구현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죽음 묵상은 전도서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 (전 12장). 또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했다.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눈물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훈련해보니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묵상 훈련을 하노라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쉽게 보게 된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라. 항상 기도하기 실현이 목표

밤낮 기도하고, 시편을 끊임없이 노래하며, 철야기도를 일상화하며 살아간 수도

185) Dassmann, 교회사 II/2, 282.

186) 김수천, *침묵기도의 삶*, 88.

승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통합적으로 구사되도록 힘썼다.

첫째, 하루 세 번 주기도문 기도이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부여받는 기도법이였다. *디다케* 8장에 하루 세 번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187)</sup> 항상 기도의 첫 관문이 하루 세 번 주기도문 기도였다.

둘째, 수도생활 규칙서이다. 지속적으로 기도에 정진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에 질서와 규모를 만들어가려고 규칙서를 만들어 실천했다. 파코미우스부터 시작된 규칙서는 각 수도회마다 만들어 실천해오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성훈련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되었다. 이를 본 연구자는 영성생활 수칙이란 이름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 영성의 성격과 틀을 만들어내었던 사막 수도승들의 유산과 영성을 통해 구체적인 기도 방법과 적용의 예를 얻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 개신교의 수도운동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경험들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적용점을 모색하고 그 훈련 모델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

187) 두란노아카데미, *초기 기독교 교부들(Early Christian Father)*, 기독교고전총서1, 김선영 역(서울: 2011), 233.

## 제 4 장

###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적용점 모색

#### 제 1 절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의 현 상황과 목회 현장의 과제

앞에서 연구하여 정리된 네 가지 방향성 기도의 내용과 기도 방식을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 훈련의 상황과 목회 현장의 당면 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인이 교회 개척을 준비할 2008년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이었다. 2007년 샘물교회의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탈레반에 의해 납치를 당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한국 시간으로 2007년 7월 20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 탈레반과 한국 정부의 협상 과정 중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살해를 당했다.<sup>188)</sup> 그러나 이 사건은 일파만파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병폐로 말미암아 쌓였던 불만과 비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본인으로서는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형태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을 검토하게 되었다.

#### 1.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의 흐름과 성장

가. 1970년대까지 이루어진 부흥회와 새벽기도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188) <https://news.joins.com/article/21774538>. 2017. 7.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각 2007년 7월 19일 샘물교회 선교팀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이 함께 피랍되었고,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살해당한 배형준, 심성민 씨를 제외한 21명이 그해 8월 31일 풀려나면서 42일 만에 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몸값으로 탈레반 측에 건네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권고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행을 감행하여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비난 여론이 무성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에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은 한국교회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후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은 부흥회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 70년대까지 성장을 이루어왔다. 사경회와 부흥회는 일반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성도들은 새벽기도와 성경 읽기와 열정적 예배 참여로 신앙을 다지고 교회를 세워갔다. 이러한 큰 집회 중심의 부흥회는 1973년의 ‘빌리 그레함 대전도 집회’, ‘예수혁명’을 내건 1974년의 ‘엑스포로 74대회’, 그리고 1977년과 1980년의 ‘민족복음화 대성회’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었다.<sup>189)</sup> 본인도 중학교 3학년 때였던 ‘엑스포로 77대회’ 때 여의도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수십 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기라성 같은 부흥강사들에 의해 전국방방곡곡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부흥집회는 6.25 전쟁 이후 참담한 심령 속에 갈급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통계를 보면 1955년부터 1990년 어간에 교회는 매 10년마다 두 배로 성장했고, 세계적인 대형교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sup>190)</sup> 7-80년대 부흥회 운동은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자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샤마니즘적인 기복신앙과 종교적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sup>191)</sup>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체험에 치중하여 성도들에게 민간신앙에 기울게 하여 기복신앙과 물질주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받고 있다.<sup>192)</sup> 신학의 부재가 가져온 혼돈이었다. 그러나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지도자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새벽기도 운동은 한국교회 영성의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잡았다.<sup>193)</sup> 이는 예수님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신 습관(막1:35)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되는 기도

189) 정윤제, “한국교회의 영성훈련과 교회성장 간의 상관성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6*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2011), 348.

190) 김영한, *한국교회 성장 문화에 대한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1998), 5. 이 글에서 김영한은 John N. Vaughan 쓴 *The World's 20 Largest Churches* (Grand Rapids: Baker's Book House, 1984)에 한국교회가 5개나 들어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교회가 수적 성장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191) 정윤제, “한국교회의 영성훈련과 교회성장 간의 상관성 연구,” 351.

192) Ibid., 351-353.

193) 이성용, “해방후 한국기독교 운동에 대한 상황화 신학관점에서의 연구,” (Ph. D. diss.,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2005), 51-52.

방식이다.

#### 나. 기도원 운동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직자들과 청년들의 심신 수양을 위한 기도원을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하고 모금하여 1931년 9월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을 최초로 설립하였다.<sup>194)</sup> 1930년대 교회는 정통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무교회주의로 신학적 혼란과 분열 속에 빠져들었다.<sup>195)</sup> 게다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으로 교회가 변질하고 와해되면서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교회가 암담한 침체기를 겪게 된다.<sup>196)</sup> “심지어 일제 군부지도자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울 것을 우려하여 1945년 8월 18일에 한국교회 지도자 2만 명 학살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sup>197)</sup> 이러한 암흑 시기에 영적 갈망이 큰 사람들은 마치 4-5세기의 사막의 수도승처럼 깊은 산에 들어가 은둔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sup>198)</sup> 이들 중 일부는 기도원 혹은 수도원을 세워서 기도운동에 힘을 기울인다. 그러다가 해방되던 해 1945년에 강원도 철원에 대한기독교 수도원과 경북 금릉에 용문산 기도원 설립을 시작으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기도원을 각처에 설립하여왔다. 7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여 1997년에는 806개소나 되었다.<sup>199)</sup>

기도원은 토속적 신비주의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부흥회 운동과 함께 중요한 한국교회 신앙훈련의 초석이 되었다. 앞에서 연구한 사막수도승들이 교회의 혼란과 세속화를 등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은둔과 독거와 기도에 열정적 헌신 등이 흡사하여 사막의 수도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 기독교 수도원, 용문산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한얼산 기도원, 동광원 등은 수도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노봉옥은 가톨릭의 수도원이란 명칭에 대비하여 한국개신교의 수도원을 기도원이라 칭한다고 보고 있다.<sup>200)</sup>

194) 노봉옥, “한국 기도원의 분포유형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Ph. D. diss.,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129.

19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628.

196) Ibid., 741.

197) Ibid., 792.

198) 노봉옥, “한국 기도원의 분포유형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28.

199) Ibid., 129.

200) Ibid. 실제로 노봉옥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카톨릭 수도원과 대비하여 현재 기도

다. 1980년대 이후 QT와 그룹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중심의 신앙 훈련

8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이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었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개인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었지만 내면의 정서적 영적 필요는 더 커졌다. 이때 국제적인 대학생 선교단체들로부터 도입된 QT<sup>201)</sup>와 그룹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그러한 한국교회의 필요에 부응하였다.

### (1) QT

농경사회 생활 방식에 적절한 새벽기도 영성이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자라난 젊은이들에게 적실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QT는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본 연구자도 대학 2학년 여름방학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QT를 배워 지금까지 지속하며 유익을 누리고 있다.

### (2) 그룹성경공부

이전까지는 목회자들이 가르쳐주는 일방적 가르침 속에 성경 연구를 해왔었는데, 일반 성도들의 그룹에서 서로 토의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도 신선하고 새로운 역동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그룹성경공부 교재들이 각 기독교 출판부에서 다양하게 발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공헌이 컸다. 특별히 IVF, JOY 중심으로 개인이 여러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 운동이 일어났다.

### (3) 제자훈련

60년대 초반부터 네비게이트 선교회는 제자삼기 중심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당시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과 우려가 공존하였다.<sup>202)</sup> 그

원, 기도처, 수양관, 수도원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 여기서 말하는 QT란 Quiet Time이라 명명되는 개인묵상을 가리킨다. 70년대 일부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의 대학생 선교단체들(IVF, CCC, Navigator 등)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QT운동은 월간 묵상지 *매일성경*(1973년)과 *생명의 삶*(1987년) 발간 보급되면서 대중화되었다.

러나 7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여러 선교단체가 이에 합세하여 힘을 기울였으며 서울시내 여러 청년부에게까지 보급되어 제자훈련이 왕성하게 일어났다.<sup>203)</sup> 그러나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된 것은 80년대 들어서였다. 특히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가 제자훈련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보급,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up>204)</sup> 그동안은 부흥회와 사경회 중심으로 이끌어온 신앙 훈련이 좀 더 체계화된 제자훈련으로 대체되면서 젊은이들뿐 아니라 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도 확대되며 80년대 한국교회의 영적 갈망에 부응하였다. 평신도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운동이 일어나 교회 성장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다.<sup>205)</sup>

#### (4) 찬양집회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청년 선교단체 예수전도단(YWAM)을 중심으로 서구화된 악기와 스타일의 찬양 중심 집회가 한국교회에 보급되어 예배에 영감과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경배와 찬양, 다윗의 장막, Disciples 등 대중 집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는 찬양 전문 그룹이 등장하고, 수많은 복음성가 가수와 CCM 가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일어났다.

이 시기는 새벽기도 중심의 통성기도보다는 개인묵상기도가 강조되었다. 송인규 소장은 이 시대에 공동체적 집단 통성기도에서 큐티(QT) 영성으로 대변되는 개인묵상기도로 변화된 것은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전환되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sup>206)</sup> 그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 농경사회 중심인 생활 구조가 산업화 이후 도시 중심의 생활 구조로 바뀌면서 시간상의 편의성과 장소와 생활상의 편의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기저에는 가족 구조의 변화라는 심층적 이유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

202) 송인규,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134-135.

203) Ibid., 135. 이 시기에 UBF, CCC, IVF, JOY 등의 단체들이 합세했으며 다양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204) Ibid., 137.

205) 정재영,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172-173. 저자는 평신도 교회론의 부상으로 교회에 평신도 역할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6) 송인규, “한국교회 큐티운동 다시보기,” 한국교회 탐구센터, *한국교회 큐티운동 다시보기* (서울: IVP, 2015), 193-200.

다. 대가족 중심의 집단주의 구조에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로 준 집단주의로 전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로 인해 가부장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느슨한 권위 문화로 변화, 각자의 개체성 및 주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 자아주의의 대두 등이 큐티 보급과 번성에 기여했음을 지적한다. 교회 내적으로는 제자훈련 내용에 큐티가 필수적으로 삽입되었기에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인 탓도 있었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전통적인 새벽기도를 더 좋아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에 장단점과 적실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된다.

#### 라. 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수적 감소와 영적 침체 현상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는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듯했다. 소그룹 혹은 셀 운동이 강화되고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미국의 우수 교회들이 만들어낸 좋은 프로그램들이 보급되면서 신앙 훈련에 체계와 깊이가 생겼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침체의 기로에 들어섰다. 이즈음 몇몇 커다란 교단들이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 한 바 있었다.<sup>207)</sup>

#### (1) 개신교 성도 수 감소

최근 종교인 통계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1985년부터 인구주택 총 조사를 매 10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개신교인 숫자가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1만 명으로, 통계 결과 15만 명 감소로 나오자 한국교회는 정 체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했다.<sup>208)</sup> 그 이후 여러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이 있어왔다.<sup>209)</sup> 그 진단 내용을 보면, 교회성장주의에 몰두

207)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1998)은 11명의 학자가 종교회학적, 선교신학적, 교회성장론적, 성경신학적, 한국교회사적, 종교학적 관점 등에서 분석과 대책을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물이다. 한국교회 문제연구소, 한국교회 성장침체의 현안과 심층 그 대안의 모색(서울: 솔로몬, 1996)

208) 이효상,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며”, onlin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15896&code=61221111&cp=du>

209) 각처에서 여러 시각으로 진단과 대안에 관한 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서울: 아레오바고, 2014);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 갔으며, 리더십의 한계와 전략의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가나안 성도’의 출현이었다.<sup>210)</sup> 한편 2015년 개신교 신자는 2005년 845만 명에서 10년 새 123만 명(15퍼센트)가량 늘어난 반면 불교 신자는 296만 명(28퍼센트) 감소하였고 천주교도 113만 명(23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sup>211)</sup> 실제로 각 교단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성도 감소였기에 더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sup>212)</sup> 이는 2015년 통계조사가 2005년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추출한 조사이기에 나오는 오차일 수도 있지만, 교단 통계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와 이단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목회사회 연구소 조성돈 교수는 판단하고 있다.<sup>213)</sup> 가나안 성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이마다 다양하게 추산된 숫자를 말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까지 그 숫자를 추산한다. 최근 GOOD TV NEWS 2018년 12월 7일자 방송 보도에서는 200만이라 추산한다고 보도했다.<sup>214)</sup>

## (2) 숫적 침체보다 심각한 영적침체

이러한 수적 통계와 분석은 한국교회 침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CTS TV가 2018년 8월 10일 방송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 기도원은 2,200여 개에 달할 만큼 부흥을 이뤘지만, 90년대 이후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이 급격히 감소해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것이 단적으로

---

강연안 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10)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IVP, 2015), 19.

211) “신자수, 개신교 1위… 국민 56% 종교없다” 기사에서 인용,  
Online: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1220/81941625/1>

212) “한국교회, 성도는 줄고 교회는 늘고” 방송 기사에서 인용.

Online: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39751> CTS TV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방송에서 주요교단들의 성도수가 감소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213) “2015 종교통계, 개신교 인구 증가 원인 분석” 기사 인용,

Online: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1>

214) “가나안 성도 200만…교회 떠나는 이유는?” 제목의 방송 기사에서 인용.

Online: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4626](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4626)

드러난다.<sup>215)</sup>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대표적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제자훈련에 대해 최근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향후 영성훈련 사역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 2. 기존의 제자훈련 평가와 향후 과제

### 가.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남긴 문제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자훈련은 8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의 중심에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커다랗게 성장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활기 있게 사역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훈련의 성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향력을 상실한 채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제자훈련이 지식 전달과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동에는 한계가 있다. 제자훈련이 하나의 양육 프로그램으로 환원되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교재의 내용 숙지와 단계별 성경연구 과정으로 수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sup>216)</sup> 이러한 제자훈련 교육 방식은 복음서의 그것과 거리가 있다.

둘째, 제자훈련이 신학적 조망과 성찰이 약하다 보니 교회 외적인 섬김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이 결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17)</sup>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내부 활동에 치중된 사람을 길러내고 말았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덕목을 갖추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내지 못했다. 실제로 정재영 교수는 옥한흠 목사의 CAL 세미나 내용에 우리 사회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옥한흠 목사는 스스로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았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남의 대형교회로 발전하면서 제자훈련의 근본정신도 탈색되었다고 비판받고 있다.<sup>218)</sup>

셋째, 제자훈련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215)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방송 기사에서 인용,  
Online: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37791>

216) 송인규,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140.

217) Ibid., 139.

218) 정재영,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 183-184.

프로그램은 주로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19)</sup> 이미 70년대에 교회성장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교회성장학의 이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220)</sup> 게다가 노만 필의 긍정적 사고 이론을 목회에 접목한 로버트 솔러의 교역이론이 함께 소개되어 시너지를 가져왔다. 이는 목회 현장에 시장경제 상황의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여 성공적 목회를 위한 이론이었다. 이러한 교회성장학파의 이론과 성공신학이 제자훈련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을 위한 상업적 방식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점이 되었다. 사실 양자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매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보건대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커다란 교회가 탐욕에 빠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 보급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에 큰 열매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노정시켜 왔음을 보게 된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기보다 정체되거나 탐욕에 휩싸여 덕스럽지 못한 행실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웃을 섬기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기여에 미흡한 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교회의 모습만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크릭교회가 자기진단하며 반성하는 보고서는 마치 한국교회의 자화상처럼 다가온다.

#### 나. 윌로우크릭교회의 영적 성장 실태 보고서가 주는 교훈

본 연구자는 2007년에 발표한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의 영적 성장 실태 보고서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상황이 단순히 한국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 목사는 교회의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동원해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sup>221)</sup> 이 연구 결과는 미국

219) 정재영,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사회학적 검토,” 177.

220)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132.

대형교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해온 한국교회에도 공감되는 바가 많음을 보여 준다.

윌로우크릭교회는 미국의 대표적 제자훈련과 각종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영향력 있는 큰 교회이다. 그렉 하위스(Greg L. Hawins)와 캘리 파킨슨(Cally Parkinson)은 영적 성장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조사했다. 단계별로 기독교를 알아감(24퍼센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37퍼센트), 그리스도를 닮아감(21퍼센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13퍼센트)의 분포도를 보였다.<sup>222)</sup>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 성장이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네 번째 단계에 진입한 분들 중에는 불만이 많아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미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sup>223)</sup> 조사 대상의 25퍼센트 이상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한편 불만족을 표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10퍼센트 정도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는 63퍼센트가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응한 것이다. 윌로우크릭교회는 미국에서도 프로그램과 훈련 수준이 최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이 더 깊고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일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만을 표출하는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20퍼센트만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그들 중 60퍼센트는 더 깊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반응이라 생각한다.<sup>224)</sup>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유리하거나 가나안 성도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예배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훈련보다는 영적 코치와 영적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sup>225)</sup>

221) Greg L. Hawins and Cally Parkinson, *발견(Reveal: Where are You?)*, 김창동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이 책을 윌로우크릭의 영적성장 실태보고서라는 부제로 출판되었다.

222) Hawins and Parking, *발견*, 38-47.

223) Ibid., 48-53.

224) Ibid., 54-55.

225) Ibid., 66-69.

#### 다. 제자훈련의 극복 과제와 대안 모색의 방향성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조사한 제자훈련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제자훈련에 거부감이 있는 성도들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자훈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제자훈련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성도들 중에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29퍼센트였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67.4퍼센트가 동의했다고 한다.<sup>226)</sup> 이는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자신들의 영적 필요에 부응하는 신앙 훈련을 고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제자훈련의 보완점<sup>227)</sup>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의 개선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의 자기성찰 심화이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 자신이 내면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여 바른 동기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제자훈련을 자신의 성취욕을 이루어내는 수단이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영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하나님나라의 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제자훈련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목회자의 내면의식의 흐름이 하나님나라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활동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지향하는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 결과가 교회 내 활동에 머무는 것은 바르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순리인 것은 자명한 성경의 원리이다.

넷째, 훈련의 형식과 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제자훈련의 형식과 내용이 모더니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실성이 떨어진다.<sup>228)</sup> 앞에서 잠시 언급한 그 많은 가나안 성도들의 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226) 정재영, “제자훈련에 관한 경험과 의식”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47.

227) 송인규,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147-149. 송인규 소장은 이 글에서 세 가지 내면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책의 앞의 세 가지는 송인규 소장의 제안을 토대로 했다.

228) 김지방, “포스트 모던시대의 제자훈련”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10.

있는 것일까? 가나안 성도들로 표현되는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존 교회의 구조와 권위에 의문을 가지고, 주일 성수와 같은 규율을 답답해한다.<sup>229)</sup>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교회는 겸허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들은 감성적인 터치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침묵과 묵상이 동반된 예전 형식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선호하며, 스스로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sup>230)</sup> 이는 향후 한국교회가 새롭게 구사해야 할 신앙 훈련의 중요한 요소를 말해준다.

다섯째, 탈 학습으로 기존의 제자훈련을 처음부터 재고하며 새로운 신앙 훈련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양희송 청어람 대표는 새로운 선택지로 나아가기 위해 탈학습을 주장한다. 그는 성장주의와 단계론적 사고를 탈학습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개인 신앙의 중요성과 신앙의 비선형적 발전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231)</sup> 이러한 혁신적인 사고는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전환점과 통찰을 가져다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송인규 소장은 제자훈련이 하나님나라의 의를 실현하는 삶으로의 변화라는 신학적 성찰이 심화되어야 하며, 목회자 자신의 내면적 동기 점검과 성찰이 심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자훈련이 외적인 변화 강조점을 넘어 내면의 영혼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지방 기자와 양희송 대표는 모더니즘 패러다임을 버리고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속에 전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의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미국의 이마고크리스티 사역을 창립한 토마스 아쉬브룩(Thomas Ashbrook) 목사이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라. 이마고크리스티 사역을 시작한 토마스 아쉬브룩(Thomas Ashbrook)의 대안적 접근

본인도 IVF에서 20여 년 제자훈련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253.

229) 조영돈, *한국교회를 그리다* (서울: CLC, 2016), 15.

230) Ibid., 23.

231) 양희송, “제자훈련의 전망과 대안”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265-267.

한계를 절감하였다. 특히 마지막 10여 년간 졸업생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필요는 더욱 절실함을 목도했다.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부터가 성장의 한계를 느끼며 정체와 퇴행의 나락을 빠져나올 방도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시절을 보내야 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오다가 한계에 부딪힐 경우 영성훈련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책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실체를 경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풀러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남가주의 여러 영성훈련 단체들이 주최하는 영성훈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영성훈련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면서, 능동적 영성훈련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머무는 수동적 영성훈련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통해 도전을 받아 영성훈련 목회를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아쉬브룩(Ashbrook) 목사가 만든 이마고크리스티 디스커버리 세미나를 참석하며 큰 도전과 유익을 얻었다.<sup>232)</sup>

아쉬브룩(Ashbrook)목사는 앞서 언급했던 ‘월로우크릭 교회의 영적 성장 실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sup>233)</sup>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미국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노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234)</sup> 다시 말해 미국의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영적 성장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있고, 지역교회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월로우크릭교회에서 드러난 성장의 정체와 불만과 진단은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신학적으로나 교회 훈련프로그램이나 미국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장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아쉬브룩(Ashbrook) 목사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는 아빌라의 테레사가 쓴 *영혼의 성*에 제시된 7개의 맨션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쉬브룩(Ashbrook)은 테레사의 7맨션 패러다임을 21세기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구체적인 단계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 과정을 설명해내어 영성훈련에 적용하고 있

232) 이마고크리스티([www.imagochristi.org](http://www.imagochristi.org))라는 단체는 Tom Ashbrook 목사가 자신의 오랜 목회 속에 한계를 느끼고 수도원 영성에서 도움을 받아 새롭게 개신교신학과 패러다임에 맞추어 영성훈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만든 단체이다. 그의 책 *Mansion of the Heart*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마고크리스티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 Thomas Ashbrook, *Mansion of the Hear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9), 18-19.

234) Ibid., 12.

었다.<sup>235)</sup> 그는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정으로서의 7맨션 패러다임을 설명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조명했다.<sup>236)</sup> 그는 7개의 맨션 패러다임이라는 영적 성장의 로드맵을 얻은 것을 넘어서 영적성장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수동적 영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37)</sup>

그가 말하고 있듯이 7개의 맨션 패러다임은 법칙이 아니라 안내서이며, 처방이 아니라 설명이다.<sup>238)</sup>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대략적인 그림과 방향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역동이다. 수동적 역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능동적 역동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개발할 영성훈련 프로그램에는 수동적 역동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방향을 다잡게 되었다.

## 제 2 절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한 영성훈련의 적실성

### 1.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개신교 수도영성에 대한 탐색

막상 2009년 3월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영성훈련을 준비하면서 두려움과 긴장이 앞섰다. 본인 자신이 영성훈련을 익히고 배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실제로 개인이 아닌 교회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배운 적도, 사례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톨릭 계통의 수도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낸 예가 사막의 수도승들이었다. 문제는 사막의 수도승들의 이야기가 한국 교단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야기라는 것이었기에, 자료들과 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과 숙고가 필요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성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고려하며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에 이미 사막의 수도승의 영성을 구현하고 실현하려

235) Ashbrook, *Mansion of the Heart*, 51-214.

236) Ibid., 25-26.

237) Ibid., 43.

238) Ibid., 44-45.



했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들의 시행착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다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실제로 찾아보니 고려해보아야 할 선례들이 있었다. 앞서간 선배들의 역사적 사례를 점검하면서 그들이 남긴 것과 놓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본인이 정리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을 적용하는 데 지혜와 통찰을 얻고자 한다.

#### 가. 자생적으로 나타난 금욕적 수도운동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개신교에도 사막의 수도승과 궤를 같이하는 자생적 기도원운동이 있었다. 70년대까지 나타난 개신교의 대표적인 자생적 기도원(수도원)은 이용도의 원산 신학원 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한수도원(강원도 철원), 황국주의 삼각산기도원(서울 북한산), 나운몽의 용문산기도원(경북 금릉), 오산리기도원(경기도 파주), 한얼산기도원(경기도 가평), 동광원(전북 남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중 본 논문의 맥락에 맞는 예를 선정하였다. 대한수도원과 용문산기도원은 극단적 신비주의와 이단으로 기울어졌기에 제외하였다. 오산리기도원과 한얼산기도원은 교회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훈련과 교육을 하는 일종의 교회부설 훈련센터의 역할을 했기에 전통적인 수도운동과는 거리가 있다.<sup>239)</sup>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중 성경묵상중심으로 노동과 섬김으로 단순한 영성을 고수하며 사막수도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동광원의 예를 주목하였다. 이세종 선생과 이현필 선생의 사역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한다.

##### (1) 이공 이세종 선생

이공(李空) 이세종 선생(1880-1942)부터 살펴본다. 이공 선생은 독수도를 시작하여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다.<sup>240)</sup> 현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여 머슴살이를 하였다. 근면 성실하고 힘이 장사였기에 등짐장사와 목화 재배를 하는 등 10년을 열심히 일해 그 지역에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 산당을 짓고 무당을 데려다가 1년을 굶으면서 치성을 드렸으나 허사였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고, 레위기를 읽다가 자신이

239) 이성용, “해방후 한국기도원 운동,” 60-107.

240) 서재룡, “호남지방 기독교 영성운동에 관한 연구” (Ph. D. diss., 강남대학교, 2012), 34-52. 이 부분에서 서재룡은 이세종 선생의 생애와 영성을 정리하고 있다.

산당을 짓고 무당을 데려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개종하게 되었다.<sup>241)</sup> 그 이후 이세종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19:21)에 순종하여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대목에서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승의 아버지 안토니우스를 기억하게 한다.<sup>242)</sup> 그는 안토니우스처럼 남은 평생 금욕하며 독수도를 하였고 여러 제자들을 남기고 1942년 2월 62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그는 성경만 읽고 그 외의 책은 일체 읽지 않았다. 오로지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경 중심의 단순한 독거의 영성과 금욕의 영성을 고수하였던 인물이었다. 그의 제자들인 최응중, 강순명, 이현필 등은 훗날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2) 이현필 선생

이세종 선생의 제자 이현필 선생(1913-1964)이 세운 동광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sup>243)</sup>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家境이 어려워 전남 나주시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아갔다. 거기서 스가나미라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어 그의 교회에서 1930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sup>244)</sup> 이듬해에 방산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이세종 선생을 만나 그의 성경연구 모임에 참석해 은혜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세종 선생으로부터 ‘성경만 읽으며 신앙생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세종 선생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공부한 사람이기에 때로 영해를 통한 치우친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결혼한 사람은 해혼<sup>245)</sup>하고 결혼 안

241) 서재룡, “호남지방 기독교 영성운동에 관한 연구,” 37-38.

242) “한국개신교에도 성자가 있다 - 이세종의 삶 조명” 한겨레 2014.11.23. 기사에서 인용. Online: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65728.html> 이세종 선생 기념사업회는 2014년 10월 28일 세미나를 열고 이세종 선생을 이집트의 은둔 수도승 안토니우스와 연결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243) 서재룡, “호남지방 기독교 영성운동에 관한 연구,” 118-141. 서재룡은 여기서 이현필의 생애와 행적과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있다. 이후 내용은 여기서 발췌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244) Ibid., 120. 스가나미는 일본의 무교회주의 신학으로 잘 알려진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였고, 당시 나주에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는데 스가나미는 그곳에서 자비를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매주 예배를 인도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245) 해혼(解婚)이란 분망하여 성생활을 하지 않고 오누이처럼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세종 선생은 아내와 해혼하고 살아갔다. 결국 아내가 출가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등 파란을 겪었으나 훗날 선생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합쳐 오누이처럼 살았다 한다.

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이현필 선생은 고민을 하다 이세종 선생을 떠난다.<sup>246)</sup>

이후 강순명을 따라 광주YMCA 농촌부에 들어가 농업을 배운다. 여기서 배운 농사 기술은 훗날 동광원이라는 수도공동체에 사용된다. 이곳에서 이세종 선생의 제자 강순명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강순명으로부터 이웃 사랑 실천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예수처럼 사는 삶을 배웠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YMCA 야간부 영어과에 등록하고, 아현동에 있는 아현교회를 출석한다. 당시 아현교회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김현봉 목사가 시무하고 있었는데 그에게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과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관을 배우게 된다.<sup>247)</sup>

이후 이현필은 지리산 자락의 서리내로 들어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며 기도 생활에 몰두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수도공동체 사역의 효시가 된다. 여순 반란 사태(1948년)로 고아가 늘어나자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려고 동광원을 창설한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품을 거절하고, 성경만 가르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고아들을 다른 곳에 보내게 된다. 그러자 동광원이란 이름으로 수도공동체를 창설한다. 이 수도공동체가 한국개신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수도공동체였다.

동광원은 노동 수도 공동체로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낮 시간에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저녁예배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성경공부와 묵상을 하는 것이 수도원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자생적인 수도공동체인 데다 이현필 선생이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기에 그 한계 속에서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수도생활에 임했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승들 중 최초로 공동수도원을 설립한 파코미우스가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다. 파코미우스도 안토니우스의 제자이지만 독수도회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공동수도회를 창설하였던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후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한 귀일원을 창설하여 구제 사역과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갑바도기아 가이사라의 바실리우스 공동수도원과 그 맥을 함께

246) 서재룡, “호남지방 기독교 영성운동에 관한 연구,” 125-126. 훗날 이현필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세종선생은 안타까워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서도 오누이처럼 지내고 금욕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였다 한다. 2년 후 아내가 자궁 외 임신을 하여 고생한 후 이현필은 해혼을 하였다.

247) Ibid., 123.

하고 있음을 본다. 성령께서 3-4세기에 이집트 사막에서 하신 일을 일제 강점기에 지리산 자락에서 동일하게 수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신 것이었다. 동광원과 귀일원은 1964년 이현필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3) 엄두섭 목사

엄두섭 목사(1919-2016)와 은성수도원 사례도 중요하다. 엄두섭牧사는 이현필 선생이 소천하시고 나서 동광원을 방문하여 이 선생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 특히 정원세 선생의 영향을 받아 수도생활에 대한 도전과 가르침을 얻었다.<sup>248)</sup> 엄두섭 목사 스스로가 40여 년 동안 동광원을 쫓아다니던 일을 참 잘한 일이라 여긴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수도생활을 열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sup>249)</sup> 그는 수도원에 대한 오랜 열망 끝에 나이 60이 되던 해인 1979년 경기도 포천 운악산 기슭에 은성수도원을 설립한다. 그곳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노동하며 수도원을 일구어 갔다.

엄두섭은 노동과 기도를 조화시키는 전통적 수도원의 영성을 수련하며 사역하였다. 그의 성무일과는 저녁 9시에 취침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종을 치고 영적 독서를 하며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전 8시에 아침식사를 침묵 속에 하고 나서 오전 오후 노동을 한다.<sup>250)</sup> 그는 특별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노동하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은성수도원을 운영하고,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도공동체를 일구며 20년 동안 섬겼다. 오늘날 우수한 신학자들과 정교한 성경공부와 설교학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서도 유약하고 세속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경종이 된다. 나이 80이 되던 1999년 수도원을 장신대에 기증하여 신학생들의 영성훈련원으로 사용하게 하고는 서울로 상경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지난 2016년 향년 97세로 소천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갈망으로 살다 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

### (4) 이세종, 이현필, 엄두섭이 남긴 유산과 교훈

이들을 통해 3-5세기 사막의 수도승들의 삶과 영성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근접하

248) 엄두섭, *한국적 영성* (서울: 은성, 2006), 17,19,194.

249) Ibid., 194.

250) Ibid., 37-39.

기 힘든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상 일회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을 통해 해당 지역 교회에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영성을 불어넣으시는 섭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세종, 이현필 선생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경 본문 중심의 영성생활의 힘이 지대하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사막의 수도승들의 영성 생활에서도 본질적인 위치를 점하는 DNA였다. 이세종 선생의 경우 신학훈련을 받지 못해 치우친 성경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철저히 성경연구와 묵상과 기도로 일관함으로써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며,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제자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후학들은 주목해야 한다.

둘째로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나라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라는 사실이다. 서양 수도원 역사에 나타나는 특별한 기도 방법론과 신학적 작업이 없어도 살아 있는 기독영성을 구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열매가 매우 튼실하게 맺혀 있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기독교 전통에 맞닿아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이 물량주의와 탐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일찍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재발견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세종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으며, 이현필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접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된다.

엄두섭 목사는 이세종, 이현필 다음 세대로서 수도원운동을 계승한 열정과 헌신이 돋보인다. 나이 60세에 농사일에 경험이 없는 목사가 지게 지고 나무를 베고 돌을 골라내려고 바위를 굴리다 여러 차례 손을 찔렀다. 맨발에 양말을 안 신고 다니길 15년, 머리를 삭발하고 다녔다. 20년 동안 그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일도 없이 일구어갔다고 전해지니 그 열정과 헌신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sup>251)</sup> 엄두

251) 엄두섭, *한국적 영성*, 44.

섭 목사가 후배들에게 남긴 유산은 한국적 영성을 추적하고 통합하고 자료를 남기며 신학화 작업을 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을 제공한 것이다.

엄두섭 목사의 노력으로 비로소 이세종, 이현필의 생애가 기록되고 알려졌다.<sup>252)</sup> 그리하여 21세기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순수한 열망을 일깨운다. 엄두섭 목사의 수도권 기도생활은 분명 이세종과 이현필보다 진일보하였다. 앞의 두 분과 달리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엄두섭 목사는 영성신학을 스스로 독학으로 정립하면서 길을 닦아가며 고군분투한 영적 투사였다. 그의 경험과 사례는 이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 구체적 사례와 통찰을 남겨주었다.

#### (5) 세 분의 삶과 영성을 통해 얻은 적용점

위 세 분의 삶과 영성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유익과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와 영성훈련은 기술과 방법론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고난 속에서 더욱 그 진가와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형태와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에도 드러난다. 깊이 있고 잘 준비된 리더 하나가 여러 영혼들에게 지속적이고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은 이미 한국에 상륙해 있었다.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도 방법과 영성훈련 방법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 2. 교회 내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들

모든 교회를 전수 조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책자로 발간된 사례 두 개를 발견했다. 이필준 목사의 수도권적 교회공동체 사역과 권희순 목사의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두 자료의 특성은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전체 여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은 옥한흠 목사의 성공적 사역

252) 엄두섭, *호세아를 닮은 성자* (서울: 은성, 1987) 이 책을 통해 이세종 선생의 일대기를 조명했으며, *팬발의 성자* (서울: 은성, 1990) 이 책을 통해 이현필 선생 일대기를 조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현필 문집과 필담과 일기를 묶어, *순결의 길 초월의 길* (서울: 은성, 1993)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선교단체 방법론을 전통적 목회의 틀 안에 정착시켰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제자훈련의 목회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이다.”<sup>253)</sup> 이러한 분석은 현장 사역을 하는 경우 현실감과 구체적 실행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인데, 위의 두 자료는 본인이 처음 영성훈련 사역을 시작할 때 필요로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

가. 이필준 목사의 수도권적 교회공동체 사역<sup>254)</sup>

이필준 목사의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은 이필준 목사 자신이 시무하고 있었던 교회(안중제일교회)에 수도권적 교회공동체 모델을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바를 기록했던 실천신학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sup>255)</sup> 이필준 목사는 먼저 사막의 수도승으로부터 시작된 수도원의 기원과 역사적 흐름과 역할을 책 전반부에 정리함으로써 역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고자 했다.<sup>256)</sup> 그는 개신교가 수도권 운동의 단절 속에서 시작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당시 수도원이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근본을 부정하는 이신칭의 구원론을 제창했다. 이는 당시 수도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개신교 지역의 수많은 수도원이 영주들에 의해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257)</sup>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배경이 개신교에서 수도원이 중요시 여겨지

253) 송인규,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137.

254)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생명의 씨앗, 2007), 119-163. 당시 안중제일교회 담임목사였던 이필준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수도권적 공동체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그의 목회학 박사학위논문과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255) 이필준 목사는 2006년 6월에 “수도원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란 제하에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 실천신학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논문 내용이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와 유사하므로 학위논문을 손질하여 책으로 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안중제일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수년 전에 이미 사임하고 다른 분이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필준 목사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저 책 자료에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256)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15-42.

257) Ibid., 31.

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많은 수도원이 세속화되어 타락해 있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이 개혁되고 새로운 수도원운동을 발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이 목사는 주목하고 있다. 수도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세의 수도원이 부유하고 고유한 순수성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막의 수도승의 기도운동과 수도운동을 다시 재발견하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필준 목사는 수도원적 교회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설정한 후에 교회의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258)</sup>

- 1단계: 입교인 교육과 새 가족 교육
- 2단계: 세례자 교육 / 기록한 독서(QT 교육) 훈련
- 3단계: 제자훈련과 성무일도 훈련
- 4단계: 리더십 학교와 수도원 훈련(청원기, 수련기) / 영적 지도 훈련
- 5단계: 헌신자 학교와 수도헌신 훈련(유기서원)
- 6단계: 종신서원
- 7단계: 평생교육과정

이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에서 영성훈련을 교회 성도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바를 정리한다.

첫째, 2단계에서 기록한 독서라 불리는 렉시오디비나를 훈련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이다. 렉시오디비나는 모던 패러다임의 성격이 강한 QT와 역동이 좀 다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QT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완전히 QT로 대체될 수 없듯이 QT도 렉시오디비나로 완전 대체될 수 없다. 개개인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 본인도 아람드리교회에서 이 둘을 병행하면서 개개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3단계의 훈련 내용을 보면 제자훈련과 성무일도 훈련을 받도록 설정했다.

258)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148-150.



여기에서 이필준 목사는 제자훈련에 예외를 둔다. 제자훈련은 지적인 훈련에 비중이 큰 훈련이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의 성도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본다. 수도공동체 일원이 된 모든 성도들은 3단계까지 필수로 하고 있고, 제자훈련은 선택이나 성무일도 훈련은 필수로 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셋째, 이필준 목사가 제시하는 성무일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안중제일교회 성무일도(수도원적 매일일과표)<sup>259)</sup>

시간별	기도 내용
아침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기도와 성찰의 시간 (30분이상): 동절기 오전5:00 하절기 오전4:30</li> <li>▷ &lt;아침기도서&gt;를 만들어 모델로 쓴다.</li> <li>▷ &lt;렉시오디비나&gt; 혹은 QT를 한다. 매일 새벽기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li> </ul>
낮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기도(3-5분): 12:00</li> <li>▷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생활을 살피는 &lt;자신의 영성&gt;을 위한 기도와</li> <li>▷ &lt;세계와 나라와 직장과 지역사회&gt;를 위한 기도드리기</li> <li>▷ &lt;공동체 공동기도문&gt;을 준비한다.</li> </ul>
저녁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녁기도(10-30분): 22:00-23:00</li> <li>▷ 취침 전 &lt;성찰기도&gt; 드리기</li> <li>▷ 인터넷으로 성찰을 이끄는 기도문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lt;영적 지도&gt;를 받는다.</li> <li>▷ 꼭 주어진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기도는 가정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다.</li> </ul>

259)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135.

이 성무일도 프로그램은 우선 하루 세 번 기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례를 적용한 것이라 생각되어 적절하다 판단된다. 일반 수도원에서는 하루 4-9번까지의 기도회 시간을 갖는다. 하루 세 번은 처음에는 번거롭긴 해도 익숙해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훈련반응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점심기도 시간을 3-5분 정도 실시하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시간 수치라 생각된다.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 영적 밀도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아람드리교회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활용했는데 유익이 컸다. 다음은 기도문 사용에 대한 것인데 일부 성도들은 기도문 사용에 매우 유익을 누리며 은혜를 받으나 또 다른 성도들은 부자유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꼭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적절한 가이드이다.

넷째, 4 단계의 리더십 교육과 수도원 훈련에서 수덕적 봉사와 신학과 교회사 교육, 성서대학교육과 영적 지도 교육 훈련을 설정해두고 있다.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하고 있다. 수덕생활과 수덕적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제자훈련이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없어서 더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다섯째, 교회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다. 5-7단계는 거의 수도사로서 헌신하는 틀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고급 과정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지역교회와 수도공동체가 하나인 경우는 켈틱 교회가 유일하다. 이필준 목사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들백교회가 성도의 분류를 지역주민 → 마당교인 → 세례교인 → 헌신자 → 핵심교인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이 목사는 교회적 역동: 지역교인 → 마당교인 → 입교인 → 세례교인 → 성무일도 교인 vs 수도원적 역동 : 지역주민 → 성무일도 교인 → 재속수도사(유기서원) → 종신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60)</sup> 이러한 도식적 이해를 보면 이필준 목사가 교회 내에 수도원과 교회가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발전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영리한 통합적 통찰이 있음을 본다. 어떠한 역동이 일어날지는 성장하면서 지켜보면서 대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안중제일교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모르나 현재 교회 홈페이지

260)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144-145.

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가 보이지 않고, 담임목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 모델은 수도권 모델이 어느 정도 진척될 때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 형태로 보인다. 다만 도전이 되는 것은 성무일도를 행하는 교인이 세례교인보다 많은 숫자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계시다는 것이다. 켈틱 교회가 이루어내었던 꿈이었다.

마지막 여섯째, 성경연구와 묵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사막의 수도승이 구가했던 영성의 역동과 한국의 이세종 선생과 이현필 선생들이 보여주었던 영성의 역동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는 데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동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면 영성훈련이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나. 권희순 교수의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sup>261)</sup>

권희순 교수의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얻을 수 있기에 큰 유익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이 책의 존재를 알고 구입해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실례가 있는 것에 호감을 느꼈다. 권 교수는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기도법을 소개하고 있으며<sup>262)</sup>, 그것을 자신이 웨슬리의 저작들에서 발견하여 적용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있다. 권 교수는 자신이 연구 실천하며 개발한 7주에 걸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 (1)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요 파악

<표 2> 7주에 걸친 각 주의 주제제목과 당일 순서<sup>263)</sup>

주차	주제제목
첫째주	선재적 은총
둘째주	회개의 은총

261)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서울: KMC, 2006).

262) Ibid., 86-102. 여기서 권 교수는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에 접목한 역사적 기도법으로서 성서와 함께 기도하기, 본회퍼의 말씀묵상, 이미지 기도, 렉시오디비나, T.R.I.P. 기도법, 센터링침묵기도, 예수기도 화살기도, 자기성찰 등의 기도법을 소개하고 있다.

263) Ibid., 106-165. 권 교수는 7개 주에 대한 주제와 당일 순서와 주중 개인 묵상자료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세째주	의롭다 하심의 은총
네째주	거듭남의 은총
다섯째주	성화의 은총
여섯째주	기독자의 완전
일곱째주	나눔과 정리 그리고 계획

&lt;표 3&gt; 당일 운영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양</li> <li>▷ 한 주간의 영성훈련 소감을 그룹별로 나눔</li> <li>▷ 해당 묵상법에 따른 묵상 후 그룹별 나눔</li> <li>▷ 밴드 모임의 규칙과 지침을 함께 읽음</li> <li>▷ 개인 영성수련에 대한 안내 - 성만찬</li> </ul>
--

<표 4> 성화 훈련을 위한 경건일기<sup>264)</sup>

수련 종류	작성 내용
경건의 수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li> <li>▷ 오늘 묵상하는 성경말씀</li> <li>▷ 오늘 묵상 중에 주신 말씀 / 깨달음</li> </ul>
자비의 수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삶에 대한 성찰: “웨슬리의 경건생활을 위한 자기성찰”</li> <li>▷ 오늘 해야 할 봉사</li> <li>▷ 성화 훈련을 위한 영적 결단 및 기도제목</li> <li>▷ 중보기도 제목 및 기도 대상자 명단</li> </ul>

264)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103.

<표 5> 매일 하는 개인 영성수련을 위한 지침<sup>265)</sup>

- ▷ 교회의 모든 집회와 예배에 참여한다.
- ▷ 매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적어도 30분)
- ▷ 성경을 읽고 매일 매 시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른다.
- ▷ 매일 침묵기도한다.(적어도 5분, 센터링 침묵기도 혹은 예수기도).
- ▷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한다.(자신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오후 3시까지, 혹은 점심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 등 시간을 정한다. 또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만 절제하든지 절식할 수도 있다.)
- ▷ *영적훈련과 성장*(리처드 포스터)을 매일 적당한 분량을 정해 읽는다.
- ▷ 경건일기를 쓰며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오셔서 인도하고 말씀하셨는지를 경건일기에 기록한다. 또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정리한다.(웨슬리의 ‘경건생활을 위한 자기성찰’ 참조, 적어도 15분 정도 필요함)
- ▷ 하루에 한 가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일, 남을 위한 온전한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한다.(병자 방문, 소외된 사람과의 대화,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전화하기, 교회봉사, 친절함 태도와 언사, 미소 짓기, 동냥 구하는 이를 거절하지 않기, 감사편지 쓰기 등)
- ▷ 기도 파트너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경험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눈다.
- ▷ 일과 속에 화살기도를 연습한다.

(2) 웨슬리 영성프로그램의 도입과 적용 검토

권 교수의 영성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첫째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교회 전체가 어떠한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접목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다. 개척 상황이라 더 그랬지만 전체의 구도가 있어야 역동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았다. 본 연구자는 앞서 연구하여 정리

265)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115.

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의 틀 속에서 말씀묵상 중심의 영성훈련 과정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둘째로, 웨슬리와 다른 신학을 견지하는 장로교 신학 배경과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가이다. 장로교 합동 측 소속 목사인 내가 개척하는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적실한가를 질문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는 권 교수 자신이 책의 서론에서 이나시오 영성훈련을 수행하면서 개신교이자 감리교의 신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다.<sup>266)</sup>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기도에 대하여 자료를 구해 정리하면서 본인의 개척 상황에 접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셋째로, 각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속도가 빠르고 분주한 일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적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실천도 해보았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저자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 연구자가 확신을 가지고 다 실천해보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혹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교회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자신이 아는 한 아직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례를 볼 수 없어 고민한 끝에 이 자료를 본인의 교회 상황과 장로교 신학에 맞게 수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나의 사역 경험에 비추어 침묵하고 조금씩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여러 차례 훈련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후 소개할 ‘개혁주의 구원서정’에 기초한 ‘아름드리교회 영성훈련 I’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로, 초심자인 본인과 권희순 교수와의 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권 교수는 자신이 이 영성훈련에 몰입하게 된 계기로 간절한 개인적인 영적 갈망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sup>267)</sup> 본인도 20여 년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 간사로 섬기면서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다가 건강을 잃고, 사역지를 떠나 미국 LA에 머물면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 힘써온 시간들이 있었다. 그 결과 영성훈련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본인의 20여 년의 사역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권 교수의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권 교수의 권면에 힘을 얻고 이 프로그램을

266)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3-4.

267) Ibid., 3, 72.

도입하게 되었다.

### (3)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한계와 과제

권희순 교수는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게 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게 하는 데 영성수련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68)</sup>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나로는 한계가 크다. 이 프로그램은 말씀묵상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도움을 얻는 데는 유익할 수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본인으로서의 전체적인 역동을 고려해야 하나 전체 그림과 역동을 예상할 수 없기에 막막했다.

성경연구와 묵상을 어떻게 심화시켜야 하며,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전 여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적성장을 해 나가는 사역을 펼쳐가야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그림과 체계를 잡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이필준 목사의 수도원영성공동체 사역이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는 하나,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가야 하는 본인에게는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웠다. 두 분의 작품을 통합하여 교회공동체 전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세워가며 인생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훈련 과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 (4) 루터와 칼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점검

이 장의 논의를 정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웨슬리의 영성수련법이 이 프로그램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는 장로교 목사이고, 개척하려는 교회가 장로교 합동 측이기 때문이었다. 칼빈주의 계통의 학교에서 학위를 하시고 영성훈련에 관심이 있었던 분에게 문의를 드렸지만 자신이 아는 바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셨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았다. 본인이 적용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68)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72.

## (가) 루터의 기도 가르침

루터 자신이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이었으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다. 하루 두 번 기도할 것과 말씀묵상을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기도법을 가르쳤다. 주목할 만한 것은 루터는 주님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말씀 암송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리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9)</sup> 이것은 사막의 수도승들이 하였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특별히 루터는 주기도문 기도와 함께 네 줄기 화환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묵상-감사-고백-기도라는 순서로 기도하라는 것이다.<sup>270)</sup>

그런데 이 루터 기도법을 권희순 교수가 영성훈련에 도입하고 있다.<sup>271)</sup> 권희순 교수는 감사 회개 중보 행동계획이라는 T.R.I.P 기도법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루터교회가 루터의 화환기도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 (나) 칼빈의 기도 가르침

칼빈의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기독교 강요*의 기도에 관련된 부분에 요약된 기도의 유익과 올바른 기도의 법칙에서 칼빈이 생각한 기도 원리들을 만나게 된다.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 사람이다. 그 시대에는 교리와 신학적 논쟁의 시대였기에 성경주석과 조직신학에 힘을 기울이며 개신교의 신학적 틀과 신앙적 근거 마련에 매진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 방법보다는 원리를 정리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여섯 가지 유익과 법칙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sup>272)</sup> 칼빈이 말하는 기도의 여섯 가지 유익은 다음과 같다.<sup>273)</sup>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269) Timothy Keller, *팀켈러의 기도(Prayer)* (서울: 두란노, 2015), 134-135.

270) Ibid., 136,139

271)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98.

27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제3권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16-509.

273) Calvin, *기독교강요 제3권*, 419.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넷째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다섯째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여섯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 확증하게 해준다. 이러한 유익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 진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유익의 경우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이며 나머지 둘째부터 여섯째까지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친밀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유익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칼빈이 말한 네 가지 기도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sup>274)</sup>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필요를 절감하며 통회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넷째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이 법칙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인간 스스로의 심각한 존재적 결핍을 인식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사막의 수도승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칼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특이할 것이 없는 전통적 기도 원리를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칼빈에게서 성경에 근거한 기도와 영성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성경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불살라가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사막의 수도승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며 묵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체화하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열정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자생적 수도승의 삶을 살아냈던 이세종 선생과 이현필 선생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것이다. 실제로 중세의 기도생활은 성경 중심적이지 않았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성도들의 중보자이심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중보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도를 넘어 성자를 숭배하거나 구약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는 등 성경에 어그러지는 행태가 기도 응답을

274) Calvin, *기독교강요 제3권*, 419-433.

바라는 요행심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칼빈이 바로잡고 있다.<sup>275)</sup> 게다가 공적기도가 모국어로 드러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기도문이나 방언과 같은 기도로 드러지는 것을 하나님과 기도자의 인격적 교제라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경계하였다.<sup>276)</sup>

결론적으로 칼빈은 성경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기도 신학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바른 기도의 원리와 신학이 정립되는 것이야말로 칼빈에게서 본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었다. 말씀중심의 영성훈련의 기초를 놓는 것이 본인의 사역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어야 함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제 3 절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을 구축하기

본 연구자는 이 장에서 현 한국교회의 신앙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사막의 수도승들에 의해 구체화된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한 영성훈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더군다나 한국에 이미 성령님의 역사로 사막의 수도승의 삶과 영성을 구사하는 개신교 수도운동이 상륙해있었으며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사막의 수도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영성운동이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역사적 인물을 추적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연구와 분석을 종합해보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성훈련 사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경험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1. 상황과 신학적 판단

##### 가. 상황판단

첫째, 기존 제자훈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 훈련 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둘째,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은 이미 한국에 상륙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사막의 수도영성의 씨를 심어놓고 키워오고 계셨다. 이는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한국교회에도 수도운동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성령의 역사요 증거이다.

275) Calvin, *기독교강요 제3권*, 450-466.

276) Ibid., 476-479.

## 나. 신학적 판단

첫째, 성경본문 중심의 영성생활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의 심장부 엔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진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영성신학을 깊게 정립해가야 이 영성훈련이 지속적인 힘과 역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구현과 함께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건강한 기독교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 2. 실제적 훈련 지침

첫째, 하나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영적 갈망이 영성훈련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 정신이 사람의 내면 역동을 견인해가는 것이지 기술과 방법론이 사람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양질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 사항이기도 했다. 기도와 영성훈련은 기술과 방법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므로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영성훈련은 고난 속에서 더욱 그 진가와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성장시켜가는 수동적 역동을 익혀가게 하고, 영성훈련 로드맵을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다섯째, 생애 전 주기를 이어가는 영적 여정의 내적 역동과 하나님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이 땅에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외적 역동을 아우르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도 방법과 영성훈련 방법은 역사적 전통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때 앞에서 연구하여 얻은 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선별 지침이 필요하다.

### 3.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침

위의 정리된 사항을 기초로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첫째,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진 원리 중심으로 실천한다.

둘째, 스파르타식 제자훈련이 아닌 자유롭고 자발적인 진행과 쌍방소통의 분위기 가운데 인격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기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히 보완하여 아름답드리교회 고유의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간다.

넷째, 묵상과 기도에 능동적인 역동과 수동적인 역동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정체성과 영적 여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상황과 문화에 적실성 있도록 강의보다는 워크숍과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훈련 내용과 방식을 고안한다.

일곱째, 강의 내용이 수준 높고 흥미진진하게 진행,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자료의 질과 수준을 일반 회사의 교육 수준에 맞춘다. 이를 위해 소정의 회비를 받아 운영한다.

여덟째,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응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

아홉째, 하루 세 번 기도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QT와 렉시오디비나의 병행을 시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적 신학적 판단과 실제적 훈련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 지침을 정리하고 나니 앞에서 언급한 네 방향 기도 원리에 입각한 영성훈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제 아름답드리교회의 영성훈련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기초로 아름답드리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한 영성훈련을 실천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어떠한 효과와 유익을 경험했는지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 제 5 장

## 영성훈련 중심의 아람드리교회 개척 사례

## 제 1 절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 적용 모델 청사진

## 1. 아람드리교회 개척 상황: 2009년 3월 1일 창립

처음 시도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것은 무모한 결정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아직 영성훈련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3, 4년 정도 실험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다행히 교회 개척 멤버가 과거에 본인이 섬겼던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중 결혼한 30-40대 열다섯 부부와 약간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어 주어서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시작하면서 본인의 교회 개척 방향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개척 멤버들과 워크숍을 통해 다음과 같은 비전선언문과 6대 핵심가치를 설정하였다.

## &lt;아람드리교회의 비전선언문&gt;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 이 땅에 넘쳐나게 하라”

## &lt;6대 핵심가치&gt;

- (1)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
- (2) 내면화된 자기 사명과 유업
- (3) 살아 있는 예배
- (4)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

- (5) 능력의 복음
- (6) 변혁과 섬김의 삶

이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는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부요하여”라는 부분이다. 이는 영성훈련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고, 아람드리교회가 추구하는 영성훈련의 구체적 표현은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내면화된 자기 사명과 유업’이다. 전자는 영적 성숙의 내면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영성 성숙의 외면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영성훈련은 내면과 외면이 통합화되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열매가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땅에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였다.

## 2. 네 방향 기도 원리를 반영한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 모델

앞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설정한 영성훈련 모델에 다음과 같은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갔다. 물론 처음부터 전체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출범한 것이 아니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만들어 실행하며 성도들의 반응을 평가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다.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도 처음에는 6대 핵심 원리로 정리하여 적용하여오다가 점점 더 깊고 분명하게 성경의 원리가 정리되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수직적 방향(하나님과의 관계)

- (1) 기도 포인트: 주기도문 기도, 시편기도, 말씀묵상 기도, 부르짖는 기도, 화살 기도, 철야기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 (2) 프로그램 : 성경의 맥과 열개(구약 I, II 신약I, II) / 성경의 맥통독,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I, II(8주), 베이직 기도 세미나(5주), 이마고 크리스티 위클리 워크숍

### 나. 수평적 방향(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 (1) 기도 포인트: 중보기도, 영적 싸움을 위한 치유와 대적기도, 화살기도, 새벽 기도, 용서의 기도, 철야기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

(2) 프로그램: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I, FIC(Freedom In Christ) 집중 과정, 견고한 진 부수기 40일 프로젝트, 장애인 돕기와 낙도 오지봉사 활동, 중보기도 세미나, 인생설계학교와 아브라함 학교

다. 내향적 방향(성찰과 고백, 그리고 자기 존재를 세우기)

(1) 기도 포인트: 침묵기도, 예수기도, 죽음에 대한 묵상기도, 금식기도, 참회의 기도, 시편기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

(2) 프로그램: 3박4일 명절 리트릿, 7박8일 해외 영성여행,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 I, II(8주),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성찰

라. 통합적 방향(모든 기도를 포괄하는 역동의 중심 잡기)

(1) 기도 포인트: 시편기도, 주기도문 기도, 말씀묵상 기도, 침묵기도, 예수기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기도, 화살기도, 항상 기도, 어울러 하루 세 번 기도 생활화하기.

(2) 프로그램: 가만주알 리트릿 I,II, 아브라함학교, 영성훈련 수칙에 따른 기도생활, 수칙 주간저널 나눔 소그룹

### 3.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프로그램 3단계 개발 과정

위와 같은 모델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축해가며 교회를 개척하며 규모를 잡아왔다.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중 세 개의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도입해서 영성훈련 모드에 맞게 상황화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유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를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 기반 마련 단계(2009-2010년): 성경묵상 중심의 영성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를 말한다.

2단계 내용과 균형을 잡아가는 단계(2010-2016년): 수직, 수평, 내향 세 방향의 균형을 잡아가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는 단계이다.

3단계 통합과 성장의 단계(2017-2019): 통합의 방향을 완성하여 네 방향 전체의 역동적 통합을 이루어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이다.

그러면 제시한 프로그램들의 구축 과정과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그리고 반응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역동을 갖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본인이 새로 개발한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따른 영성훈련의 틀과 형태를 잡아가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었던 바를 정리하며 분석해보고자 한다.

## 제 2 절 성경묵상 중심의 영성훈련 기반 마련하기(2009-2010년)

처음에는 영성훈련 중심의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묵상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에 가장 힘을 기울였다. 성경말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묵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성훈련 목회가 힘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 제시로 끝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2년간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전력하였다.

### 1. 성경의 맥과 열개

앞의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성경이 지적인 책이 아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새 가족이 오면 등록하기 전 3주에 걸쳐서 새 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중 두 번을 말씀묵상과 기도에 할애하였다. 이때 QT와 더불어 렉시오디비나를 가르치면서 묵상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치며 도전하였다.<sup>277)</sup> 궁극적으로 성경연구의 목적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 만들어진 작품이 ‘성경의 맥과 열개’이다.

‘언약으로 일구어지는 하나님나라’라는 중요한 주제로 성경 66권 전체의 맥락을

277) 오방식, “현대 관상기도 이해,” 한국기독교 영성학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8), 388-389. 오방식 교수는 이곳에서 렉시오디비나가 초기 그리스도시대부터 평신도와 수도자들에게 권장된 기도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한편 QT가 추리적 묵상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렉시오디비나는 추리적 묵상과 더불어 정감적인 요소가 강조된 형태라고 하고 있다. 이필준 목사의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묵상을 실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깨끗으면서 각 권에 그 주제가 어떻게 짜임새 있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만든 일종의 성경 개관 프로그램이다. 성경을 연구하되 부분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 각 권과 장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성경 전체의 사상이 정리가 되며 우리의 다양한 삶의 지평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면 목상이 깊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년이란 시간을 쏟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구약 총 27개 강좌와 초대교회 정통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신학적 영성적 강좌가 9개로 구성되어, 90분 한 강좌로 해서 총 36개 강좌로 구성되도록 만들었다.

#### 가. 강좌의 내용적 특성

첫째, 입체적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연결시키려 힘을 기울였다.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화적 배경 속에 성경 내용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지도와 사진과 도표와 도식을 활용하여 파워포인트 자료와 수강자용 워크북을 제작하였다.

둘째, 한국의 소장파 성경신학자들의 최근 연구 업적을 반영하였다. 2010년 현재 발간되어 있는 복음주의권 한국 성경신학자들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규모를 갖추어 신뢰도 있게 전달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성경연구 방법론<sup>278)</sup>을 접목하여 본인이 지난 20여 년간 개인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을 담아내며 다채롭게 조명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업데이트 하였다.

셋째, 영성훈련의 기초적 배경과 구체적 기도법을 가미하여 구성했다. 가령 레위기를 영성생활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시편에서 시편기도를 언급하고 가르치며, 복음서에서 렉시오디비나를 적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영성훈련의 서론적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꾸몄다.

278) 이재천, *개인성경연구 핸드북*(서울: IVP, 2003). 본인의 즐겨인 이 책은 귀납적 성경연구라는 서구의 방법론을 수년간의 워크숍을 거쳐 한국적 상황 속에 접목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다.

넷째, 개인의 인생과 영적 여정에 적용점을 갖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한 개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그림과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언약신학과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유업 중심의 인생 여정을 핵심 주제로 인생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주요 성경인물들의 영적 여정을 조망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이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삶과 유업을 균형 있게 살아낼 수 있는지 도전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교회가 언약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방향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처음에는 신약까지만 만들어 강의하다가 이단들에 대한 대처와 사막 수도승들의 영성과 정통신학을 정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대교회 정통신학이 정립될 때까지로 확장하여 강의를 꾸몄다.

#### 나. 강의 진행

2010년 하반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주일 혹은 월요일 저녁마다 이 강좌를 시작하여 연 2회씩 꾸준히 강좌를 진행하였다. 강의를 흡입력 있고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론보다는 습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로 전인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강의 속에 영감과 감동을 담아내도록 힘썼다. 전인격적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고, 늘 간식과 음료를 비치해놓는 등 강의실 분위기도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힘썼다. 소정의 회비를 개인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20-40명의 수강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강좌가 횡수를 더해가면서 재수강자가 생기고 외부 교회 성도들이 저녁에 와서 수강할 만큼 교회의 명물 강좌로 자리 잡아가면서, 교회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에 큰 역동을 만들어내었다.

다. 구약과 신약 과정의 강의구성 목록

각 과정은 90분 강좌 9주 과정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중 강의일 경우에는 하루에 90분 강좌 두 개씩 이어 강의하였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먼 거리에서 와야 하는 수강자들의 시간 사용을 고려하여 하루에 두 개씩 오후 7:30-10:30에 진행하였다.

(1) 구약I 과정 : 창세기 - 통일왕국시대

- 1강 언약의 책으로서의 성경
- 2강 언약백성의 삶의 근간으로서의 모세오경
- 3강 언약백성의 삶과 영성 형성
- 4강 광야 차세대를 위한 영성 형성
- 5강 약속의 땅과 역사
- 6강 약속의 땅의 정복과 실패
- 7강 약속의 땅에 사는 법
- 8강 통일왕국의 성립 : 사울과 다윗
- 9강 통일왕국의 성쇠 : 다윗과 솔로몬

(2) 구약II : 분열왕국시대와 시가서와 선지서 전체를 망라

- 1강 언약백성의 찬송과 기도
- 2강 언약백성의 삶과 지혜
- 3강 언약백성의 사랑과 애환
- 4강 언약백성의 왕국의 흥망
- 5강 언약수호의 선지자들
- 6강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의 남유다
- 7강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
- 8강 포로귀환과 혼돈기
- 9강 참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

(3)신약I 과정 : 요한서신서와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책을 망라

- 1강 예수가 오기까지
- 2강 율법과 예수
- 3강 복음서와 예수
- 4강 예수의 생애와 사역
- 5강 새 언약백성의 탄생과 성장
- 6강 바울의 신학과 아브라함
- 7강 베드로의 생애와 영적 여정
- 8강 바울의 생애와 영적 여정
- 9강 교회를 세워간 사도들의 서신들

(4) 신약II 과정 : 요한서신과 계시록과 초대교회 정통신학이 정립되기까지

- 1강 로마 제국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
- 2강 요한의 생애와 영적 여정
- 3강 암울한 현실 속에 주어진 요한의 계시
- 4강 종말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
- 5강 핍박과 이단의 도전 속의 교회
- 6강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승인과 교회 정립
- 7강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과 수도원 운동
- 8강 복음서와 초대교회
- 9강 정통신학의 완성과 교회의 발전

라. 강의 진행과 수강자 강의 반응

구약 I,II 과정과 신약I 과정은 10회차 이상 진행하였으며 신약II 과정은 2017년에 기획하여 2018년 1기를 진행하였다. 이 강좌는 긴 과정이라 수강자가 많게는 40여 명 적게는 15명씩 들쭉날쭉했다.<sup>279)</sup> 그런데 강의를 개설한 이후 수강 지원자가 없어서 휴

279) 1회기 때부터 3회기 때 기록이 분실되어 정확한 통계를 추산할 수는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산할 때 외부 사람 외에 성도들 중에 최소한 구약I 과정 220여 명 구약II 과정 160여 명 신약I 과정 18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신약II 과정은 1회기 20명이 수강하였다.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반응이 있다. 이 과정은 부산지역 목회자들도 관심을 보여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18명의 담임 목회자들을 위한 집중강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강의 후 지도자 교육 요청이 있어, 지도자 훈련 교육을 마치고 개별 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강좌를 듣고 난 소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잘 이해되어 성경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직장인들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얻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는 수강생들 안에 영성훈련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생겨 영성훈련 과정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일마다 50-60분씩 깊이 있는 시리즈 성경 강해를 진행하였는데,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초적 지식과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 2. 주일 성경 강해: 성경인물별 영적 여정 시리즈와 신앙 주제별 시리즈

개척 초기에 창립 멤버들은 30-40대 직장인들인 데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예배나 주중 모임을 모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담임목사로서는 주일 예배시간이 전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주일 설교에 온 힘을 기울였다. 설교 시간을 50-60분으로 길게 잡았고, 성경본문을 심도 깊게 강해하였다.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늘 강해안을 나눠주어 이해를 돕도록 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면서 다시 오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내용을 탄탄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열정을 기울이자 1년 후 즈음에는 제법 모임에 규모가 생겼고, 성도들이 성경 강해를 흥미진진하게 듣기 시작했다.

### 가. 강해 내용 구성

강해 내용은 공동체의 개척 상황과 훈련 상황에 적실성 있게 구성하였다.<sup>280)</sup> 속도감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성경을 한회에 한 장씩 장별로 강해하였다. 강해할 때

280)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시리즈 강해한 내용을 연도별로 통계를 낸 자료를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여기서 설명한 부분의 구체적인 실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듣도록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가며 강의하였다. 가령 2011년은 야곱의 영적 여정 시리즈를 13회에 걸쳐 다룬 다음 신약 복음서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11회 강해하였다. 이어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 룻기 4회, 레위기 9회 강해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꾀했다.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 강해(레1-7장)를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잘 집중하여 들을까 노심초사하였는데 실제로는 큰 은혜가 임해서 예배에 기쁨 부으심이 있었고 성도들도 이 기간에 많이 늘어 신기하고 감사했다. 훗날 이세종 선생이 레위기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레위기 강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경인물 시리즈와 기도 시리즈 등이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첨부된 <부록1> ‘아름드리 강해 시리즈 일람표’에 보면 개척을 시작한 해인 2009년 1월에는 기도로 하늘 열기 시리즈, 3-5월 여호수아의 영적 싸움 시리즈, 6-11월 구도자 베드로의 영적여정 시리즈 등을 배치했다. 아름답드리 영성훈련I이 8주 과정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2010년에는 1-3월에 현실을 살아낸 느헤미야의 영성 강해 시리즈, 4-8월 생명의 교회 시리즈, 8-11월에는 아브라함 영적여정 시리즈를 강해하였다. 이 시리즈 강해를 통해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영성훈련의 동기 부여가 되어 처음부터 많은 이들이 영성훈련I에 자원하였고, 성경의 맥과 열개 시리즈와 맞물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어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 나. 드라마 형식의 성경인물들의 영적 여정 시리즈 구성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였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의 모세 중심의 신앙생활 양태가 예수시대 이후 아브라함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었다. 이는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롬 4장; 갈 3-4장; 히 11장). 신약에서 히 11장의 믿음의 전당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아브라함이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나라 유업을 계승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히 11:8-19). 특별히 아브라함의 유업 중심의 삶(히 11:8-9)에 착안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삶에 현실적인 적용점을 갖는 전형적인 이야기로 시리즈 강해를 하였다. 이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언약백성의 영적 여정 패러다임과 성경적 인생론을 정립하도록 돕고자 했다.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 패러다임을 모티프로 하여 다른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시리즈 강해하였다. 특별히 인물 강해는 드라마 시나리오적 구성에 착안하여 역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 자신이 개인의 영적 여정을 이해하고 자기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공감하며 삶의 방향과 해결책을 얻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 다. 영성훈련을 위한 주제 시리즈 강해

영성훈련에 필요한 주제 시리즈를 기획하여 강해하였다. 가령 2011년에 기획한 레위기 강해는 정확히 영성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망하려 의도한 것이었다. 2012년에 기획했던 잠언 강해 시리즈와 하나님나라 특강 시리즈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를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기획은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실성을 갖도록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도전받은 성도들이 영성훈련에 참여하였다. 다른 모든 훈련 코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성훈련 코스도 자원하여 신청하는 사람들만 받고 소정의 회비를 받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회 개설할 때마다 정원이 넘쳐 대기자 명단을 따로 관리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이는 바로 이러한 시리즈 강해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감동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3. 아람드리 교회 영성훈련 I 과정

#### 가. 개혁주의 구원서정과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맞추어 보완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서 권희순 교수의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아람드리교회의 모델로 개작하였다. 영성훈련 I 과정은 기도의 네 가지 방향 중 수직적, 수평적, 내향적 이 세 방향의 기도가 적절하게 훈련되도록 구성했다. 물론 그 마지막은 ‘항상 기도하라’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개혁주의 구원서정에 맞춘 각 과 내용 구성

[1주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생 이야기(예정)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1

[2주차] 신자 된 이야기 1(소명, 중생, 회심)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통한 말씀 묵상법

[3주차] 신자 된 이야기 2(믿음, 칭의, 양자)와 함께하는 T.R.I.P. 묵상법

[4주차] 사람들 이야기(섭리)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2

[5주차] 시험과 연단 이야기(성화 I)와 함께하는

이미지를 통한 말씀 묵상법과 T.R.I.P. 묵상법

[6주차] 공동체 이야기(성화 II)와 함께하는

이미지를 통한 말씀 묵상법과 말씀으로 기도하기

[7주차] 새로운 이야기(성화 III)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T.R.I.P. 묵상법

[8주차] 끝나지 않는 이야기(영화)와 함께하는 죽음 묵상법 및 정리와 계획

## (2) 당일 훈련 과정

\* 렉시오디비나

\* 그룹 나눔 : 일주일간 매일 영성훈련하면서 경험한 바를 나눔

\* 주제 묵상 : 해당 묵상법에 따른 본문묵상 강의와 묵상 실습

개인적으로 묵상을 정리하고 난 후 그룹별로 나눔

\* 주간 묵상 본문의 주제를 소개함 : 매일 묵상본문을 구원서정에 따른 본문으로 배치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서정을 정리하도록 했다.

## (3) 매일 개인 영성 훈련 지침

웨슬리 영성수련의 훈련 지침을 근본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추어 보완했다.

\* 교회의 정기 집회와 예배에 참여하며 주 1회 이상 예배를 드린다.

\*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저녁에 영적 여정 정리를 한다.

- 매일 제시되는 주제 말씀 묵상 본문을, 개인 영성 훈련에 제시되는 방법대로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영성일기에 기록한다(아침).

- 매일 제시되는 주제 영적 여정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묵상하며



배포된 양식에 정리한다(저녁).

- \*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금식한다. (자신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오후 3시까지 혹은 점심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24시간 등 시간을 정한다. 또는 가장 아끼는 한 음식만 절제하거나 절식 혹은 음료 금식 중 선택하여 실행한다.)
- \* *영적훈련과 성장*<sup>281)</sup>과 *그리스도를 본받아*<sup>282)</sup>를 매일 적당한 분량을 정해 읽는다.
- \* 매일의 삶을 성찰하며 영성일기를 쓴다(‘영성일기’ 항목 참조).
- \* 기도 파트너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경험을 직접 만남이나 전화를 통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눈다. - 영혼의 교제
- \* 일과 속에서 화살기도하며 덕의 실천을 쌓아간다.
  - 화살기도: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기도이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주여, 친구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격식을 갖추지 않고 단문으로 쏘아 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
  - 덕목 쌓기: 겸손, 절제, 인내, 사랑, 순종(벧후 1:4) 중 택일하여 실천한다.
- \* 자신의 인생 궤적 돌아보기: 자신의 출생부터 이어져온 정서적 여정과 영적 여정을 돌아보며 성찰하도록 하였다.

(4) 영성일기 -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매일 기록한다.

- \* 주제 말씀 묵상(아침)

주제에 따라 정해지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감동적으로 다가온 말씀과 소감을 적는다.

- \* 주제 영적 여정 정리(저녁)

인생 궤적 작업을 하며, 본문에 따라 주어지는 매일의 영적 여정 정리 질

281) Richard F.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82) Thomas a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 유대덕 역(서울: 브니엘, 2016)

문을 통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기록한다(침부한 영적 여정 정리 노트에 따로 기록한다).

\* 자아성찰과 영적 결단 그리고 갈망

하루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 감사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을 적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과 갈망을 올려드린다.

\* 중보기도 대상자 명단 및 기도제목

(5) 주간 점검표와 헌약서 작성

이 부분을 웨슬리 영성수련과 다르게 보완하였다. 헌약서에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만들어 사인 후 제출하게 함으로써 훈련에 들어가는 마음을 확정하도록 했다. 주간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영성훈련 지침에 따른 항목을 점검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주간 훈련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적도록 했다. 그리고 매주 훈련 시간에 훈련자가 이를 점검하고 코멘트를 함으로서 개인적 접촉점을 가지고 훈련이 진행되도록 했다.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에는 없는 주간 점검표를 작성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주중 훈련에 역동을 부여하였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어서 주중에 따로 만나 교체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6) 훈련 진행과 운영을 위한 지침

이 부분은 교회 개척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제자훈련과는 다른 차원의 영성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를 적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성경은 단순히 메시지의 내용(what)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용 원리(how)도 중요하다.<sup>283)</sup> 제자훈련도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을 잘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때 본문의 원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열매를 얻게 된

283) 이재천, *개인성경연구 핸드북*, 41. 이 책은 귀납적 성경연구에 대한 책인데, 기존의 서구에서 가르쳐지고 있던 귀납적 성경연구 원리를 한국 상황에 접목한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성경연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데 그 형식적 틀과 방식도 성경본문에서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훈련 방식과 초점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 훈련을 스파르타식이 아니라 인격적 감화 방식으로 하셨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강요하거나 엄격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혼에 흡수해 자리 잡아 가기를 원하셨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복음서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행전에서는 열정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도는 스파르타 훈련이 아니라 인격적인 감화력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훈련 원리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로 대변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적실성이 있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자는 모든 훈련에서 자연스러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 애를 썼다. 강의와 훈련과 나눔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했으며, 한 번에 많은 숫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15-20명). 이러한 인격적 분위기는 영성훈련에 흥미와 위안과 자유로움을 조성하여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둘째, 예수님은 유대교 영성의 틀을 깨시며 구약의 언약관계의 본질을 추구하셨다. 당시 유대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율법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틀에 박힌 영성을 추구했다. 또한 내면의 순결함보다는 외적인 형식에 더 많이 치우쳐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정적인 틀을 깨시고 좀 더 본질적인 중심을 잡고 유연하게 대처하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과 틀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반영하는 형태로 융통성 있게 안식일을 지켜가라고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베풀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장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모든 훈련은 자원하는 사람만이 참여하게 했다. 광고만 하고 권유하지 않았다. 그들 내면에 있는 갈망을 도전하기 위해 설교 시간에 강조했을 뿐이었다.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훈련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기다려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의 메시아 됨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따르고 있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이시며 누차 권면하며 묵묵히 기다려주셨다. 결국은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

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철들기를 기다리며 사랑으로 대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인간은 변하기 힘든 존재이다. 예수님도 12 사도 중 멸망의 자식 가롯유다를 잃으셔야 했다. 인간은 문제 많은 죄인이요 탐욕이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 야고보와 요한처럼 권력 핵심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내면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베드로처럼 실족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가롯 유다처럼 반역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은 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받아주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훈련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넷째,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았다. 기도에 대한 강론보다는 실제적 본을 더 중요시하셨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에 리트릿도 가시고 함께 먹고 즐기기도 하시고 늘 여행을 다니시며 인격적으로 호호하며 가르치셨다. 그래서 본인도 여러 리트릿과 영성여행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그 적용점을 찾아보았는데 효과가 좋았다.

다섯째, 예수님의 훈련은 형식보다는 정신적 초점 중심이었다.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구조화하기보다 자연스럽고 융통성 있게 실행하셨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은 필요하다. 특히 현대인처럼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도, 그것 중심적이어서도 안 된다. 언제나 보조적이고 유보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역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주시하신 초점은 아래와 같다. (1)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을 진행하셨다(마 6:10,33). 늘 하나님나라에 대한 설교와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셨다. (2) 예수님은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면의 도를 강조하셨다(마 16:14). 예수님의 제자도는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종국에 이르러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다. (3) 예수님은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를 친구됨에 두셨다(요 15:14-15). 친구로서 동고동락하고 고난을 함께하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제자훈련의 초점이었다.

여섯째, 이러한 예수님의 훈련 방식을 토대로 훈련 진행과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둔다. (1) 자발적인 지원자만을 받아 훈련을 운영하였다. 강요하거나 강권함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임하도록 했다. (2) 강의는 적게 하고(30분 이하) 소그룹 나눔 속에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훈련 기준에 못 미치면 자동 탈락 후 다음 번에 다시 듣도록 했다. (4) 지도자보다는 코치와 멘토의 자세에서 인격적으로 가르쳤다.

#### (7) 훈련 진행 상황과 반응

2010년 1월에 1기를 시작으로 2018년 총 17기 271명이 수료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 기수를 운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주일 예배 분위기에 열정과 임재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아람드리교회의 현재 등록 성도는 장년 241명, 청년 125명 합하여 366명이므로 74퍼센트가 훈련을 수료한 셈인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감안해도 70퍼센트 가까이 참여했다고 생각된다. 2016년 10월 6일에서 11월 24일에 실시했던 제15기 영성훈련I 평가서에 나타난 참가자들의 반응을 <부록 2>에 신는다. 기도와 묵상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남을 이 평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성훈련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기간에 주일 성경 강해 시리즈 강해, 성경의 맥과 열개 강좌, 개인 묵상(QT 혹은 렉시오디비나) 그리고 영성훈련I 과정이 어우러지면서 교회 공동체에 역동과 규모가 자리 잡아갔다.

#### 제 3 절 내용과 균형을 잡아간 단계(2010-2016년)

개척 3년차를 맞이하면서 말씀묵상 중심의 영성생활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네 가지 방향의 기도 원리가 반영된 영성훈련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내향적-수직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영성훈련II와 영성여행, 명절 리트릿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수평적 방향에 초점을 맞춘 FIC 집중 과정과 아브라함 학교도 만들어졌다. 이 중 영성훈련 II과정과 영성여

행과 아브라함 학교를 소개하고 분석하기로 하겠다.

### 1. 아람드리교회 영성훈련II 과정

영성훈련I 과정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자 자리가 잡혀갔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영성훈련I 과정을 받은 성도들이 훈련 이후 6개월 정도 지나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영성훈련I의 실천 항목이 과도한 탓에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실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성훈련I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더 깊은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실천했던 기도법을 통하여 좀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도록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2012년 3월 영성훈련II 1기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영성훈련II 기획 의도

첫째, 영성훈련I 과정을 마친 성도들이 좀 더 깊이 주님과 교제에 들어가도록 돕는다.

둘째, 네 방향 기도 원리 중 내향적 수직적 방향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훈련한다. 항상 기도하기 패턴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넷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일구어낸 기도법을 익히며 기도의 원줄기에 합류하게 한다.

다섯째, 운영 방식은 영성훈련I과 동일하게 하되 훈련 내용은 단순하게 줄여서 담백한 기도 훈련이 되게 한다.

#### 나. 기도법 선별의 기준 설정

기도하는 방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하고 다채롭다. 성경은 기도법에 대해 정해진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령 주기도문의 경우도 예배에 사용되었고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주기도문 지침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방식이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개인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Chester P. Michael and Marie C. Norrisey는 MBTI 16가지 유형과 네 가지 기질 유형(SJ,SP,NT,NF)에 따라, 사막의 수도승들이 발전시킨 기도법이 달랐음을 설명하고 있다.<sup>284)</sup> 실제로 여러 기도법들을 훈련하다 보면 각자가 좋아하는 기도법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에 있어 일정한 기도법에 매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통성기도에 열심이었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가고 기도원이 문을 닫는 것은 하나의 기도법에 매진한 데 따른 부작용에도 그 원인이 있다. 본인이 다양한 묵상기도법과 기도법을 가르쳐보니 성도들 중에 통성기도에 거부감을 가졌다가 새로운 기도법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앞의 연구를 통해 이미 언급한 기도법 외에도 교회사를 통해 고안되어 은혜를 끼쳐온 기도법들도 현장 적응력을 위해 도입을 고려하였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기도법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기도법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가? 앞서 연구한 성경과 사막의 수도승들의 예와 원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이후 개발되는 일련의 영성훈련 과정에 적용하였다.

#### (1) 원리1

예수님이 가르치신 네 방향 기도 원리와 방식에 부합해야 한다. 은밀한 골방기도, 주기도문, 말씀 그대로 기도, 대적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깨어 부르짖는 기도, 향상기도, 광야 침묵의 기도 등을 비추어 고려한다.

#### (2) 원리2

‘열매로 알리라’(마 7:15-20)는 말씀에 비추어, 역사를 통해 건강한 열매를 맺어와 건전한 신학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사에 나타난 정적주의와 율법주의로 인한 폐단은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도법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284) Chester P. Michael and Marie C. Norrisey, *기질에 따른 기도와 영성(Prayer and Tempraments)*, 이기승 역(서울: 선교햇불, 2011), 40-43.

## (3) 원리3

성경에 근거가 있는 기도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가서 혹은 선지서나 다른 성경에 근거나 예가 있지 않으면 다 나쁘고 잘못된 기도법이라 할 수는 없다. 가령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환대의 기도<sup>285)</sup>와 같은 예는 기도가 유익하고 은혜가 된다. 그러나 아직 시간의 검증을 거쳐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얼마든 가능하나 자칫 검증되지 않은 기도법으로 교회공동체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워낙 다양한 심리 구조를 갖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4) 원리4

삼위일체 신학과 신인기독교론과 이신칭의 구원론으로 대변되는 정통신학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종교마다 다양한 기도법이 존재한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인식은 더 중요하다.

## 다. 훈련 내용

위와 같은 네 가지 분별 원리에 부합하여 선택된 초대교회의 기도법들은 주기도문 기도, 시편기도, 예수기도, 화살기도, 말씀 그대로 기도, 침묵기도, 렉시오디비나 등이다. 이러한 기도법들은 최근까지 여러 수도회나 교파들에 의해 계승, 실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수해온 구체적인 기도 방식을 도입하여 8주 코스로 구성하였다.

## (1) 8주 훈련의 주별 훈련 내용

1주차 : 기도 원형 - 주기도문/영성일기

2주차 : 영혼의 언어 - 시편기도

3주차 : 마음의 기도 - 예수기도

4주차 : 말씀으로 기도하기1 - 렉시오디비나

5주차 : 말씀으로 기도하기2 - 렉시오디비나

285) 유해룡 편역, *더 깊은 사귄* (서울: 두란노, 2017), 155-156



6주차 : 침묵과 마주머뭉의 세계 - 침묵기도

7주차 : 침묵속의 예수님 바라보기 - 마주머뭉기도

8주차 : 자연묵상과 마주머뭉기도: 일박수련회

(2) 당일 내용: 2시간 반

렉시오디비나

그룹나눔: 지난 일주일 영성훈련 소감 나눔

강의 : 해당 주차의 기도법 강의(40분)

기도실습 : 강의된 기도법으로 기도

그룹나눔 : 새롭게 배운 기도법으로 기도하면서 얻는 소감 나눔

기도법에 대한 질의응답

주간 점검표 피드백

훈련자 마침 기도

(3) 운영

영성훈련 I 단계를 마친 사람들 중에 지원자 15-20명

주간 기도 점검표를 작성하고 훈련시간에 제출하여 점검받게 함

기도 실습과 그룹 나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함

라. 실행 및 평가

(1) 실행

2011년 1월 1기 훈련을 시작하여 2018년 10월 10기수 훈련을 진행하여 총121명이 수료하였다. 이는 영성훈련I 수료자 271명중 44.6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영성훈련I 과정보다 2년 늦게 출발했고 영성훈련I 과정이 17기까지 운영한 것을 고려하면 반응이 좋은 것이다. 실제로 영성훈련II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영성훈련I 수료자 사이에서 영성훈련II 과정을 언제 개설하는지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는 형편이며, 개설되면 며칠 안에 정원이 마감이 되곤 한다. 영성훈련I 수료자 중 대부분이 영성훈련II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2) 참가자들의 반응

아래와 같은 참가자들의 소감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된 훈련 목적이 잘 전달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항상 기도하기’라는 기도 생활을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갈망을 드러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가서 중 소감문을 <부록 3>에 신는다. 이 과정을 통해 하루 세 번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면서 훈련받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 2. 아람드리 영성여행 개발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이국적인 환경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2000년 즈음에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목수이신 예수님이 센터 건물을 지어 학교로 사용하시기보다 여행하시면서 제자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당시 본인이 소속해서 사역했던 대학생 선교단체(IVF)에서 제자훈련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던 터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을 9-10일 여행하면서 하는 수련회를 기획하여 여러 차례 운영하였는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다.<sup>286)</sup> 그래서 여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영성훈련을 겸해서 실행하는 영성여행을 기획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해외여행 바람에 편승하여 대학을 졸업하는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졸업여행(2010년 1월 17-23일)을 다녀오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었다. 2011년 1월 말레이시아로 7박 8일간의 첫 영성여행을 시작으로, 매해 좋은 반응을 경험하며 긴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sup>287)</sup>

286) 2001년 당시 나는 한국기독교학생회 졸업생 모임인 학사회 대표간사로 있으면서 중국 상해에서 평신도 직업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예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언어와 현지 문화 적응 훈련 그리고 영성훈련이 중심이었다. 2001년-2005년까지 매학기 한 번씩 총 10회에 걸쳐 10일짜리 기말 장정 수련회를 중국 각지를 여행하며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여행이 영성 훈련에 주는 역동을 경험한 바 있었다.

287) 지금까지 아람드리교회 영성여행은 다음과 같이 9기에 걸쳐 매 기수 15-34명이 자비 부담하여 진행되었다. 1기: 말레이시아(2011.01.17-24), 2기: 키르기스스탄(2012. 01. 09-16), 3기: 동유럽(2012.07.16-24), 4기: 미서부 사막(2013.01.14.-22), 5기: 터키 성지순례(2013.04.08-19), 6기: 미서부 사막(2014.02.10.-20), 7기: 산티아고 순례길(2015.01.18.-31), 8기: 캐나다 제스퍼-밴프(2017. 09. 30 -10. 09), 9기: 키르기스스탄 (2018. 08.25-09.02)

#### 가. 영성여행 기획 의도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인 여행 상황에서 훈련하기를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건강한 영성훈련 내용을 가진 여행을 통해 하루하루 수도원적 영성 리듬에 들어가 맛보게 한다(통합적 방향).

셋째, 시리즈 강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영적 여정 원리를 익힌다(수직적 방향).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성찰을 경험하도록 돕는다(내향적 방향).

다섯째, 자신의 인생을 중간 점검하고 평가하며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한다(수직적 방향).

여섯째, 공동체 팀워크를 익히고 교제를 경험하며 섬김을 훈련한다(수평적 방향).

#### 나. 프로그램 내용

- (1) 인생 궤적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서로의 인생 여정을 나눔
- (2) 시편기도와 영성일기 쓰기
- (3) 시리즈 성경 강해를 숙소에서 하루에 한두 개씩 듣고 기도하기
- (4) 자연 속에 침묵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

#### 다. 진행과 운영

첫째, 여행의 역동을 잘 유지하면서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나 성경 강해 혹은 강의를 삽입하여 진행한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 시편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성찰과 영성일기 쓰기, 그리고 오전이나 저녁에 성경강해 한두 개 듣기 등을 통해 하루가 온전히 항상기도 패턴에 들어가도록 한다.

셋째, 중간 중간 쉬의 시간과 공백을 주어 스스로 멈추어 생각하게 하고, 침묵을 잘 사용하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자신의 인생 궤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며 공동체성을 익혀가게 한다.

다섯째, 경비는 모두 자비 부담하며 참가하는 성도들로 팀을 구성한다.

#### 라. 반응과 평가

그동안 받은 영성훈련이 생활화되는 경험을 하고, 특별히 자기성찰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된다. 참가자 중에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사람들이 매 기수마다 나타난다. 처음에는 청년들만이 참가했으나 기수를 더해가면서 장년층도 함께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오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큰 힘을 얻고 간다. 영적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래에 8기 영성여행(2017. 09. 30.-10. 09, 캐나다, 장년 11명, 청년 25명 참가) 기념 책자에 실린 참가자들의 간증문 중 일부를 인용함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대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여행 가운데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을 바라보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최근 1-2년간 저의 고민이었던 알맹이 없고, 진전 없는 인생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sup>288)</sup>

에머랄드 호수가 있는 곳..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카누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 호수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괴롭고 외로운 어린 시절부터 저를 저 호수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호수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상처를 모두 던져버렸고, 저를 괴롭히는 이 모든 상처들이 다시는 제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제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sup>289)</sup>

이직을 원하는 제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 욕망을 감추기 위해 이 일이 너무너무 좋다고 즐겁다고 외치며 방향 없는 인생의 불안을 애써 부정하는, 가치 없는 것에 쓸데없이 목숨 걸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sup>290)</sup>

288) 아브라함영성연구소, *아름드리 영성여행 8기 캐나다* (서울: 아브라함 영성, 2017), 48.

289) Ibid., 52.

290) Ibid., 56.

하지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정의 부정적인 흐름, 인격적인 성숙보다도 하나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저에게도 가장 큰 가치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항상 절망적이었거든요.<sup>291)</sup>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이 왜 그러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 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제 인생의 속상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주셨습니다.<sup>292)</sup>

인생 궤적을 하면서 적었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과 지금의 저의 모습들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서 써져가는구나를 느끼며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속절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닌 결국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또 목사님의 메시지 속 요셉과 야곱, 유다를 바라보며 그들도 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자신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으로부터 몸부림치는 모습에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나라의 유업이 시간을 초월해 나에게도 맞닿아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sup>293)</sup>

두 번째는 아내와 대자연 숲속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강의한 바로 그날입니다. 사건이 터졌죠.. 사건이.. 저희 둘만 아는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목사님의 강의와 실전(?)을 통해 가르치셨지요~~~<sup>294)</sup>

침묵 묵상과 새벽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며 그동안 늘 의문점 투성이던 인생의 굴곡을 해석케 하셨고, 캠루프 호텔에서 받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침묵 묵상과 새벽기도, 영성일기 쓰기를 통해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sup>295)</sup>

291) 아브라함영성연구소, *아름드리 영성여행 8기 캐나다*, 57.

292) Ibid., 63.

293) Ibid.

294) Ibid., 67.

295) Ibid.

### 3. 하나님나라 유업을 찾아가기 위한 아브라함 학교 개발

#### 가. 기획 의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롬 4:12-14),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갈 3:29; 4:7)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나라의 유업 즉 사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별하여 섬김의 초점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깊이 고민하며 청사진을 그리게 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을 찾게 함으로써,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니 수평적 방향의 원리와 부합하며, 개인의 하나님나라 유업을 찾아가며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니 통합적 방향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296)</sup>

---

## 8기 아브라함 학교 오리엔테이션

### 1. 목적

- 1.1 자신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 1.2 자기 자신의 영적 여정 찾아내기
- 1.3 자신 혹은 가정의 하나님나라 유업을 찾아가기

### 2 일정

- 1주차 오리엔테이션 12/02
- 2주차 에니어그램과 인생 궤적 해석 워크숍 12/09
- 3주차 스트롱 흥미 유형 워크숍 12/16
- 4주차 인생 궤적(은사 배치 검사 병행)속에 드러난 은사 점검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프리셉트)책 12/30
- 5주차 인생 궤적 정리와 해석 발표 워크숍1 1/06
- 6주차 인생 궤적 정리와 해석 발표 워크숍2 1/13
- 7주차 자기 유업 찾기 워크숍 - 워크숍을 함 1/20

---

296) 이는 2018년 12월 -2019년 2월까지 진행한 8기 아브라함 학교에 참가자들에게 첫날 나누어준 오리엔테이션 자료이다.

## 8주차 유업 청사진 만들기 1/25-26 일박 집중 훈련 예정

**3 과제**

- 1> 아브라함 강해 청취 혹은 녹취록 읽기
- 2> 자기 인생 궤적 그리기
- 3> 인생 궤적 해석 정리 양식 작성
- 4> 유업 청사진 작성하기
- 5> 매일 묵상과 인생 궤적 작성 후 영성일기와 기도생활
- 6> 독서: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국제제자 훈련원),  
 풍요의 시대에 다시 찾는 영적 스승 이현필(KIATS)  
 어거스틴의 고백록(엔크리스트)/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복있는사람)

**4. 매주 훈련 당일 일정**

- 4.1 우리 인생의 저자 만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 4.2 강의 및 워크숍
- 4.3 우리 인생의 저자와 연합하기: 성찬식

**5.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워크숍**

- 5.1 이재천 목사의 자기 이야기 찾아가기 여정 나눔
- 5.2 이야기 찾아가기 위한 인생 궤적 그리기 가이드

-----  
나. 훈련 진행

(1) 다른 훈련과 다르게 영성훈련 1단계 이상 마친 사람 중에 35세 이상의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1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한다.

(2) 매일 말씀묵상에 따라 자신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도록 하고 매주 모임 시간에 점검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3) 매회 만나 워크숍과 함께 나눔을 2시간 반씩 갖는다.

(4) 개인적인 작업을 마치면 청사진을 만들기 전에 단들이 2-3시간 개인 인터뷰를 하여 정리의 방향과 지침을 찾도록 코치한다.

(5) 마지막 회 차에는 일박 수련회를 가서 자신의 유업 청사진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6) 2012년부터 시작하여 8기까지 운영하였다.

#### 다. 반응과 평가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인생 여정과 영적 여정 전체를 돌아보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 이후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곳에서 얻은 통찰로 방향을 잡는다. 2012년 이후 8기수를 운영해왔다. 매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정원이 초과되어 대기자들이 몇 명씩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최근 8기 아브라함 학교 수료자들이 낸 평가서와 소감은 <부록 4>에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깊게 체감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나라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 특별히 청사진은 매년 진전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 제 4 절 통합과 성장을 일구어가는 3단계(2017-현재)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뭔가 많은 훈련을 하였는데, 성도들이 생명력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했다. 예전처럼 새벽기도라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수월했을지 모르나, 현대 사회에서 20-40대들의 삶의 자리는 매우 각박하고 분주하기에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통합 방향으로서의 항상 기도를 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도한 것이 명절 리트릿에 이어 가만주앞 리트릿과 수칙 저널 소그룹 운영이다. 현재 5그룹을 결성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갈망이 있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 정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 1. 가만주앞<sup>297)</sup> 리트릿 과정

영성훈련II 단계를 거친 후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도 규칙을 작성하게 하였다.

297) 가만주앞 세미나의 이름은 ‘가만히 주님앞에’라는 말을 줄인 형태이다. 묵상과 침묵 위주의 리트릿을 구상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의 묵상과 침묵은 주님 앞에 독거하며 머무는 인격적인 역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에 도움이 필요하여 주1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점검하며 보충 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 매주 주중 기도 모임을 운영했는데 반응은 좋았으나 갈수록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일단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 매주 모이는 데는 시간의 제약이 따랐고, 개인적 상황 속에 중도 하차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수요 영성예배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수요영성 예배는 잔잔한 찬양과 묵상기도와 침묵 중심의 예배였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으나 1년 정도 지나자 그것도 동력을 잃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기도에 들어가며 항상 기도 패턴을 생활화하는 삶을 고양시키기 위한 실습 위주의 과정으로서 가만주알 리트릿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다.

#### 가. 기획 의도

교회사에 나타나 지속되고 있는 묵상과 침묵기도법들을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내면 역동 패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주 복잡하고 이름도 갖가지여서 성도들이 통합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세 가지 내면 역동으로 좀 더 일목요연하게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따라가기, 흘려보내기, 머물기 역동이 그것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2박 3일로 리트릿에 들어가 간단한 강의와 워크숍을 한 후에 개인 실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주간 영성생활 수칙을 작성하게 하고 실행을 시작하도록 한다.

#### 나. 훈련 내용

- (1) 묵상과 침묵의 세 가지 역동 이해하기
- (2) 따라가기 묵상기도 훈련하기
- (3) 흘려보내기 침묵기도 훈련하기:
  - 사막의 수도승들의 침묵과 말씀구절로 흘려보내기 역동 익히기
  - 흘려보내기 침묵의 내면 역동을 이해하기
  - 침묵과 렉시오디비나, 침묵과 시편기도의 조화
- (4) 머물기 묵상기도 훈련하기: 죽음 묵상, 예수기도, 잠심기도

- (5) 자신의 영성생활 패턴을 만들고 개인수칙 만들기
- (6) 사막의 수도승 유산으로서의 영성생활 수칙을 작성하고 결단하기

#### 다. 훈련 진행

- (1) 오전 일찍부터 아침식사까지 그리고 저녁 워크숍 이후 대화를 금하고 침묵에 들어가도록 한다.
- (2) 강의와 워크숍을 적절히 조화하여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한다.
- (3) 자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영성생활 수칙을 정하고 작성하게 한다.
- (4) 함께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주간 저널을 작성하게 한다.

#### 라. 반응과 평가

- (1) 3개의 기수 반응

2017년 9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2018년 10월까지 3개의 기수를 운영했다. 총 51명 참석하였다. 이 중에 영성훈련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2기 12명, 3기 9명이 참석하셔서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셔서 큰 유익과 힘이 되었다. 사막의 수도승들의 말씀묵상 중심의 침묵훈련을 정리하여 워크숍을 하였는데 보수 교단 목사님들이 깊은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침묵 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부 사람들의 동양 종교의 침묵과의 혼합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보수 교단에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 본인도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성경에 근거한 침묵기도의 기독교적인 원류를 찾아 구성하였는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참가자들이 지속적인 훈련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반응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평가

성경의 원리에 맞게 접근하여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근거를 둔 기도 방식을 도입하니 많은 분들이 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영성생활 수칙을 작성하는 것이 구체적 적용점을 만들어주어 유익하였다. 더 자세한 반응은 <부록 5>와 <부록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영성생활 수칙 주간 저널 나눔 소그룹 세우기

가만주앞 워크숍에서 개인 영성생활 수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행력을 가지기가 힘들다. 영성훈련 과정에서 피어나는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야 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던 중 미국 이마고크리스티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수칙 저널 나눔이라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sup>298)</sup>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 방식을 생활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통합적 방향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에 정점을 찍는 과정이 되었다.

### 가. 훈련 내용

- (1) 개인 영성생활 수칙 만들기
- (2) 개인의 영적 여정에 따라 수준별 훈련 선택
- (3) 세 가지 실행 모드 설정: 정상 모드, 긴급 모드, 잠심 모드
- (4) 주간 저널 작성 요령 강의 및 실습
- (5) 저널 나눔 소그룹 결성

### 나. 실행 및 평가

2017년 8월 아람드리교회 사역자 모임에서 매주 저널 나눔을 시작하고 2018년부터 일반 성도들 중 자원을 받아 영성 주간 저널 소그룹을 운영하여왔다. 처음 세 그룹을 시작하여 부침을 겪은 후에 2019년 현재 4개의 온라인, 2개의 오프라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더 열정적으로 영성생활에 임하고 있고, 영적인 생명력을 그 소그룹에서 공급받으며, 상호 코칭과 격려를 통해 지속적인 정진에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이들의 개인적 소감과 반응은 <부록 7> ‘영성생활 수칙 저널 나눔 소그룹 개인평가’로 첨부하였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과의 갈망이 지속되

298) 본 연구자는 CRM KOREA라는 단체를 통해 이마고 크리스티([www.imagochriti.org](http://www.imagochriti.org)) 운동을 알게 되었다. 지난 2017년 7월 17-21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훈련과 교제를 나누는 바 있다. 이 수련회에서 영성생활 수칙을 가지고 저널링하며 나누는 방식에 대해 듣고 도전을 받아 우리 교회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분들과는 이후 지속적인 교제와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고, 서서히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며, 잠잠히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고, 내면의 안정을 이루어 가정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의 헝클어진 마음을 보게 되고, 오랜 시간 쓴 뿌리처럼 박혀 있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격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 제 5 절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종합 평가

이렇게 하여 주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왔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도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적용하였던 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외적으로 볼 때 아람드리교회는 30-40대 초반의 15가정으로 시작하여 아무런 외부 도움 없이 3년 만에 자립하고 착실하게 성장해오고 있다. 한편 내적으로는 영적 성장에서 답보 상태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재발견하고 성장해가고 있으며, 내면이 변화되고 가정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 과정에 수동적 영성훈련 역동이 내면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성생활 수칙에 근거한 생활화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고 있다. 교회 전체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근거하여 세워나가니 규모와 밀도가 생겨났다. 그뿐 아니라 원리 중심의 접근을 하다 보니 성도 개인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졌고, 전체적인 규모와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다.

목회자 자신이 영성훈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며 성장해갈 수 있어 유익하였다.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붙잡고 가다 보니 확신과 은혜가 있었고, 내면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릴 수 있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여정을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의 제자훈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본인이 개발한 초대교회 영성훈련 중심의 목회가 실질적인 영향력과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제 6 장

### 결 론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 내 신앙 훈련의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제자훈련 방식의 신앙 훈련을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작업을 통해 성경적 영성훈련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목회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본에 나타난 기도 원리를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연구하여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영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과 사막의 수도승들의 영성에서 본원적인 기독교의 기도 초점과 역사적 모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중세의 영성신학자들과 수도회에서 기인한 기도 방식이 한국교회에 시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세의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개신교단을 이루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가톨릭 수도원적 영성훈련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막의 수도승들이 행한 기도 방법과 영성훈련 중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부합하는 것들만을 선별하여 실제적인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였다. 넷째로, 한국 개신교 내 기도 운동의 역사 속에서 사막의 수도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신교 수도운동의 궤적을 추적하며 그 유산과 문제점을 배우고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 모델에 근거한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아람드리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부록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의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한 프로그램들과 참가자들의 반응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소기의 긍정적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네 방향 기도 원리에 따른 영성훈련의 한국교회 상황의 적실성과 영향력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영성훈련 모델이 적실성이 있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본질적이고도 발전 지향적인 사역이 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10여년 동안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하다 보니 일부 균형을 잃은 부분이 있다. 게다가 처음 가는 길이라 시행착오가 많아 갈등을 겪기도 했다. 남겨진 과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항상 기도 중심의 네 방향 기도 원리를 적용하여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교회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한다. 영성훈련에 걸맞은 교회 조직은 어떤 형태이어야 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다. 둘째로 기초양육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제는 기초양육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며 세워가는 일을 병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영성생활 수칙을 현대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하여 좀 더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년 반을 운영하고 나니 잘 따라오며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분들도 있지만 도중에 잘 못하겠노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풀어내야 할 실제적인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그래왔듯이 말씀의 원리와 앞서간 선배들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해갈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논문을 마감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러한 연구와 실천 작업을 통해 얻어진 교훈과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사역에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 &lt;부록 1&gt;

## [아름드리교회 시리즈 강해 일람표] 2009 -2019년

년도 별	시리 즈 No	시리즈명	시작주일	종료주일	시리즈 전체 회차	비고
2009	1	기도로하늘열기	2009-01-04	2009-02-08	5	
	2	시대를 밝힌 사무엘(삼상강해)	2009-01-06	2009-03-08	6	
	3	여호수아의 영적여정(여호수아강해)	2009-03-01	2009-05-31	10	
	4	베드로의 구도여정(복음서강해)	2009-06-07	2009-11-22	21	
2010	1	어느술관원의 영성(느헤미야강해)	2010-01-03	2010-03-14	10	
	2	한 목축업자의 영적여정(아브라함강해)	2010-04-11	2010-08-08	16	
	3	생명의 교회 시리즈(주제강해)	2010-08-29	2010-11-21	12	
2011	1	야곱의 영적여정 시리즈(창세기강해)	2011-01-09	2011-04-03	12	
	2	예수님의 비유시리즈(복음서강해)	2011-04-17	2011-06-26	11	
	3	룻기 강해	2011-07-17	2011-08-14	4	
	4	언약백성의 예배와 영성생활 (레위기 강해)	2011-08-21	2011-10-09	9	
	5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요한일서 강해)	2011-10-23	2011-11-27	6	
	6	다시듣는 포도원 노래(이사야서 강해)	2011-12-04	2011-12-25	4	
2012	1	요셉의 영적여정(창세기)	2012-01-08	2012-04-29	14	
	2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시리즈(복음서 강해)	2012-05-06	2012-09-02	18	
	3	풍성한 삶 시리즈(잠언 강해)	2012-09-09	2012-12-09	14	
	4	하나님 나라 특강 1-3	2012-12-16	2012-12-30	3	
2013	1	모세의 영적여정 -시즌 1(출애굽기강해)	2013-01-06	2013-06-23	21	
	2	소그룹의 역동(주제강해)	2013-06-30	2013-07-14	3	
	3	멘토 바울	2013-07-21	2013-10-13	13	

		시리즈(행전강해)				
	4	묵시로 여는 오늘과 내일 (계시록 강해)	2013-10-20	2014-02-23	19	
2014	1	모세의 영적여정-시즌 2 (민수기강해)	2014-03-02	2014-06-22	16	
	2	해아래 누려야할 행복시리즈(전도서강해)	2014-06-29	2014-09-28	13	
	3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복음서강해)	2014-10-05	2014-12-25	12	
2015	1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삼상 강해)	2014-12-28	2015-03-08	10	
	2	우리들의 일그러져간 영웅 사울 (삼상강해)	2015-04-12	2015-05-31	8	
	안식년 (6 개월: 2015-06-01~2015-11-30)					
	3	영혼의 길(롬 4-8 장강해)	2015-12-06	2016-02-28	11	
2016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복음서강해)	2016-03-06	2016-03-27	4	
	2	아브라함-언약가문일구기( 창세기)	2016-04-03	2016-07-31	16	
	3	성장하는 믿음(주제강해)	2016-08-14	2016-10-16	10	
	4	산상수훈강해(복음서강해)	2016-10-23	2017-01-01	10	
2017	1	영혼의 심연을 마주한 다윗 I-삼상강해	2017-01-08	2017-07-30	24	
	2	영적 가문의 승계 주제강해 시리즈	2017-08-06	2017-09-10	6	
	3	영혼의 심연을 마주한 다윗 II-삼하강해	2017-09-17	2018-02-25	19	
2018	1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시리즈(복음서강해)	2018-03-11	2018-05-27	11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	2018-06-03	2018-07-08	6	
	3	영적전투시리즈(신명기-여 호수아서 강해)	2018-07-22	2018-11-11	17	
	4	치유와 회복 시리즈(복음서강해)	2018-11-18	2018-12-30	7	
2019	1	항상기도시리즈	2019-01-06	~ 현재 설교 진행중(03/02 현재)		



<부록 2>

아름드리교회 영성훈련 I 개인평가 정리

(이후 부록2-6 에 언급된 모든 프로그램의 강의와 워크샵 인도는 본인이 직접진행 하였다)

프로그램명	영성훈련 I
질문1	지난 8주 동안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답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역동을 경험함</li> <li>- 다양한 방식의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생동감 있게 느껴짐.</li> <li>- 기도에 대한 갈망이 회복됨.</li> <li>- 기도를 통해 나의 삶과 내면을 성찰할 수 있었고, 내면에 문제와 한계, 죄성을 직면함.</li> <li>-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됨.</li> <li>-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깨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하게 됨.</li> <li>-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왜곡된 진리와 몰이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리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김.</li> <li>- 함께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됨.</li> <li>- 일상에서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됨.</li> <li>- 하나님이 좋아지고 신뢰가 생김</li> <li>- 영성훈련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힘과 여유가 생김.</li> </ul>
질문2	영성훈련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 나타난 주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답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된 것.</li> <li>- 상황에 영향 받기보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됨.</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상에서 짧은 기도로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려 함.</li><li>-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의 태도로 변화 됨.</li><li>-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려 함.</li><li>- 주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노력 함.</li><li>-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생활을 계획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됨.</li></ul> |
|--|---|

## &lt;부록 3&gt;

## 아름드리교회 영성훈련 II 개인평가 정리

프로 그램명	영성훈련II
질문	‘영성훈련2’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성생활과 기도생활의 패턴을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었음.</li> <li>- 기도 가운데 내면의 이슈를 성찰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동으로 기도하게 됨.</li> <li>- 예수기도와 침묵기도와 같은 기도 방법론을 배우게 됨.</li> <li>-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일상을 기도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li> <li>-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주님의 명령임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기도 방법론을 통해 동기부여 됨.</li> <li>- 주님과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생김.</li> <li>- 기도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기도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나아가 기도를 실습함으로 주님께 잠잠히 나아감.갈 수 있었</li> <li>- 기도의 역동이 간구 중심의 능동에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수동적인 역동으로 확장됨.</li> <li>- 영성생활을 습관화하는 데에 많은 동기부여가 됨.</li> <li>- 기도로써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을 찾는데에 도움이 됨. 이로써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li> </ul>

## &lt;부록 4&gt;

## 아름드리교회 아브라함 학교 개인평가 정리

프로 그램명	제8기 아브라함학교(2018.12.02.-2019.3.01) 참가자 8명
질문1	이번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건, 유익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제 삶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었음.</li> <li>-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깊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li> <li>-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재조명하고, 삶의 지향점을 나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음.</li> <li>- 나의 신앙적 가치관을 점검함.</li> <li>- 열정, 흥미, 은사, 기질 등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하여 이해함.</li> <li>- 아브라함 성경 강해를 통해, 유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생김.</li> <li>- 스트롱, 은사발견 등 객관적인 툴을 이용하여, 유업을 찾아가는 과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았음.</li> <li>- 신앙 생활의 본질로서 유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생과 신앙생활의 방향에 초점이 생김.</li> <li>- 부부의 각자의 유업이 '가정의 유업'으로 통합되는 것이 유익함.</li> </ul>
질문2	과정을 마치는 소감을 적어주세요!
답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게 되어 더 무겁고, 가야하니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의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가야겠다고 다짐함.</li> <li>- 어설프게나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업의 기둥들을 발견함에 감사드립니다.</li> <li>- 아브라함 학교가 마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실행.</li> <li>-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을 잘 들여다보며 다음 스텝을</li> </ul>

	<p>걸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원리로 정리하는 것이 좋았음.</li> <li>-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됨.</li> <li>- 40대를 바라보는 길목에서 인생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앞으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환기가 됨.</li> <li>- 조심스럽게 기대함을 품고 그분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김.</li> </ul>
--	---

## &lt;부록 5&gt;

## 아름드리교회 가만히 주님앞에 I 개인평가 정리

프로 그램명	가만히 주님 앞에 I (2017. 10.30-11.1 참가자 16명)
질문1	‘가만히 주님 앞에 I’을 참여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묵기도의 이론과 실체가 정리 되었으며, 다양한 기도 방법론을 실행하고 계획함으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봄.</li> <li>- 침묵기도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와 원리를 배움.</li> <li>- 현재의 영성생활과 기도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됨.</li> <li>- 영성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공동체(Rule of Life)에 대해 소개받은 것.</li> <li>- 침묵기도로써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짐.</li> <li>- 영성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었음.</li> <li>- 침묵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영성생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됨.</li> <li>-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해 동기부여 됨.</li> <li>- 침묵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역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배움.</li> </ul>
질문2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었습니다습니까?
답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묵기도를 실습하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li> <li>- 개인의 영성생활을 점검 받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li> <li>- 수도승 등 가톨릭 배경의 용어 수정 필요함.</li> <li>- 일정 중에 계속 침묵하면 좋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적으로 침묵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li><li>- 육체가 피로도가 있어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함.</li><li>- 추천도서 list를 주시면 좋겠음.</li><li>- 이론적인 부분을 사전에 교육하고, 워크샵은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면 좋겠음.</li><li>- 더 큰 유익을 위해 워크샵 전에 침묵기도로 위명업이 필요함.</li><li>- 워크샵 후에 함께 정진할 커뮤니티의 필요</li></ul>
--	---

## &lt;부록 6&gt;

## 아름드리교회 가만히 주님앞에 II 개인평가 정리

프로 그램명	가만히 주님 앞에II (2018. 04.30-05.02 11명 참가)
질문1	‘가만히 주님 앞에II’을 참여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성생활을 혼자서 실행하는 것이 외로운 길인데, 함께 모여 훈련하는 것이 힘이 되고 동기부여 됨.</li> <li>- 기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 및 실제 등 통합적인 틀을 정리하게 되어 유익함.</li> <li>- 개인의 영성생활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 유익함.</li> <li>- 예수기도와 영성생활 수칙으로 깨어 항상기도 하는 것에 동기 부여 됨</li> <li>- 자연묵상 실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li> <li>- 생활수칙을 이해하고, 계획표를 작성함으로 일상에의 적용을 기대</li> <li>- 영적 독서의 중요성 인식</li> </ul>
질문2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으로 좀 더 정리와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이 담보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듯해서 아쉬움.</li> <li>- 좀 더 기도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면 좋겠음.</li> </ul>



## &lt;부록 7&gt;

## 아름드리교회 영성훈련 I 개인평가 정리

이름 (나이, 성별)	훈련 연수	영성훈련 계기	느낀 점	변화된 점
우OO (34세, 여)	2년여	교회에서 영성 훈련 1,2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시작하였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승이라고 해서, 신뢰를 갖고 훈련에 임함.  2016년부터 혼자서 띄엄띄엄 해오다가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가을에 영성 훈련 밴드에 가입해 저널을 나누기 시작했고 2018년 1월에 영성 훈련 소 그룹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참여중.	침묵, 시편기도, 영성 일기, 말씀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느꼈고 매일 침묵한다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이 길을 계속 가게 한다고 고백.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못했고 늘 갈등이 있었는데 영성 훈련을 거의 1년간 꾸준히 하던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기로 마음을 정했고 이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임.
문OO (35세, 남)	1년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지 않는 모습</li> <li>• 깊이 있는 교제에 대한 갈급함</li> <li>•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격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도와 묵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li> <li>• 목사님을 비롯하여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쁜 삶속에서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천할 수 있었다.</li> <li>• 외적인 변화나 극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에서의 변화, 잔잔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li> </ul>
이OO (38세, 남)	2년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적 성장을 위해서</li> <li>•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과의 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수록 영성 훈련의 필요성이 느껴짐.</li> <li>• 평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 갈망하게 됨.</li> <li>• 한번씩 깊은 사귀, 혹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삶의 활력을 갖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알아감</li> </ul>
윤OO (38세, 여)	2년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껏 해오던 신앙생활이 내 영혼과 실제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면서 영성 훈련이 성도의 영성 생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가짐.</li> </ul>	어렵고 막연했으며 지금도 그렇지만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모호한 것이었으나 함께 영성 훈련을 하녀 길잡이가 되어준 공동체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보다 방향성을 잡은 느낌이 있다.
서OO (37세, 남)	4년 2개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영성 훈련을 통해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고 싶었음	영성 훈련을 하는 동안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고, 또 의지하던 말씀과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조금씩 경험하며 지내온 것들이 좋았다.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 것과 나의 삶 전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OO (37세, 여)	4년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 남편은 저보다 2달 정도 먼저 영성 훈련을 시작했고 남편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삶의 문제를 풀고 나아가려 함에 함께 아내로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고난 중에 시작하게 됨.	영성 훈련을 하면서 피할 바위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동행하는 법을 배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평강 가운데 잠잠히 거하고 그분을 보는 법을 알게 됨.
이OO (34세, 여)	5년여	4년여간 홀로 해오던 영성 훈련이 자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영성 훈련조 편성의 기회가 생겨서 신청하게 됨.	영성훈련조 소그룹에 참여한지 1년여 정도 지나고 난 후, 그 동안 신앙생활 때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관계를 꾸준히 맺은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관계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중</li> <li>침묵을 할수록 내 자신이 피조물임을 자각</li> <li>대단하다고 여겼던</li> </ul>

			나의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새로운 인지와 시각.
김OO (33세, 남)	4개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 있었는데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때가 대부분 이었는데 아내가 수척 소 그룹을 하기로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신 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됨	아직 잘은 모르지만 한 주마다 정리를 하는 느낌이 들고 내면이 형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좀 더 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영성 훈련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정OO (35세, 남)	1년 6개월	오랜 시간 기도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손 놓고 지낼 때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 동안 정체된 영성 생활이 되어짐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묵을 할 때 분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고요함으로 정리됨</li> <li>• 말씀을 마주할 때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도전하고 위로함을 느낌</li> <li>• 영성 훈련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길에 가기 위해 적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만지심을 경험</li> <li>• 신앙의 시간이 적은 새 신자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 영성 훈련에 몰입되어 들어가기 힘들어 함을 느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적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정서를 갖고 있는데 영성 훈련을 통해 이전에는 외부 어려움에 큰 흔들림이 있어 굴곡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나 침묵과 영성 훈련 이후 내면의 강함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굳건함이 생겼고 이런 변화들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li> <li>• 영성 생활 이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지켜가고 오히려 더 크게 자라도록 되었다.</li> </ul>
박OO	1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처음 결단 했던 마	하나님께서 재 삶에

<p>(36세, 여)</p>	<p>5개월</p>	<p>를 맺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여 참여하게 됨</p>	<p>음가짐에 비해 수칙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낌</p>	<p>관여하고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또 나의 내면에 집중이 되어 성찰을 하게 된다.</p>
<p>이OO (54세, 여)</p>	<p>3년여</p>	<p>기도의 벽에 부딪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소개 받음</p>	<p>처음에 수칙과 저널에 기쁨이 있었지만 건조한 시간들을 지나올 때 힘이 들었다. 그러나 건조한 시간들 때문에 내안의 몰랐던 욕망의 자아를 보게 되었다.</p>	<p>오랜 시간 쓴 뿌리처럼 박혀있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었다.</p>
<p>이OO (55세, 남)</p>	<p>5년여</p>	<p>삶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해 보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기도의 벽에 부딪혔고 더 깊은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무언가를 찾고 있던 중 영성 훈련을 접하게 되었고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이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됨.</p>	<p>구 송 기 도 와 는 다 르 게 내 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럽게 다가왔고 침묵의 기간 속 에 하 나 님 께 서 인도하심을 느끼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림.  침묵속에서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나서는 다시 예전의 끝없이 외쳐대는 기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가보고 싶은 심정인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낌.</p>	<p>침묵기도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 (아마도 3-5년)이 흐르고 문득 내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됨  나보다 아내가 먼저 느끼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대하는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됨.  마음의 독이 많이 빠지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유업이라는 것을 깨달음.</p>

## 참고 문헌

### 1. 국문서적

- 김광채. *초대교회사 서설*. 서울: 노드, 2016.
- 강연안 외.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서울: KMC, 2006.
- 김세운.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서원, 2000.
- 김수천. *침묵기도의 삶*. 서울: 두란노 서원, 2013.
- 김영한. *한국교회 성장 둔화에 대한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1998.
- 김재수. *디다케 주님의 가르침*. 대전: 엘도론, 2009.
-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4.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서요한. *초대교회사*. 서울: 그리심, 2004.
-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서울: 아레오바고, 2014.
- 아브라함영성연구소. *아름드리 영성여행 8기 캐나다*. 서울: 아브라함 영성, 2017.
- 엄두섭. *맨발의 성자*. 서울: 은성, 1990.
- \_\_\_\_\_. *순결의 길 초월의 길*. 서울: 은성, 1993.
- \_\_\_\_\_. *호세아를 닮은 성자*. 서울: 은성, 1987.
- \_\_\_\_\_. *한국적 영성*. 서울: 은성, 2006.
- 오강남. *기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유상섭. *예수님의 기도*. 서울: 다함, 2018.
- 유은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론 연구*. 서울: 예수영성, 2019.
- 유해룡. *더 깊은 사귄*. 서울: 두란노, 2017.
- 이재천. *개인성경연구 핸드북*. 서울: IVP, 2003.
- 이필준. *교회의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생명의 씨앗, 2007.
-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IVP, 2015.

- 정준기. *사막 교부들의 영성*. 서울: 은성출판사, 2004.
- 조영돈. *한국교회를 그리다*. 서울: CLC, 2016.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서울: 살림, 2004.
- 편집부. *새 성경사전*. 서울: CLC, 1996.
-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한국교회 제자훈련 미래전망 보고서*. 서울: IVP, 2016.
- \_\_\_\_\_. *한국교회 큐티운동 다시보기*. 서울: IVP, 2015.
-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한국교회 성장문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1998.
-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 한국기독교 영성학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8.
- 허성석. *중용의 사부 베네딕토 영성*. 경북: 분도출판사, 2015.
- 허성준. *수도원 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경북: 분도출판사, 2009.

## 2. 번역서적

- 두란노아카데미. *초기 기독교 교부들(Early Christian Father)*, 기독교고전총서1, 김선영 역. 서울: 2011.
- Anderson, Bernhard W. *시편의 깊은 세계(Out of Depth)*. 노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Athanasius. *성 안토니의 생애(The Life of Anthony)*. 안미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5.
- Bresard, Luc. *수도승의 기원(Monastic Spirituality)*. 허성식 편역. 서울: 분도출판사, 2015.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제3권(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Dassmann, Ernst. *교회사 II/1(Kirchengeschichte II/1)*. 하성수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3.
- \_\_\_\_\_. *교회사 II/2(Kirchengeschichte II/2)*. 하성수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Evagrius Ponticus. *안티레티코스(Contro I Pensieri Malvagi Antirretikos)*. 허성석

- 역. 경북: 분도, 2015.
- \_\_\_\_\_.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와 묵상(De Oratione)*. 전경미 이재길 역. 서울: KIATS, 2011.
- Foster, Richard F.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Frank, Karl Suso. *기독교수도원의 역사(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chtums)*. 최형걸 역. 서울: 은성, 2018.
- Gregory of Nissa. *모세의 생애(The Life of Moses)*. 고진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 Guigo II. *성독(Ladder of Monk)*.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18.
- Hall, Christopher A.. *교부들과 함께 성경읽기(Reading Scripture With the Church Fathers)*. 이경직, 우병훈 역. 경기: 살림, 2008.
- Hawins, Greg L. and Parkinson, Cally. *발견(Reveal: Where are You?)*. 김창동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Henry, Matthew. *매튜 헨리의 기도(A Way to Prayer)*. 김동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8.
- Hippolytus.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 이형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Howard, Evan B. *성경그대로 기도하기(Praying the Scriptures)*. 채수범 역. 서울: 규장, 2014.
- Ignatius, Brianchaninov. *예수기도(On the Jesus Prayer)*. 최대형 역. 서울: 은성, 2018.
- Joyse, Timothy J. *켈트 기독교(Celtic Christianity)*. 채천석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8.
- Keener, Craig S. *IVP 성경배경주석: 신약(The IVP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 외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 Keller, Timothy. *팀켈러의 기도(Prayer)*. 서울: 두란노, 2015.
- Lefort. *파코미우스의 생애(the Life of St. Pachomius)*.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10.
- Nouwen, Henri J. N. *마음의 길(The way of the Heart)*.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Origenes. *기도론(De Oratione)*. 이두희 역.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8.
- Riso, Don Richard and Hudson, Russ. *에니어그램의 지혜(The Wisdom of The Enneagram)*. 주혜명 역. 개정판. 서울: (주)한문화멀티미디어, 2010.
- Ruppert, Fidelis. *영적전투 배우기(Geistlich Kampeen Lernen)*. 이종환 역. 서울: 분도, 2017.
- Russel, Norman. *사막 교부들의 삶(The Lives of the Dessert Fathers: Historia Monachorum in Aegypto)*. 이후정 외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4.
- Scarnera, Adele. *4천년의 기도 단식(II digiuno dalle originai al IV)*. 노성기, 안봉환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8.
- Shaff, Phillip. *니케아 이후의 기독교(History of the Chritian History 3)*.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Simpson, William W.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Jewish Prayer and Worship)*. 류재영 역. 서울: 예본출판사, 1999.
- Thomas a Kempis. *그리스도를 본받아(De Imitatione Christi)*. 유대덕 역. 서울: 브니엘, 2016.
- Wakefield, Gorden S. *기독교 영성사전(A Dicti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2.
- Ward, Benedicta, ed. *사막교부들의 금언(The Sayings of The Desert Fathers)*. 이후정,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5.
- Whitney, Donald S.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Praying the Bible)*.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 3. 외국서적

- Ashbrook, R. Thomas. *Contagious Fire*. Denver: R. Thomas Ashbrook, 2018.
- \_\_\_\_\_. *Mansion of the Hear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9.
- Easley, Kendell H. "Prayer Customs in the First-Century Judaism." *Biblical Illustrator 24* (1996): 49.
- Hawthorne, Gerald F., and Martin, Ralph P. ed. *The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Laird, Martin. *Into the Silent Land*. London: Longman and Todd Ltd, 2006.

Longenecker, Richard N. ed. *Into God's Presen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Petuchowski, Jakob J. and Broke, Michael. ed. *The Lord's Prayer and Jewish Litur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8.

#### 4.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김대현.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개발에 관한 연구” Th. D. diss.,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6.

노봉옥. “한국 기도원의 분포유형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Ph. D. diss.,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류충렬. “영성훈련의 한 과정으로서의 관상기도에 관한 연구.” D. Min. diss., 한신대학교, 2008.

서재룡. “호남지방 기독교 영성운동에 관한 연구.” Ph.D. diss., 강남대학교, 2012.

이성용. “해방후 한국기도원 운동에 대한 상황화신학 관점에서의 연구.” Ph. D.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5.

이호근. “영성형성을 위한 통전적 기도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D. Min. diss., 백석대학원, 2014년.

이전규. “한국교회 영성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D. Min. diss., 장로회 신학대학, 2013.

정윤제. “한국교회의 영성훈련과 교회성장 간의 상관성 연구.” 개혁주의교회성장 30, 2011.

차명호. “유대교 18개 기도문이 초기기독교 기도에 미친 영향.” 부산장신 논총9, 2009.

Guillaumont, Antoine. “켈리아 수도승 이야기”(Storia dei monaci a Kellia). 허성석 역. 한국 베네딕토 협의회. *수도생활*. 왜관: 분도출판사, 2016.

#### 5. 인터넷 자료

김남준. “관상기도의 신학적 문제점과 목회적 대안.” *교회와 신앙*. 2011년 11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39>.

라영환.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관상기도.” *교회와 신앙*. 2011 년 11 월 6 일자.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3>.

이승구. “관상기도 운동 연구보고서.” *교회와 신앙*. 2011 년 10 월 28 일자 인용.

Online: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8>.

이효상.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며.” *국민일보*, 2019년 1월 24일자. Onlin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15896&code=61221111&cp=du>.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 번!” CTS TV. 2018 년 8 월 10 일자 방송기사 인용.

Online: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37791>.

“신자수, 개신교 1위… 국민 56% 종교없다.” *동아일보*. 2016년 12월 20일자. Online: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1220/81941625/1>.

“한국교회, 성도는 줄고 교회는 늘고” CTS TV. 2018 년 9 월 28 일자 방송기사

인용. Online: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39751>.

“한국개신교에도 성자가 있다 - 이세종의 삶조명.” *한겨레*. 2014년 11월 23일자.

Online: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65728.html>

“10년 전 오늘,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샘물교회 피랍 사건.” *중앙일보*. 2017. 7. 20일자.

Online: <https://news.joins.com/article/21774538>.

“2015 종교통계, 개신교 인구 증가 원인 분석.” *코람테오닷컴*. 2017년 1월 31일자.

Online: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1>.

Vita of  
Jae Cheon Y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Armdree Presbyterian Church  
President of Institute of Abraham's Spirituality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17th, 1963  
Marital Status: Married to Seonmi Kim(May 28, 1994)  
Home Address: Dongsung Apt. #105-1601, Kangseo-Ro  
68KIL 108, Seoul, South Korea.  
Phones: 82-707680922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 16th, 2000

Education:

B. A.: Seogang University, Seoul, 1988.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Yangji, 199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9.

Personal Experience:

03/2009 to Present: Founder and Senior Pastor  
of Armdree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11/2014 to Present: Founder and President  
of Institute of Abraham's Spirituality  
09/2008 to 12/2010: Director of Leadership Center of GLC  
01/1999 to 08/2005: Director of Workplace Ministry in GCF  
01/1988 to 12/2004: Staff of InterVarsity Fellowship in Korea